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현진호

2007년 8월

#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

지도교수 김 동 전

현 진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현진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국문 초록>

##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

현 진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동 전

본 연구는 제주도 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들이 제주4·3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공교육 차원에서의 책임있는 교육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문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4·3을 교육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인 역사교과서를 분석·검토하여 제주4·3에 관한 인식론에 대해 문헌연구를 하였다. 통계적 접근으로서 설문지를 통하여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에 관한 관심도, 지역화 학습과 제주4·3 교육의 실태, 제주4·3과 학습자료의 활용,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제주4·3의 교육적 접근 방법론 등 다섯 개의 영역을 구성하여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이 제주4·3 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진상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제주4·3 교과서 내용 서술 시각에서는 다양한 인식이나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연구 경향을 교과서 서술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지만, 제주4·3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무장 폭동론적’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여 이 연속상에서 북한의 공산괴뢰 정권이 전쟁까지 일으킨 것으로 보는 교과서 서술도 발견되었다. 대한민국정부가 공식인정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청된다.

둘째, 제주4·3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는 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4·3을 ‘민간인 학살사건’, ‘항쟁’으로 바라보고 있어 제주4·3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주 교육현장에서의 제주4·3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90% 이상의 교사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교육 차원에서의 책임 있는 교육적 논의와 효율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분위기의 성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주4·3 교육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단위학교에서 학교 실정 및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편집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교육청의 발간 의도에도 못미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의 사고방식과 수준을 고려해 다양한 학습자료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넷째, 현재 지역화 학습에서 향토사 자료 활용과 제주4·3 학습 지도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교사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제주4·3에 관한 교육은 소극적이고 저조한 실정이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주4·3과 같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공교육적 차원에서 『제주 문화사』(가칭)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7.8%, “적극 찬성한다” 14.4%, “적극 반대한다”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제주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지도 원칙들에 대해 교사들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분단 체제의 극복과 통일 지향에 두도록 한다”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하는 데 있다” 54.3%,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객관적이며 가치지향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43.1%, “사실을 빠뜨려 역사인식을 오도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37.8%,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교육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3.5%, “정치적인 맥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념논쟁을 피해야 한다” 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제주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에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4·3 교육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자료 및 교재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4·3 교육과 관련한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의 표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3.5%,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제주4·3의 관심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27.7%, “학교장 책임 하에 제주4·3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7%,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관심과 흥미도, 인지도를 감안하여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한다” 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들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제주4·3 유적지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학습”이라는 응답이 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4·3 평화공원 내 사료관에 전시된 유물 자료를 활용한 학습” 42.0%, “영화, 연극, TV드라마를 통한 영상 학습 ” 40.4%, “만화, 애니메이션을 통한 시청각 학습” 27.7%, “웹을 이용한 4·3관련 자료 조사 발표 학습 ” 27.1%,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한 신문 활용 학습 ”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으로서 역사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역사교육에서는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제주4·3 교육에 있어서도 그 간의 연구와 밝혀진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 이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수업안을 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방향성을 가지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권과 평화를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냉전 시대 전쟁과 폭력에 대한 기억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평화교육적 접근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목 차

<b>I. 서 론</b>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사 검토 .....	3
3. 연구목적과 방법 .....	6
<b>II. 제주4·3 교과서 서술과 교육실태</b> .....	9
1. 『국사』 교과서의 제주4·3 서술 .....	9
2.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제주4·3 서술 .....	14
3. 제주4·3 교육실태 .....	26
<b>III.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b> .....	35
1. 제주4·3 교육 인식과 관심도.....	35
2. 지역화 학습과 제주4·3 교육.....	53
3. 제주4·3 교육과 학습자료 이용.....	64
4.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75
5. 제주4·3의 교육적 접근 방법론.....	83
<b>IV. 제주4·3 교육의 방향과 과제</b> .....	95
1. 제주4·3 교육의 방향.....	95
2. 제주4·3 교육의 과제.....	105
<b>V. 결 론</b> .....	108
참고문헌 .....	111
Abstract.....	116
부록.....	119

## 표 목 차

<표 1> 응답자의 특성분석 .....	8
<표 2> 『국사』 교과서의 제주4·3 서술내용 .....	10
<표 3>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제주4·3 서술내용 .....	15
<표 4>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제주4·3 시각자료 .....	22
<표 5> 제주4·3에 대한 관심도 .....	36
<표 6> 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 .....	38
<표 7> 제주4·3 유물·유적지 인지도 .....	40
<표 8>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실시 인지도 .....	42
<표 9>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행사 참석 여부 .....	44
<표 10>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여부 .....	46
<표 11>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찬성 이유 .....	49
<표 12>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반대 이유 .....	52
<표 13>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	55
<표 14>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선택 기준 .....	57
<표 15> 지역화 학습 개념 인지도 .....	59
<표 16> 지역화 단위 제주4·3 학습지도 견해 .....	61
<표 17> 지역화 단위 제주4·3 교육 실시 여부 .....	63
<표 18> 제주4·3 교육 시 학습 자료 이용방법 .....	66
<표 19>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여부 .....	69
<표 20>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시 문제점 .....	72
<표 21>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못한 이유 .....	74
<표 22>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	76
<표 23> 제주4·3 교육 필요한 이유 .....	79
<표 24> 제주4·3 교육이 저조한 이유 .....	82
<표 25>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론 .....	85
<표 26>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기준 .....	87
<표 27> 제주4·3 교육 시 필요한 지도 원칙 .....	89
<표 28> 제주4·3 교육 시 최우선 실천과제 .....	91
<표 29> 『제주문화사』 독립 교육과정 편성 견해 .....	93

## 그림 목차

[그림 1] 제주4·3에 대한 관심도 .....	35
[그림 2] 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 .....	37
[그림 3] 제주4·3 유물·유적지 인지도 .....	39
[그림 4]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실시 인지도 .....	41
[그림 5]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행사 참석 여부 .....	43
[그림 6]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여부 .....	45
[그림 7]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찬성 이유 .....	48
[그림 8]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반대 이유 .....	51
[그림 9]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	54
[그림 10]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선택 기준 .....	56
[그림 11] 지역화 학습 개념 인식도 .....	58
[그림 12] 지역화 단위 제주4·3 학습지도 견해 .....	60
[그림 13] 지역화 단위 제주4·3 교육 실시 여부 .....	62
[그림 14] 제주4·3 교육 시 학습자료 이용 방법 .....	65
[그림 15]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여부 .....	68
[그림 16]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시 문제점 .....	71
[그림 17]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못한 이유 .....	73
[그림 18]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	75
[그림 19] 제주4·3 교육 필요한 이유 .....	78
[그림 20] 제주4·3 교육이 저조한 이유 .....	81
[그림 21]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론 .....	84
[그림 22]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기준 .....	86
[그림 23] 제주4·3 교육 시 필요한 지도 원칙 .....	88
[그림 24] 제주4·3 교육 시 최우선 실천과제 .....	90
[그림 25] 『제주문화사』 독립 교육과정 편성 견해 .....	92

# I. 서론

## 1. 문제 제기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을 양성·변화시키는 행위라고 한다면, 역사교육은 역사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행동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결코 지난날의 역사지식을 학습자에게 맹목적으로 주입시키거나 기억시키는 것이 아니다. 역사교육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해·판단하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사능력을 갖도록 하며,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sup>1)</sup> 이러한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의 현재 위치와 당면 과제가 무엇이며, 미래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21세기 미래 세계의 변화에 좀 더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게 된다.<sup>2)</sup>

이와 관련하여 제주4·3<sup>3)</sup>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비중이 큰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 성격을 철저한 냉전·반공의 시각에서 인식하여 반국가적 공산폭동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고 제주도민 상당수를 빨갱이, 폭도로 낙인하였다. 제주4·3에 관해 논의조차 할 수 없도록 금기시 하였다.

1) 이준희(2001), 『역사교육, 달라져야 한다』, 해안, p.23.

2) 정선영 외(2001),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p.20.

3) 제주4·3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역사다. 연구자의 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공산폭동’, ‘반란’, ‘사건’, ‘무장봉기’, ‘사태’, ‘민중항쟁’ 등으로 달리 인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주4·3에 관한 정명(正名)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현대사에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된 과거 역사 청산을 위한 최초의 보고서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입장 조차도 ‘사건’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도 실상과 성격 규명이 확실히 이루어져 그 성과가 축적되고 이에 걸맞는 이름을 갖기까지 잠정적인 이름이다.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차후 새로운 사료나 증거나 나타나면 보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최근에는 민중항쟁론 내지는 민간인학살사건에 심정적 동조하는 입장이 강하다. 제주4·3에 대한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입장을 취한다.

역사 연구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월 김대중 정부시절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역사적 진실 찾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세기 냉전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산물로 묻혀진 역사가 아니라,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에서 인정되어진 드러난 역사가 되었다.<sup>4)</sup>

『제주4·3진상보고서』는 “1948년 제주섬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됐고, 법을 지켜야 할 국가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인권유린과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sup>5)</sup>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반세기동안 고통의 굴레에서 살아온 제주4·3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국가 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사과까지 하였다.<sup>6)</sup> 제주4·3은 한국전쟁 이후 정부수립과정에서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대표적 사례로 규정됨으로써 향후 냉전적 시각에서 해석됐던 과거사에 대한 역사의 재해석이 이뤄지는 첫 출발점이 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지역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

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의 성격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급속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선인, p.536.

5) 상계서, p.539.

6) 제주4·3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 4·3 사건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목을 빕니다. ...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적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4·3 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과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 ”

하고 있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면, 제주4·3에 대한 역사 기술과 교육도 정부의 진상보고서와 사과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교육에서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오늘의 의미를 되묻고 내일의 삶을 설계하는 실천적 지향을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비판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 2. 연구사 검토

한국 현대사 제주4·3은 분단 상황으로 인한 사회 현실론의 입장에서 이데올로기의 편향적 사관으로 인해 역사 연구가 제대로 복원되지 못하였다. 제주4·3이 일어난 이후 40여년 동안 공산폭동 인식론<sup>7)</sup> 이외에는 그 이상의 역사적 해석을 학문적 연구에서 조차 못하도록 국가에서 차단시켰다. 제주4·3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 된 시기에 재일교포와 미국인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8)</sup>

본격적인 제주4·3에 관련한 논의와 연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공개적으로 일기 시작한다. 80년대 후반의 격렬한 사회운동의 분위기는 제주4·3 연구에도 곧바로 반영되어 양한권, 박명림은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민중항쟁 인식론의 새로운 시각을 표방하게 된다.<sup>9)</sup> 이후 제주4·3의 진실찾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제민일보의 4·3특별취재반의 『4·3은 말한다』와 제주4·3연구소의 현장증언채록 활동은 제주4·3 구체적 실상에 접근을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론에 입각한 연구는 고창훈, 서중석, 김창후, 김종민, 양정심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 연구는 전 시기까지의 무장폭동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제주4·3을 제주민의

7) 1952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발행한 『대한 경찰전사 : 민족의 선봉』 제1집과 1954년 육군본부 전사감실에서 편찬한 『공비토벌사』 관련자료들은 제주4·3의 원인을 ‘공산계열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8) John Merrill은 『The Cheju-do Rebellion』 논문에서 제주4·3은 “자연발생적 대중봉기로 시작되어 한국 내 2개의 권력 사이의 경쟁이 정면대결로 발전되면서 점차적으로 조직화된 하나의 빨치산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김봉현, 김민주는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에서 “남로당의 구국투쟁의 연계선상에서 4·3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미구국운동의 일환으로서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에 그리고, 단기적 목표는 단정·단선저지 투쟁에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9) 양한권(1988),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명림(1988),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각에서 보고자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 왔고, 제주4·3의 성격을 방어적 평화 투쟁으로 인식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sup>10)</sup>

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되면서 이념의 장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과거청산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나간다. 이런 영향 속에서 이념적 색채를 지우고 희생자의 시각으로 민간인 학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제주4·3에 대한 연구의 초점은 인권과 휴머니즘 차원의 ‘양민학살’ 또는 ‘민간인 학살’로 옮겨지게 된다. 이 시기 제주4·3에 관한 연구의 주제는 다양성을 보인다. 제주4·3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업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박찬식은 『수형인 명부』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기 제주4·3 관련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의 학살의 실상을 밝혔다.<sup>11)</sup> 유철인은 제주4·3 연구에 구술사적 접근 방법을 통해 수형인들의 생애사를 다루었다.<sup>12)</sup> 장윤식은 제주도민의 희생을 가져온 제주4·3의 ‘충돌 당사자’ 중 하나인 무장대가 어떻게 조직되고 활동했는가를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그 실상을 밝혔다.<sup>13)</sup> 김은희는 제주4·3 당시 정부가 제주4·3의 해결을 위해 만든 “제주4·3 전략촌성”의 형성 과정과 역할·변화 그리고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sup>14)</sup> 고성만은 4·3 담론에 주목하고 시기별로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에 의

10) 박찬식(1999), “4·3 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실천문화사, p.34.

11) 박찬식(2001), “한국전쟁기 제주4·3 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 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창간호, 제주4·3연구소.

더 나아가 박찬식은 제주4·3 당시 목포형무소 재소 도민희생과 관련 국가기록원, 목포형무소의 소장 자료와 당시 목포형무소 수형 생존자의 증언 등에 기초하여 “제주4·3 관련 목포 형무소재소 희생자의 행방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4·3문제해결은 지속적인 진상규명이라는 사실을 인식케 하였다. 이와 관련, 김양희의 4·3당시 목포형무소 희생의 진상을 다룬 “1949년 목포형무소 집단탈옥사건 연구”가 주목된다. 위 논문들은 2006년 제주4·3 도민연대가 주최한 ‘4·3과 1949년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토론회에서 발표되어 전국의 형무소 4·3 관련 수형인 희생에 대한 시급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12) 유철인은 증언이나 생애사와 같은 구술자료와 관련 “구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증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종종 거짓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은 의미 있는 것이며, 구술자가 믿고 있는 바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만큼 중요한 사실”이라고 평가하였다.

유철인(2002), “이 증언집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제주4·3연구소, 역사비평사, p.12. 유철인(2004), “구술된 경험읽기 - 제주4·3 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제37-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3) 장윤식(2005),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4) 김은희(2005), “제주4·3 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해 주도됐고, 담론의 효과를 위해 어떠한 담론의 정치가 작동되었는가에 대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sup>15)</sup>

제주4·3 대량학살 시기에 국한해 민간인 대량학살을 초래한 ‘초토화작전’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검토하고, 대량학살의 실상에 미군정의 개입 정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면서 미군의 책임을 묻는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6)</sup>

영상 자료는 학생들의 역사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제주4·3 영상 자료를 역사 재현함에 있어 어떻게 재해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sup>17)</sup> 윤석찬은 광복 이후 꽃피었던 학교설립운동과 제주4·3으로 교육시설의 입은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제주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을 교육사적 측면에서 조명하였다.<sup>18)</sup> 제주4·3 교육론과 관련하여 강순문은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현장학습을 통한 제주4·3 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sup>19)</sup> 허영선은 제주4·3 당시 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아동에 대한 학살을 목격한 직·간접 생존자들의 생생한 구술을 통해 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과 학살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sup>20)</sup>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적 논의는 부족하였다.<sup>21)</sup> 제주 교육현장에서 앞으로 제주4·3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 학문적 고민이 필요하다.

15) 고성만(2005), “제주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16) 강성현(2002),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허호준(2003),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5·10선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함옥금(2004), “제주4·3의 초토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7) 김동만(2003), “역사재현에 있어 영상자료의 재해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제주도 메이데이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8) 윤석찬(2001),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교육시설의 피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 강순문(2001),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4·3 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 허영선(2006), “제주4·3시기 아동학살 연구-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21) 최근 2007년 4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사) 제주4·3연구소,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관으로 고 김순태 교수 추모 및 제주4·3 제59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제4부 주제 ‘제주4·3과 교육방향’에서 다음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영권, “학교교육현장에서의 4·3교육, 그 현황과 과제 :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박찬식, “4·3의 공적 인식과 역사교과서 서술”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4·3연구소,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과거사와 교육·제주4·3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pp.131~185.

### 3. 연구목적과 방법

#### 1) 연구목적

교육활동으로서 역사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역사교육에서는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sup>22)</sup> 제주4·3 교육에 있어서도 그 간의 연구와 밝혀진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 이해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수업안을 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냉전 시대 전쟁과 폭력에 대한 기억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평화교육적 접근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교육에서 교사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기 관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교육에서 교사가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역사인식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의 인식태도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과 바람직한 역사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역사인식은 시대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sup>23)</sup> 시대에 따라 역사가 새로 씌어져야 한다면 역사인식도 시대에 따라 새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제주4·3을 바라보는 인식론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4·3 교육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 차원에서 제주4·3 교육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문지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4·3을 교육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인 역

22) 정선영 외(2001), 전계서, p.20.

23) 이준희(2001), 전계서, p.14.

사교과서를 분석·검토하여 제주4·3에 관한 인식론에 대해 문헌연구를 하였다. 통계적 접근으로서 설문지를 통하여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 인식과 관심도, 지역화 학습과 제주4·3 교육의 실태, 제주4·3과 학습자료의 이용,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제주4·3의 교육적 실천 방안 등 다섯 개의 영역을 구성하고, 다시 하위요소 26개 문항으로 세분화하였다.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이 제주4·3 교육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조사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사회과 교사 316명 모집단으로 하여 제주시지역 고등학교 10개교, 서귀포시지역 고등학교 3개교, 제주도 지역 중학교 13개교, 서귀포시지역 중학교 3개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과 교사 188명을 대상으로 군집표집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조사 대상인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기간은 2006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일 간이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 특성분석을 하면 <표 1>과 같다.

배포 회수된 설문지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항별 집계를 하고 이를 백분비(100%)로 산출하였다. 그리고 카이자승법( $X^2$ )검증을 통하여 변인별 인식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분석

응답자 특성		빈도	비율
합계		188	100.0%
성별	남자	96	51.1%
	여자	92	48.9%
연령별	30세 이하	7	3.7%
	31-40	41	21.8%
	41-50	116	61.7%
	51-60	22	11.7%
	60세이상	2	1.1%
경력별	10년 이하	30	16.0%
	11-15년	34	18.1%
	16-20년	78	41.5%
	20-25년	24	12.8%
	25년 이상	22	11.7%
전공별	역사	29	15.4%
	일반사회	66	35.1%
	지리	17	9.0%
	윤리(도덕)	39	20.7%
	기타	37	19.7%
교직단체별	교총	56	29.8%
	전교조	69	36.7%
	한교조	0	0.0%
	기타	32	17.0%
	무응답	31	16.5%

## Ⅱ. 제주4·3 교과서 서술과 교육실태

### 1. 『국사』 교과서의 제주4·3 서술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공식담론은 학술서적, 역사교과서, 영화, 언론 매체, 기념관, 기념비, 기념물, 기념의례 등을 통해 재현된다. 특히 역사교과서는 다음 세대에게 기억을 전수하기 위해 고안된 매체로, 담론 형성에 대한 규정력이 크다. 역사학습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기억이 전수되는 과정이며, 한편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다. 역사교과서는 역사학습을 전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지만,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담론 형성과정에 관여하는 영향력이 있는 매체라 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므로 역사교과서에 제주4·3을 어떻게 서술하는가<sup>25)</sup>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제주4·3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역사적 안목을 제시하는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교과서는 저자들의 교육관에 따라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진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전체적인 이념이나 목적은 물론, 각 교과목의 성격이나 목표, 내용체계, 단원별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과학습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과정은 해방 후 교수요목기를 거쳐 1997년 12월 고시되고, 2000년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주4·3이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6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사』 교과서와 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교과로 도입된 『한국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살

24) 안현주(2006), "역사학습을 통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재개념화",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p.33~34.

25) 역사 교과서 제주4·3서술과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정연호(2000),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와 지배 이데올로기 분석-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게서.

박찬식(2007), 전게서.

펴보고자 한다. 『국사』 교과서의 제주4·3에 관한 서술은 <표 2>와 같다.

<표 2> 『국사』 교과서의 제주4·3 서술내용

교육 과정기	서 술 내 용	교과서 개편시기
제1차 교육 과정(54~63)	언급 없음	
제2차 교육 과정(63~74)	언급 없음	
제3차 교육 과정(74~81)	북한은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에서의 폭동과 여수·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1974 1979
제4차 교육 과정(81~87)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내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교란작전을 폈다.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사주하여 제주도 폭동 사건과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일으켰다. 제주도 폭동 사건은 북한 공산당의 사주 아래 제주도에 서 공산 무장 폭도가 혁명하여 국정을 위협하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남한 교란 작전 중의 하나였다. 공산당들은 도민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후 우리 나라는 군경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1982
제5차 교육 과정(87~92)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그들은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등을 일으켰다.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 그들은 한라산을 근거로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군경의 진압 작전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	1990
제6차 교육 과정(92~97)	공산주의자들은 5·10 총선거를 전후해서 단독 정부수립을 반대한다는 구실로 남한 각지에서 유혈사태를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지역에서는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	1996

위의 <표 2>를 보면,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비중이 큰 사건임에도 1차, 2차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정화 이후인 3차에서는 단지 “북한의 사주를 받은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일으킨 폭동”으로만 서술하고 있다. 1·2차 교육과정기에 『국사』는 검정교과서였다. 당시 문교부 사열 기준만 통과하면 정규 교과서로 인정을 받았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의 구성에서 제주4·3을 언급치 않은 것은 국가 권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절대화 된 사회였다. 이런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학살의 부당성을 말할 수 없다. 오로지 국가 권력만이 학살을 거론할 수 있었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제주4·3뿐 아니라 동 시대에 발생했던 국가 폭력의 사실을 최소화하고 은폐시키기 위해 지배 권력이 고안한 최적의 정치 수단이었다.<sup>26)</sup>

제주4·3은 국가 권력에 의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는 사건 직후부터 학살사건을 은폐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리려는 시도들을 반공이데올로기적 차원에 의해서 처음부터 단절시키고 있다. 국가와 이승만 권력 집단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제주4·3을 반공이데올로기 통치 차원에서 금기시 하였다.

제주4·3은 북한 공산주의자에 의한 무장폭동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 필요도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자랑스러운 역사든 오욕의 역사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게 역사다. 과거 이승만 정부 하에서 발생한 일을 역사교육 차원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서술해야 하는데, 역사교육의 기본서인 교과서에서조차 억압하고 금기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은 2차 교육과정기 반공을 국시로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인식이었다.<sup>27)</sup> 이 시기에 1·21사태, 푸에블

26) 고성만(2005), 전계서, p.13.

27) 4·19 혁명 직후 제주 4·3 사건에 관한 진실찾기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막혀버렸다. 4·3 진상규명운동에 앞장섰던 학생들과 언론인들이 검거되어 옥고를 치렀다. 또 경찰이 직접 지휘하에 ‘백조일손위령비’를 부취서 땅에 파묻어 버렸다. 5·16이후 20여 년 간 군사정권하에서 4·3에 대한 일체의 논의가 금기시되었다. 반공법·국가보안법과 연좌제 등의 억압구도 하에서 4·3사건에 대한 발설조차 힘들어졌다.

로 피랍, 울진·삼척 지방의 북한 무장간첩 사건 등으로 남북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오히려 반공이데올로기가 더욱더 강화되었다. 반공 교육이 강화되고 고등학교에 교련 과목이 신설된다. 『국사』교과서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용어나 표기법의 통일된 것 외에는 제1차 교육과정 당시의 교과서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다만, 1969년 부분적인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지만, 내용은 현대사 부분에서 월남파병, 경제개발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국가비상사태선언, 남북대화 등 정책 홍보적 차원의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1973년 제3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뀌고 국난 극복의 정신 자세를 강조하면서 정치 권력의 강화와 체제 유지 수단의 역할을 하였다. 중·고등학교 공히 ‘국적있는 교육’에 터한 주체성 확립이 ‘민족중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국사』 교육의 목표로 내세워졌다.<sup>28)</sup>

이 시기에 1974년과 1979년 두차례 『국사』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진다. 『국사』 교과서에 6·25사변의 민족시련이라는 소단원에서 제주4·3이 처음 언급된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6·25전쟁 직전까지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하여 제주도에서 폭동과 여수·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라고 서술하였다. ‘민간인 학살 사건’이 6·25전쟁 직전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남한 교란 작전으로 철저한 반공·반북의 시각에서 인식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런 제주4·3 인식론이 교과서에 서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 장면을 목격하였고 학살 당시의 참혹한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하면서도 ‘혹시 빨갱이로 몰릴까봐’ 누구 하나 이를 문제삼지 못했다. 국가는 제주4·3의 성격을 일찌감치 ‘공산폭동’으로 규정지어 주민학살 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기도하고 면죄부 부여의 근거로도 삼았다. 반공국가의 시선으로는 제주4·3 당시의 제주도 주민들 상당수가 ‘빨갱이’ 또는 ‘폭도’였다.<sup>29)</sup>

제4차 교육과정기의 『국사』 교과서에는 ‘공산 집단의 남한 교란’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더욱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표 2>의 1982년에 개편

박찬식(2003), “4·3 진실찾기 운동의 발자취”, 『4·3과 역사』, 제3호, 4·3연구소, p.39.  
 28) 정선영 외(2001), 전계서, p.289.  
 29) 나간채 외(2004),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p.27.

된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6·25 남침 항목에서 제주도 폭동사건과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설명하면서 “공산당들은 … 관공서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등 만행을 저질렀다”, “공산당들은 … 경찰과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고 하여 공산당들의 만행으로 형상화 하는 한편, “군·경의 활약과 주민들의 협조로 평온과 질서를 되찾았다”고 하여 ‘공산당’과 ‘군·경’의 대립구도를 선명히 하고 있다. 제주4·3을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적 시각에서 기술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리석은 국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고 반란이라고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미군정과 미군정에 빌붙어 단독 정부 수립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의 입장만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 진압 과정에서 군경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 학살을 완전히 도외시한 무책임한 서술이다.<sup>30)</sup>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사회 전반에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근현대사 서술에 있어서 젊은 교사나 진보적 역사학자들에 의해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지배층 중심의 역사 서술 관점과 역사 인식을 둘러싸고 역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sup>31)</sup> 이러한 논쟁은 1987년 5차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역사교육이 정치적 예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영향 하에 1990년 국정 교과서인 『국사』도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노태우 정권 시기의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시기 사용했던 ‘제주도폭동사건’에서 ‘제주4·3’으로 그 용어 기술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사건의 주체를 여전히 ‘공산주의자’로 언급하고, 제주4·3의 성격을 ‘무장폭동’으로 단정짓고 있다. 1982년 판의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다.

제6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 1996년 판에서는 내용과 형식에서 많은 변화

30) 정연호(2000),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와 지배 이데올로기 분석-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32.

31) 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서술이 지나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으며, 정권의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하 무장독립전쟁이 축소되었으며, 사회주의계 민족운동이 누락되고,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대중운동이 제대로 서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방 이후에는 맹목적인 반공이데올로기만을 앞세운 나머지, 통일보다는 분단적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용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김한중 외(2005),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p.24.

를 보이고 있다. 이 교과서가 개정되기 전 1994년 한국사 인식과 국사 교과서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립이 있었다. 이 사건은 ‘현대사 파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sup>32)</sup> 지금까지 제주4·3은 ‘6·25 전쟁’과 직접 연결시켜 교과서에서 언급되어졌다. 그러나 제6차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소단원 아래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라는 항목으로 서술되어지고 있다. 서술시각 면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한 좌익 계열의 반대로 나타난 사건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주4·3에 대하여 처음으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되었다는 ‘양민 희생’ 담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 전체적인 면에서 나타나는 내용의 본질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이라는 냉전·반공의 시각에는 변함이 없다.

1997년 12월 고시된 제7차 교육 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편찬하도록 결정하였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과 「집필상의 유의점」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주관 하에 2001년 12월 역사학자 및 역사교사 10인으로 구성된 검정 위원회의 검정과정을 통과하였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어지고 있다.

## 2.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제주4·3 서술

현재 제주4·3을 다룬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검정(檢定)을 거친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두산 동아, 법문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천재교육 6종이다. 제주4·3에 관한 서술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32) 상계서 p.66.

원래 1994년 『국사 교과서 준거안』에 따르면 ‘제주도 4·3사건’을 ‘항쟁’으로 기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언론들이 위험한 민중 사관의 발로이자 좌파적 발상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원색적인 비난이 있었다. ‘제주 4·3항쟁’은 ‘제주도 4·3사건’으로 종전의 견해를 대폭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표 3>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제주4·3 서술내용

출판사 (페이지)	단 원	서 술 내 용
<p>금성 (262~263)</p>	<p>3.대한민국의수립 과 분단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p>	<p>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대 투쟁이 일어난 곳은 제주도였다. 1948년 4월 3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여, 도내의 관공서와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제주도 4·3 사건) 이들은 무장 유격대를 조직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하여 경찰 및 군인들과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들 지역의 선거는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었다.</p> <p>미 군정과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청년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진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이 함께 희생되었다.</p>
<p>대한 (256~257)</p>	<p>3.냉전의현실속 에 통일 국가의 꿈은 깨지고 3-3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 천 10·19 사건</p>	<p>광복 후에 모든 국민은 통일 국가 수립을 바랐으나, 냉전 체제가 굳어지면서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과 군·경이 충돌하는 유혈 사태가 남한 각지에서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이었다.</p> <p>1947년 제주도에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시가 행진을 하던 군중에게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며 항의하였다. 그런데 군정 당국은 민심을 수습하기보다 무력으로 탄압하였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 아래 수천 명의 일반 주민들까지 투옥함으로써 주민들의 반감을 샀다. 이 사건은 1948년에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p> <p>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 봉기를 주도한 것은 수백 명밖에 안 되는 좌익세력이었다. 그런데 국군과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면서 산간 마을을 모두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1954년에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p>

<p>두산 (273)</p>	<p>(4). 6·25 전쟁 제주도 4·3사건</p>	<p>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하여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3일에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도민들이 경찰 지서를 습격하는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미군철수, 단독 선거 절대 반대, 경찰과 테러 집단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p> <p>제주도 4·3 사건의 배경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좌익세력의 활동,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에 대한 반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가 벌어졌을 때 군정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에 항의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미 군정 당국이 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을 추가로 파견함으로써 제주도민과 군정 경찰 및 서북 청년단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었다.</p> <p>미군정은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 경찰, 청년단을 증파하였다. 여기에 맞선 주민들은 한라산으로 들어가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대항하였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토벌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빚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이 많이 희생되었다.</p>
<p>법문사 (256)</p>	<p>4. 6·25전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국 내 정세</p>	<p>광복 이후 냉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족 통일 국가의 수립이 남북 분단으로 좌절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확실시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특히, 좌익 세력은 단독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곳곳에서 벌였는데, 1948년 2월 7일에는 서울에서 총파업을 단행하고 단독 정부 수립과 단독 선거 실시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주도하였다.</p> <p>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의 좌익세력들이 미군철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도내의 경찰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였다(제주도4·3사건). 미 군정청은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였는데, 진압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주민이 희생되었다. 이에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5·10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p>

<p>중앙 (287)</p>	<p>(4). 6·25 전쟁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p>	<p>광복 이후 우리 민족의 염원이던 통일 국가의 수립은 미·소의 대립, 좌익과 우익의 대립에 의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한에서나마 자유로운 민주 국가의 수립이 필요하였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나아갔다.</p> <p>남한만의 선거가 결정되자 좌익 세력은 전국적으로 파업, 시위, 소요, 폭동 등을 통하여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을 벌였다. 1948년 4월에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자 소요 사건을 일으켰다.(제주도 4·3사건)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자로 구성된 유격대와 군·경찰·극우 청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토벌대 사이에서 많은 양민이 희생당하기도 하였다.</p>
<p>천재 교육 (275)</p>	<p>03. 5·10총선거와 대한민국의 수립 국가 재건을 위한 정책</p>	<p>미군정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김구, 김규식 등이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이승만, 한국 민주당 등이 참여하였다.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도민들의 쫓겨 4·3사건이 발생하여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였다.</p> <p>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모든 행정적 권한을 이양받은 후 사회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와 여수, 순천 지역에서 단독 정부의 수립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자, 정부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소요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p>

검정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기준안에 따라 서술되어져야 하기에 아직까지 교과서 서술 인식체계가 어려운 형편이다. 단원 구성은 교과서 전체의 틀을 결정하는 것으로 교과서 집필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단원구성 단계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지며, 교육과정에 소단원과 거기에 들어갈 내용, 학습 활동까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제약을 받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여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든다는 취지의 현행 검정 교과서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sup>33)</sup>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정 『한국근·현대사』도 준거안과 교육과정에 따라 서술되어졌기 때문에 서술방식과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단원의 서술체계가 비슷하다.

제주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진상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4·3 내용 서술에서는 다양한 인식이나 평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어떠한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는가는 학생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sup>34)</sup>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 구성은 현대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sup>35)</sup> 제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고시안에는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을 ‘6·25전쟁’의 하위 항목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sup>36)</sup> 이러한 교육과정의 논리는 북한의 전쟁 책임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국가권력인 군대와 경찰이 주체였다는 사실이 은폐될 수 있다. 또 당시에 ‘좌우 이념 대립 갈등으로 사회 혼란이 심하였고’ 특히 전시였으므로, 학살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빚어진 ‘전쟁의 참혹상’으로 취급되어 상황논리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sup>37)</sup>

제주4·3은 ‘6·25전쟁’의 배경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육과정의 틀 속에는 교묘히 반공 이데올로기적 사고가 작용하고 있다. 제주4·3은 광복 후 통일국가 수립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살

33) 김한중 외(2005), 전계서, p.300.

34) 김한중(2001), “역사의 표현형식과 국사교과서 서술”, 『21세기 국사교육의 새로운 모색』, 국사편찬위원회, pp.218~219.

35) 상계서 p.328.

36) 교육부(1998),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7, p.176.

(4) 현대 사회의 발전

(가) 대한민국의 수립

(ㄷ) 6·25 전쟁

- 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전후한 시기의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등을 통하여 좌우 대립과 사회 혼란이 심하였음을 이해한다.
- ② 북한 정권의 성립 과정, 공산화 과정, 남침을 위한 군사력 증강 등을 파악한다.
- ③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의 참혹상을 알고, 평화 통일이 우리 민족의 당면 과제임을 인식 한다.

37) 안현주(2006), 전계서, p.36.

상 사건이다. ‘대한 민국 정부의 수립’ 중단원 속에 하위항목 단원의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마땅하다. 제6차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이라는 소단원 아래 ‘건국 초기의 국내 정세’라는 항목으로 서술되어지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보는 제주 4·3 인식론은 6차 『국사』 교과서 서술 인식보다도 못한 인식론을 보이고 있다.

제주4·3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대한 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무장 폭동론적’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여 이 연속상에서 북한의 공산괴뢰 정권이 전쟁까지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sup>38)</sup>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조직적 무장폭동과 전쟁을 거치면서 실로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건국되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음을 인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표 3>에서 단원 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산>, <중앙>, <법문> 출판사들이다. 이들 교과서는 제주4·3을 ‘6·25 전쟁’의 하위 항목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4·3을 아직도 ‘공산 폭동론’의 인식하에 서술하고 있으며 반공이데올로기의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39)</sup> <천재> 출판사 교과서는 단원 서술 체제면에서 중립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5·10 총선거와 대한 민국의 수립’ 단원에서 “제주도와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단독 정부의 수립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자 정부는 먼저 공산주

38) 이러한 논리는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사』 교과서와도 마찬가지로이다. 현재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6·25전쟁의 배경 하에 제주4·3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 공산 정권은 소련과 비밀 군사 협정을 맺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대한 민국에 대한 무력 남침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당시 남한은,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및 각지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과업 등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정당과 사회 단체의 난립으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실정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6), 『중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p.304.

39) 뉴라이트 지식인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만든 『한국근·현대사』 서술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엿 볼 수 있다.

IV. 국민국가 건설 1. 대한민국의 수립 2) 대한민국의 탄생의 5·10 선거 부분에는 ‘5·10 선거는 좌파의 무장봉기(제주4·3사건) 때문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4) 국가형성 초기의 과제와 어려움의 체제전복 세력의 도전 부분에는 ‘좌파는 제주4·3 사건과 여순반란, 그리고 그 잔당들에 의한 빨치산 투쟁등의 무장봉기를 통해 신생 정부의 안정을 위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p.123)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2006. 12. 18. 재인용함.

위와 관련하여 제주4·3 유족회 및 제주4·3관련 단체들은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한국근·현대사』의 제주4·3 역사 왜곡에 대해 제주4·3무장봉기를 북한과 연결한 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수만명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선 단 한 줄도 기술하지 않은 것은 그 학살의 진실조차 부정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가 없을 때에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소요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서술하고 있다.

제주4·3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짧게 기술돼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지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을 인식케 한다. ‘6·25전쟁’ 하위 단원 ‘6·25전쟁의 전야’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의 혼란 상황의 예로 ‘여수·순천 10·19사건’만 다루고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단원에 제주4·3을 언급치 않았지만 바라보는 입장은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적 냉전 시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 인식은 사실 자체의 객관적 이해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반공지상주의 역사인식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라면 두 사건을 교육적 맥락에서 투영시켜야 한다. 역사교육의 존립 근거가 과거의 객관적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미래를 지향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이 두 사건이 사회혼란의 원인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통일정부 수립 실패가 빚어낸 참극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아픈 상처도 이데올로기 환원주의적 평가에서 벗어나 온당하게 드러내어 치유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수 있다.<sup>4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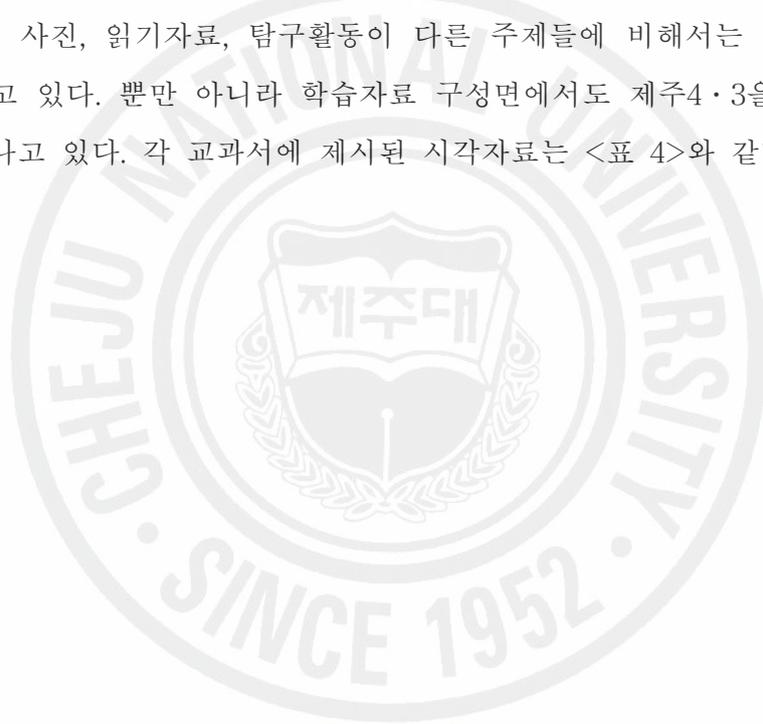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냉전 시각과는 달리 <금성>, <대한>출판사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시각에서 독특한 단원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연구 경향을 교과서 서술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금성>출판사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분단’의 중단원 아래 하위 항목으로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을 설정하여 제주4·3을 언급하고 있다.

<대한>교과서는 ‘냉전의 현실 속에 통일 국가의 꿈은 깨지고’라는 이색적인 단원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특하게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이라는 별도로 하위 단원을 설정하여 제주4·3을 기술하고 있다. 이 두 출판사의 경우 제주4·3 서술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 운동과 분단 과정에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인식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권

40) 김종훈(2003),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칠까? - 해방 8년사를 중심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p.275.

력의 초토화작전에 의한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건'으로 제주4·3을 정의하고, 도민 대량 학살의 주체가 미군정과 정부(군·경)에 있음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반공 이데올로기적 구속을 넘어서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제주4·3을 바라보는 인식은 앞서 설명한 교과서 서술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학습자료 구성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6종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이전 제6차 『국사』 교과서에 비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가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주4·3의 인식의 틀을 형성하는데 도움자료들인 사진, 읽기자료, 탐구활동이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는 풍부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료 구성면에서도 제주4·3을 이해하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각 교과서에 제시된 시각자료는 <표 4>와 같다.



<표 4>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제주4·3 시각자료

출판사	시각자료	제목	페이지
금성		<p>제주도 4·3 사건 때 최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제주 북촌리 마을</p>	262
천재		<p>빨치산 토벌 (1948.11)</p>	277
법문		<p>남북한의 정치적 혼란</p>	256

출판사	시각자료	제목	페이지
두산		제주도 4·3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	273
중앙		반공의거와 공산당 소요 사건	287
대한		한라산 정상 부근의 산림 지대를 수색하는 국군	256

교과서 시각자료 중 사진이나 그림은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을 자극하고,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이를 돕는다. 또한 역사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역사이해를 구체화 한다.<sup>41)</sup> 위의 <표 4>에서 <두산>교과서는 ‘제주도 4·3사건으로 체포된 사람들’이란 제목을 달고 있다. ‘체포’라는 단어는 좋은 어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다. <두산>교과서 제주4·3의 서술 내용으로 볼 때 학생들은 이 사진을 군·경의 토벌작전에 의해 붙잡혀온 무장대의 사람들로 제주도민을 나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실상은 당시의 아비규환의 절규 속에 산에 오르면 살 수 있을까 하여 올랐다가 군·경에 의해 체포된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선량한 제주도민들이다.

<천재>교과서는 ‘빨치산 토벌(1948. 11)’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교과서의 기술 내용처럼 제주도와 여수, 순천에서 대규모 소요가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는 달리 <금성>교과서는 ‘문학 속으로’라는 읽기 자료를 통해 제주4·3을 다룬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줄거리를 소개하면서<sup>42)</sup> ‘제주도 4·3사건 때 최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제주 북촌리 마을’의 이정표인 마을 표석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학생들은 『순이삼촌』이라는 문학작품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흥미 뿐 아니라, 제주4·3 당시 북촌리라는 한 마을에서 어떻게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역사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금성>교과서는 또한, ‘단독정부냐, 통일정부냐’라는 제목 아래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정읍발언과 통일된 조국건설을 강조한 김구의 삼천만동포에게 읊고함이라는 연설을 나란히 비교하며 소개해 제주4·3을 통일정부수립운동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41) 정선영 외(2002), 『역사교육의 이해』, 三知院, p.151.

42) 김한중 외(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p.262.

“1948년 12월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 학살 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는 현기영의 『순이삼촌』은 30년 동안이나 묻혀 있던 제주도 4·3사건을 처음으로 사회에 드러낸 문체작으로 손꼽힌다. 이 소설로 사라들은 비로소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제주도4·3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1999년 12월 16일 ‘제주도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당시 희생된 제주도민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4·3사건 당시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한 진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고 소개하고 있다.

<대한>교과서는 앞의 <표 3>에서 “무장봉기를 주도한 것은 수 백 명 밖에 안 되는 좌익세력이었다. 그런데 국군과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면서 산간마을을 모두 불태우는 초토화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수많은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대한>교과서는 이러한 증거 사진으로 한라산을 토벌하고 있는 ‘한라산 정상 부근의 산림 지대를 수색하는 국군’이라는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다 실감있게 시각적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대한>교과서는 학생들의 제주4·3에 관한 역사탐구를 자극할 수 있는 읽기 자료와 탐구 활동 및 열린 과제 등의 학습 보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활동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다. 탐구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은 왜 일어났는가?’를 설정하고 ‘좌익 세력의 무장 봉기’ 도움글과 ‘제주도에 공무원들의 부패가 극심하다’라는 읽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sup>43)</sup> 그리고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좌익 세력이 제주도 4·3사건을 일으킨 까닭과 제주도 4·3사건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는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제주4·3사건에 관한 역사인식을 해 보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교과서는 ‘제주4·3특별법’ 제정 경위와 정의를 소개하면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서로 작성해 보도록 하는 열린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

43) 제시된 탐구활동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1. 도움글 좌익 세력의 무장 봉기

“5·10 총선거를 둘러싸고 좌·우 세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500명 가량의 좌익 세력은, 단독선거 저지를 통한 통일 국가 수립, 그리고 경찰과 극우 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경찰지서와 서북 청년회 등의 우익 단체들을 습격하였다. 이로써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자료2. 자료 읽기 제주도에 공무원들의 부패가 극심하다.

“제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시정 방침에 신축성이 없다는 것과 공무원들이 부패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겠다. 제주도라는 곳은 워낙 살기 어려운 곳이고, 특히 공무원들은 제주도에 가는 것을 무슨 정배나 가는 양으로 생각함으로써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제주도로 안 가고 보니, 명예나 돈이나 바라는 친구들이 어찌 바른 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패상은 작년에 내가 갔을 때 이미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고름이 제대로 든 것을 좌익 계열에서 터뜨린 것이 제주도 사태의 진상이라 할 것이다.” - 이인 검찰총장(서울신문, 1948년 6월 17일)-

한철호 외(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주), p.256.

도록 하는 안내까지 하고 있다.<sup>44)</sup>

<중앙>과 <범문>출판사는 ‘반공의거와 공산당 소요 사건’ 그리고 ‘남북한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제목 하에 지도를 게재하고 있다. 지도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역사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역사지도 속에 담겨진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역사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sup>45)</sup> 그러나,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해석에 지도를 봄으로써 ‘공산당의 소요’ 사건이라는 좌편향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갖게끔 할 가능성이 크다.

### 3. 제주4·3 교육실태

#### 1) 제주4·3 교육 억압시기

과거 교육현장에서 반공교육은 있어도 현대사 교육은 없었다. 지난 시절 제주 4·3은 제주 교육에서조차 반공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이해되어 금기시 되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제주4·3을 억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없는 망각된 역사였다. 1979년 유신정권 시절 제주도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된 『제주교육사』는 제주4·3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제주도 개벽 이래 가장 크게 인명과 재산이 손실된 참화는 4·3폭동사건일 것이다. 1948년 4월 3일 미명을 기해 전도에 걸쳐 일제히 공산당 극렬분자들이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기 시작한 것이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을 전면 개방하게 되니 본도는 또 다시 낙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아직도 잔비 수 명이 남아있었다. 동년 4월 2일 마지막 남은 공비 오원권이 구좌면 종달리에서 체포됨으로써 만 9년간에 걸쳐 자행된 만행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이 미증유의 폭동사건이 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끼친 참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의 연속이 아닐 수 없었다.”<sup>46)</sup>

제주도교육청의 제주4·3에 관한 인식론은 앞장에서 기술한 교육부의 『국사』

44) 상계서, p.257.

45) 정선영 외(2002), 전계서, p.148.

46) 제주교육사편찬위원회(197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위원회, pp.115~116.

교과서 제주4·3 서술인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주4·3을 공산당 극렬분자에 의한 공산폭동으로 규정하여 그 성격을 철저한 냉전·반공의 시각에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주4·3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은 일절 언급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제주4·3을 교육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었다.<sup>47)</sup> 이 시기에는 각급 학교에 반공 학습자료를 전시한 반공코너, 반공관 등을 마련하고, 『반공교육 실천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반공 안보교육을 강화하였다.

## 2) 1991년 지방자치 실시이후 제주4·3 제도권 공론화 시기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제주도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4·3에 관한 피해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1994년 국회사상 처음 여야의원들에 의해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게 되고 4·3 공론화가 제도권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 국정교과서에 기술된 4·3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작업도 추진된다. 또한 관련자료로서는 처음으로 기존의 이념틀을 탈피해 제주4·3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한 『제주도지』가 출간되었다.

이 시기에, 교사들보다도 학생들이 먼저 도내에서만 이라도 제주4·3을 학습과정화 해달라고 제주4·3교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은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학습 과정화 하는 데는 위험천만이라고 지적, 다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교사들에게 부탁하면 가능할 수 있으며, 정설이 안되거나 표준이 안된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로서 죄악시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sup>48)</sup>

1994년 7월 제주도의회 제95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방안이 공식 거론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은 매우 가슴 아픈 도민의 사건으로서 교과서에 나타난 왜곡된 역사사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

47) 실례로, 서울 모 중학교 교사가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는 내용을 담은 4·3항쟁 관련 유인물을 제작하여 동료 교사들에게 돌렸다는 이유로 사전영장이 발부되었다. 『한겨레 신문』 1989. 8. 15.

48) 『한라일보』, 1994. 4. 15.

서 하지만 왜곡의 판단과 시정은 공인된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공인되기까지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96학년도부터 지역문제가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대비, 이 문제를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인식론을 보였다.<sup>49)</sup>

1994년 10월 국회교육위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었다. 제주4·3이 민족사를 재정립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지역교과서에 다뤄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논의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도교육청은 “4·3은 보통교육의 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과서는 교육부소관이며 진상규명이 되고난 다음 가치중립을 지녀 전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솔하게 교과서 편집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려가 큰 만큼 4·3을 지역교과서에 반영할 능력이 교육감에게 없음을 알아 달라”는 입장 표명을 하였다.<sup>50)</sup>

제주4·3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권에서 공론화되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 역사교육에 관한 지침을 정한 일도 없고 그 어떤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현재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기본으로 4·3에 대해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역사적인 견해가 정리돼서 온 도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이 이루어질 때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나가겠다”<sup>51)</sup>는 입장 뿐 이었다.

이 시기 1979년에 발간된 『제주교육사』는 20년이 지나 1999년 두 번째 발간된다. 단원 제목을 ‘4·3공산폭동과 제주교육’에서 ‘4·3사건과 제주교육’으로 설정하여 종전의 공산폭동의 언급은 사라졌지만 좌우익의 이념대립으로 제주4·3이 발생하여 교육계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기술에 기술하여 기존 이념틀을 탈피하지 못한 인식론을 보였다.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안이 마련되고 제주4·3위령공원 조성부지가 확정되었다. 1999년 10월 제주도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4·3을 어떻게 정립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

49) 『제민일보』, 1994. 7. 5.

50) 『제민일보』, 1994. 10. 10.

51) 제주도의회 제145 정기회 의사일정 제6차본회의 1998. 12. 17. 속기록.

3의 명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주4·3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연구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문 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은 도교육청보다는 제주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4·3 교육과 관련하여 문제를 회피코자 하는 인식론을 보이고 있다.<sup>52)</sup>

제주도교육청이 제주4·3 교육관련 인식이 이러한 때인 1999년 12월 16일 대한민국 국회는 50여 년전 이 땅, 제주에서 일어났던 4·3의 치유를 위한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1999년 12월 17일 열린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앞으로 교육과정에 있어 제주도 4·3의 문제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이며,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를 질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4·3특별법제정과 관련 향후 4·3 교육방향에 대하여 “4·3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4·3 바로 알기 교육을 성실히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에 사회과 교과연구회에 4·3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연구토록 하여 지도지침과 지도안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을 과정운영에 지역화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조치하겠다”<sup>53)</sup>고 밝혔다. 그리고 “4월 3일 조기계양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조기계양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가능하도록 규정된 만큼 그것에 따르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sup>54)</sup>

### 3) 국가차원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시기

특별법제정 등 국가차원에서 제주4·3에 해한 해법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4·3사건 학습을 공식화했다. 도교육청은 4·3교육과정 반영에 앞서 ‘수학여행은 현장체험 학습의 장’이라며 제주체험학습프로그램 책자내에 제주4·3기행 I·II 코스를 개발하고 4·3 역사현장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편집위원회 관계자는 ‘제주4·3기행 I·II’ 수록 배경에 대해 “특별법 제정 등 이제 4·3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질 시점에 이르렀다”면서 “4·3당시 역사적인 현장을 돌아보고 체험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삶

53) 제주도의회 제15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999. 12. 17. 속기록.

54) 『제민일보』, 1999. 12. 18.

과 제주의 숨겨진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숨겨진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제주도민으로서 제주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몸소 깨닫을 수 있도록 하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sup>55)</sup>

2000년 2월 제10대 김태혁 교육감 취임식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육감은,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교과운영의 지역화 차원에서 4·3관련 자료 연구개발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sup>56)</sup>

이 무렵,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에 ‘교사를 위한 제주역사 문화연수 기관’으로 지정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전교조 제주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역사적 사실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객관적 사료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후, 이에 따른 연수 및 학생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4·3 문제는 진상과 성격 규명이 이뤄진 후에 학생지도를 위한 연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교조의 요청을 반려했다.<sup>57)</sup>

2001년 제주4·3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에 있었지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4·3을 학교수업에서 공식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 표현은 없었다. 그러나 전국 전교조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4·3특별법이 공포되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후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당국은 방관하고 있다”면서 “전교조 교사들이 제주4·3에 대해 교육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이 제작한 ‘제주4·3 교육자료 CD’를 전국의 역사 담당교사들에게 배포하고 4월 3일을 전후해 수업시간에 전국 단위 공동수업을 실시키로 했다.<sup>58)</sup>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이 제작한 ‘제주4·3 교육자료 CD 등 4·3교육 인식론과 방법론문제를 놓고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 간에 마찰이 일어났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제주4·3 학습자료는 어느 한 쪽 시각이나 관점에 편중돼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진상과는 다르게

55) 『제민일보』, 2000. 1. 19.

56) 『제민일보』, 2000. 2. 12.

57) 『한라일보』, 2000. 5. 6.

58) 『한라일보』, 2001. 3. 30.

왜곡되거나 오도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시점에서 조회·종례나 수업시간에 교수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sup>59)</sup>

교육부는 전교조의 제주4·3 공동수업과 관련 제주4·3 공동 수업방침을 제주도교육청을 비롯 16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장학지도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제주4·3 공동 수업방침을 통해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지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현재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 되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바, (제주4·3)사건의 성격이나 실제 등에 관한 교육은 진상규명 이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sup>60)</sup>

2002년 제주 역사의 최대비극인 제주4·3은 54주년을 맞았으나 제주도교육청은 여전히 학생들에 대한 제주4·3 교육을 외면하였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제4·3에 대한 성격규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교육청의 제주4·3 교육에 관한 인식론이 대두될 때 전교조 제주지부에서는 ‘제주4·3 교육 문화주간’을 선포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내용의 다양한 제주4·3 교육을 실시하였다.

#### 4)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공식사과 표명이후

국가 차원에서 제주4·3에 대한 진상과 성격 규명이 이뤄진 시점에서 도내 각급 학교에서도 제주4·3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4·3 교육 자료집인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2004년도에 발간하였다. 제주도교육청이 공식적으로 제주4·3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입장 표명이다. 사실 종전까지 제주도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제주4·3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왔다. 정부의 최종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사실상 이전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주4·3 교육 자료집에서는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

59) 『제주일보』, 2001. 4. 4.

60) 『제주일보』, 2001. 4. 5.

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안을 전폭 수용하고 있다. 과거 ‘공산 폭동론’으로 인식된 제주4·3 역사 인식론을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역사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 교육 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일선 학교에 배부하면서 “교사들이 개인적 편향 없이 역사적 사실만을 근거로 교육해줄 것”을 당부하였다.<sup>61)</sup>

제주4·3 교육 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제주』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총론에서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제주4·3의 개관과 현장체험 학습의 편성·운영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훈화자료와 교수·학습 과정(예시)안을 제시하였다. 제주4·3 계기교육 자료로 활용하거나 범교과 학습활동,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은 제주4·3과 관련한 유적지를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북제주군 동부, 북제주군 서부, 남제주군 동부, 남제주군 서부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해 자료사진과 사건 개요, 약도 등을 수록해 학생들을 위해 지역별 제주4·3 현장체험 지도 자료로 개발하였다.

2004년도에 발간한 제주4·3 교육 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제주』는 2005년도에 개정증보판을 발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국가차원에서 제주4·3 진상 규명 및 성격 규명이 이뤄짐에 따라 제주4·3 56주년을 앞두고 일선 학교에 보급된 제주4·3 교육 자료집인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통해 계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제주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방침을 정했다. 이는 학교에서 해도 좋고 말아도 되는 소극적인 제주도교육청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제주4·3 교육은 적극성을 띠지 못하였다. 제주도교육청은 4·3교육에 대해 접근을 신중히 하고 교육을 작년엔 처음 실시 해 특별 교육프로그램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만 말하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평화, 인권, 통일 그리고 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를 위한 제4회 제주4·3 교육주간을 선포하고 제주4·3 교육에 제주도교육청이 적극 나서도록 기자회견을 하였다. 기자회견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3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처절한 수난과 아비규환의 비명과 인간의 잔혹함과 만나는 길이지만, 그 간의 억압에 굴복하여 말 못하고 숨죽여 있던 것에 대한

61) 『제주일보』, 2004. 3. 11.

교사로서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4·3 교육은 정의를 살리는 길이며, 인간성을 회복하고 평화와 통일,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후세에 전하는 일입니다.”<sup>62)</sup> 전교조 제주 지부는 4·3 교육을 통해 비극의 시대를 살아온 모든 제주도민과 후세들에게 화해와 상생의 소중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4·3 교육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4·3을 바로 알기 위한 교육이 변함없이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간에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4·3 교육에 대한 소홀함과 무관심을 보였다. 추모현수막 걸기, 4·3위령제 참여하기, 초·중등 급별 수업 자료 CD를 제작·배포하고 제주4·3 교육 주간선포 등 가장 기본적인 전교조 제주지부의 제안을 제주도교육청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2006년 제주4·3 58주년을 맞아 전직원을 대상으로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새기는 제주 4·3 특별직장교육을 실시했다.<sup>63)</sup> 2006년 제주4·3 위령제 행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뜻깊은 행사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주4·3 평화공원을 제주4·3 58주년 4·3위령제에 직접 참석하여 영령들께 헌화 분향하고, 머리 숙여 원혼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은 전국적으로 생방송되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이 장면을 방송한 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이 시기에 제주4·3 교육에 대한 많은 분위기 전환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주4·3 교육에 관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별로 많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대상 국정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제주4·3 계기교육하는 학교는 7학교에 불과하였다.

2006년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의 보여주고 있는 제주4·3 역사교육 정책 부재는 제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회피하는 역사적 직무유기”라고 따가운 질책을 했다. “제주4·3 당시 수많은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그중 교육기관인 학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제한 뒤 “제주4·3으로 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계의 피해실태가 정확하게 조사돼

62) 인터넷 신문 미디어 제주 2005. 3. 25. 제4회 제주4·3 교육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참조.

63) 박찬식 박사는 ‘제주4·3 사건의 진실’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박찬식 박사(제주대)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것은 4·3의 비극이 토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찬식 박사는 “4·3에 대한 이념의 문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제주도민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불의에 저항했던 경험을 보여준 것으로 4·3을 이해해야 옳다”고 밝혔다. 『한라일보』, 2006. 3. 31.

제주교육의 역사에 기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밝히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조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조사하는 것이 어떠냐”고 교육감의 입장을 요구했다.<sup>64)</sup>

이에 대해 교육감은, “제주4·3은 역사적으로 슬픈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청은 제주4·3의 깊은 관심과 관련 교과 교사를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피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인적·물적 피해 실태와 기존의 연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 피해 실태를 파악·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학교에서 학교 교지를 편찬할 때 학교연혁 등 주요 내용에 수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 유지들과 협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답변했다.<sup>65)</sup>

제주도교육청은 아울러 “제주4·3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놓쳐버린 이들에 대한 명예졸업장 수여도 학교마다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07년은 제주4·3 제59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고 “4·3 기념일을 전후하여 학교와 지역실정을 고려하고, 학생 수준에 알맞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주4·3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용서와 화해,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고취시키기로” 하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 관련 계기교육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과 국가차원에서 제정한 ‘제주4·3특별법’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도교육청에서 발간 보급한 제주4·3 교육 장학자료집인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활용토록” 하였다.<sup>66)</sup>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육감은 제주4·3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청과 교류된 제주대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를 개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sup>67)</sup>

64) 인터넷 신문 제주의소리 2006. 11. 9.

6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006. 11. 9. 속기록.

66) 제59주년 제주4·3 관련 계기교육 실시 - 학교별 자율적 운영...용서와 화해, 평화와 상생의 정신 고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민일보』 2007. 3. 29. 보도자료란 참조.

6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2006. 11. 9. 속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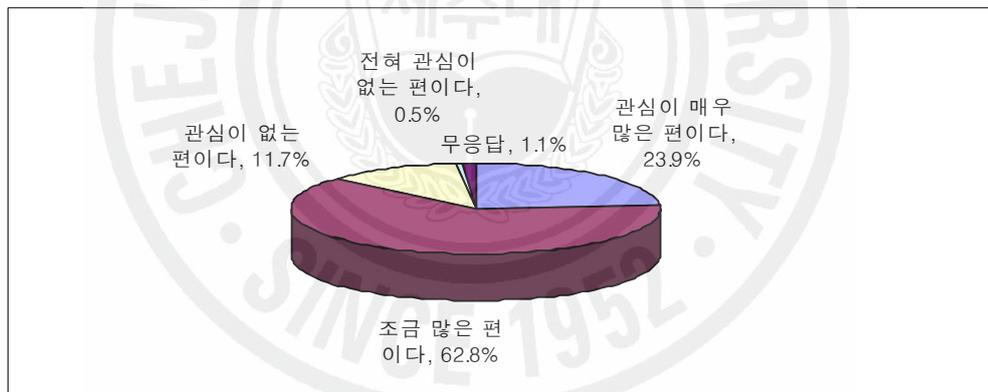
### Ⅲ.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

#### 1. 제주4·3 교육 인식과 관심도

##### 1) 제주4·3에 대한 관심도

“선생님께서서는 우리 고장에서 일어났던 현대사 제주4·3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림 1]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금 많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23.9%, “관심이 없는 편이다” 11.7% 등으로 나타나 대체로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8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제주4·3에 대한 관심도



제주4·3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각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제주4·3에 대한 관심도

구분			제주4·3에 대한 관심도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조금 많은 편이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다	무응답	
성별 $\chi^2=6.947$ p-value=.139	남자	빈도	30	54	10	1	1	
		비율	31.3%	56.3%	10.4%	1.0%	1.0%	
	여자	빈도	15	64	12	0	1	
		비율	16.3%	69.6%	13.0%	.0%	1.1%	
연령별 $\chi^2=17.059$ p-value=.382	30세 이하	빈도	0	5	2	0	0	
		비율	.0%	71.4%	28.6%	.0%	.0%	
	31-40	빈도	9	24	7	0	1	
		비율	22.0%	58.5%	17.1%	.0%	2.4%	
	41-50	빈도	30	76	9	0	1	
		비율	25.9%	65.5%	7.8%	.0%	.9%	
	51-60	빈도	5	12	4	1	0	
		비율	22.7%	54.5%	18.2%	4.5%	.0%	
	60세 이상	빈도	1	1	0	0	0	
		비율	50.0%	50.0%	.0%	.0%	.0%	
	경력별 $\chi^2=18.302$ p-value=.307	10년 이하	빈도	9	17	3	0	1
			비율	30.0%	56.7%	10.0%	.0%	3.3%
11-15년		빈도	8	19	7	0	0	
		비율	23.5%	55.9%	20.6%	.0%	.0%	
16-20년		빈도	14	57	6	0	1	
		비율	17.9%	73.1%	7.7%	.0%	1.3%	
20-25년		빈도	8	13	3	0	0	
		비율	33.3%	54.2%	12.5%	.0%	.0%	
25년 이상		빈도	6	12	3	1	0	
		비율	27.3%	54.5%	13.6%	4.5%	.0%	
전공별 $\chi^2=32.814$ p-value=.008*	역사	빈도	12	12	4	0	1	
		비율	41.4%	41.4%	13.8%	.0%	3.4%	
	일반사회	빈도	22	41	3	0	0	
		비율	33.3%	62.1%	4.5%	.0%	.0%	
	지리	빈도	0	13	4	0	0	
		비율	.0%	76.5%	23.5%	.0%	.0%	
	윤리(도덕)	빈도	4	31	4	0	0	
		비율	10.3%	79.5%	10.3%	.0%	.0%	
	기타	빈도	7	21	7	1	1	
		비율	18.9%	56.8%	18.9%	2.7%	2.7%	
교직단체 가입별 $\chi^2=18.960$ p-value=.089	교총	빈도	14	35	5	1	1	
		비율	25.0%	62.5%	8.9%	1.8%	1.8%	
	전교조	빈도	22	44	3	0	0	
		비율	31.9%	63.8%	4.3%	.0%	.0%	
	한교조	빈도	0	0	0	0	0	
		비율	.0%	.0%	.0%	.0%	.0%	
	기타	빈도	5	20	7	0	0	
		비율	15.6%	62.5%	21.9%	.0%	.0%	
	무응답	빈도	4	19	7	0	1	
		비율	12.9%	61.3%	22.6%	.0%	3.2%	
전체			빈도	45	118	22	1	2
			비율	23.9%	62.8%	11.7%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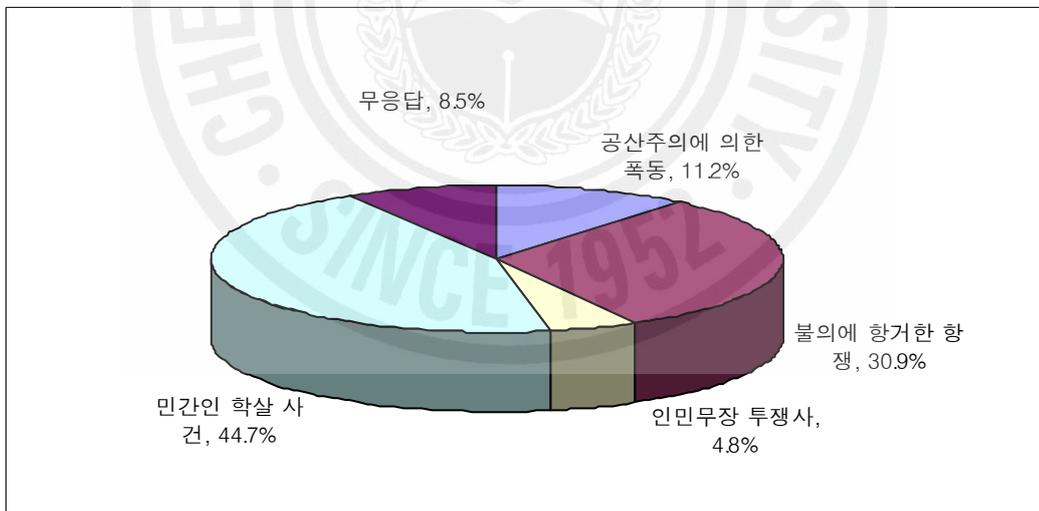
p<.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별’(  $\chi^2=32.814$  p-value=.008\*p<p.05)에서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성별, 연령별, 경력별, 교직단체별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조금 많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각각 56.3%와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경력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조금 많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30세 이하에서는 71.4%, 경력별 16-20년에서 73.1%,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

“제주 현대사 4·3의 역사”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관점은 어떠하십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 [그림 2]에서와 같이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의에 항거한 항쟁’ 30.9%, ‘공산주의에 의한 폭동’ 11.2%, ‘인민무장 투쟁사’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



제주 현대사 제주4·3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각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6>과 같다.

<표 6> 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

구분			“제주 현대사 제주4·3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공산주의에 의한 폭동	불의에 항거한 항쟁	인민무장 투쟁사	민간인 학살 사건	무응답	
성별 $\chi^2=10.993$ p-value=.027*	남자	빈도	17	24	5	40	10	
		비율	17.7%	25.0%	5.2%	41.7%	10.4%	
	여자	빈도	4	34	4	44	6	
		비율	4.3%	37.0%	4.3%	47.8%	6.5%	
연령별 $\chi^2=35.543$ p-value=.003*	30세 이하	빈도	0	3	0	3	1	
		비율	.0%	42.9%	.0%	42.9%	14.3%	
	31-40	빈도	1	14	2	19	5	
		비율	2.4%	34.1%	4.9%	46.3%	12.2%	
	41-50	빈도	10	39	5	52	10	
		비율	8.6%	33.6%	4.3%	44.8%	8.6%	
	51-60	빈도	9	1	2	10	0	
		비율	40.9%	4.5%	9.1%	45.5%	.0%	
	60세 이상	빈도	1	1	0	0	0	
		비율	50.0%	50.0%	.0%	.0%	.0%	
경력별 $\chi^2=57.848$ p-value=.000*	10년 이하	빈도	1	10	2	13	4	
		비율	3.3%	33.3%	6.7%	43.3%	13.3%	
	11-15년	빈도	0	12	2	15	5	
		비율	.0%	35.3%	5.9%	44.1%	14.7%	
	16-20년	빈도	2	31	3	37	5	
		비율	2.6%	39.7%	3.8%	47.4%	6.4%	
	20-25년	빈도	9	3	0	11	1	
		비율	37.5%	12.5%	.0%	45.8%	4.2%	
	25년 이상	빈도	9	2	2	8	1	
		비율	40.9%	9.1%	9.1%	36.4%	4.5%	
전공별 $\chi^2=18.921$ p-value=.273	역사	빈도	1	7	1	17	3	
		비율	3.4%	24.1%	3.4%	58.6%	10.3%	
	일반사회	빈도	11	22	5	25	3	
		비율	16.7%	33.3%	7.6%	37.9%	4.5%	
	지리	빈도	2	5	1	5	4	
		비율	11.8%	29.4%	5.9%	29.4%	23.5%	
	윤리(도덕)	빈도	3	13	0	18	5	
		비율	7.7%	33.3%	.0%	46.2%	12.8%	
	기타	빈도	4	11	2	19	1	
		비율	10.8%	29.7%	5.4%	51.4%	2.7%	
교직단체 가입별 $\chi^2=44.811$ p-value=.000*	교총	빈도	15	5	1	31	4	
		비율	26.8%	8.9%	1.8%	55.4%	7.1%	
	전교조	빈도	0	32	4	27	6	
		비율	.0%	46.4%	5.8%	39.1%	8.7%	
	한교조	빈도	0	0	0	0	0	
		비율	.0%	.0%	.0%	.0%	.0%	
	기타	빈도	2	13	1	11	5	
		비율	6.3%	40.6%	3.1%	34.4%	15.6%	
	무응답	빈도	4	8	3	15	1	
		비율	12.9%	25.8%	9.7%	48.4%	3.2%	
전체			빈도	21	58	9	84	16
			비율	11.2%	30.9%	4.8%	44.7%	8.5%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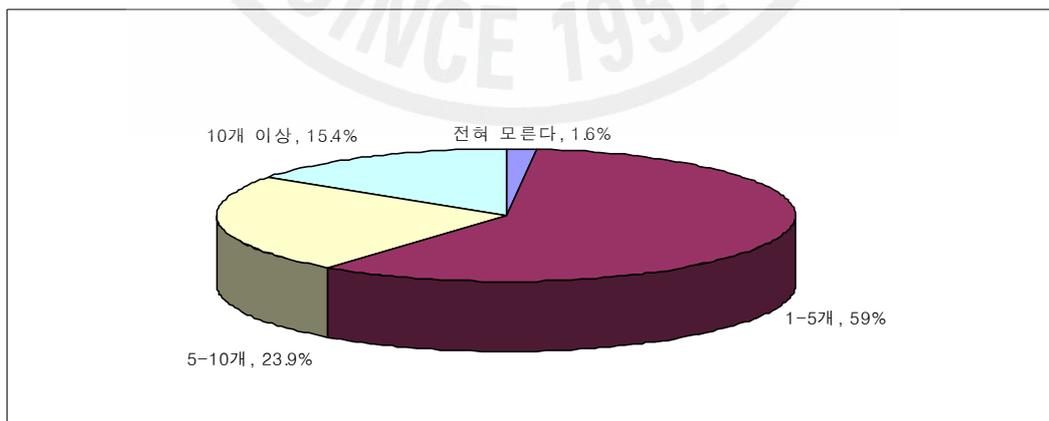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chi^2=10.993$  p-value=.027\*p<.05)과 연령별( $\chi^2=35.543$ p-value=.003\*p<.05), 경력별( $\chi^2=57.848$  p-value=.000\*p<.05), 교직단체가입별( $\chi^2=44.811$  p-value=.000\*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응답이 각각 41.7%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30세 이하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항쟁”이라는 응답이 42.9%, 경력별 25년 이상에서는 “공산주의에 의한 폭동”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직단체 가입별로 살펴보면 교총, 무응답에서는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응답이 각각 55.4%,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교조와 기타에서는 “불의에 항거한 항쟁”이라는 응답이 각각 46.4%,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총에서는 “공산주의에 의한 폭동”이라는 응답이 2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3) 제주4·3 유물·유적지 인지도

“선생님께서서는 제주4·3의 진실성을 알려주는 도내 제주4·3 관련 유물이나 유적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같이 1-5개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10개가 23.9%, 10개이상 15.4%, 전혀 모른다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제주4·3 유물·유적지 인지도



제주4·3 유물이나 유적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표 7> 제주4·3 유물·유적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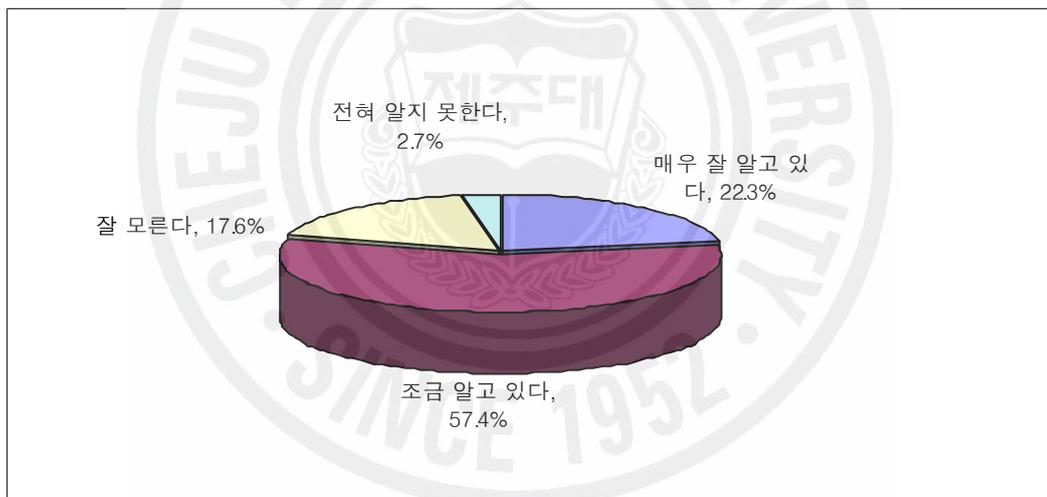
구분			제주4·3 관련 유물이나 유적지를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전혀 모른다	1-5개	5-10개	10개 이상
성별 $\chi^2=6.831$ p-value= .077	남자	빈도	2	51	22	21
		비율	2.1%	53.1%	22.9%	21.9%
	여자	빈도	1	60	23	8
		비율	1.1%	65.2%	25.0%	8.7%
연령별 $\chi^2=12.531$ p-value= .404	30세이하	빈도	0	4	3	0
		비율	.0%	57.1%	42.9%	.0%
	31-40	빈도	1	28	11	1
		비율	2.4%	68.3%	26.8%	2.4%
	41-50	빈도	2	64	27	23
		비율	1.7%	55.2%	23.3%	19.8%
	51-60	빈도	0	14	3	5
		비율	.0%	63.6%	13.6%	22.7%
	60세이상	빈도	0	1	1	0
		비율	.0%	50.0%	50.0%	.0%
경력별 $\chi^2=13.781$ p-value= .315	10년 이하	빈도	0	19	9	2
		비율	.0%	63.3%	30.0%	6.7%
	11-15년	빈도	1	20	11	2
		비율	2.9%	58.8%	32.4%	5.9%
	16-20년	빈도	2	49	13	14
		비율	2.6%	62.8%	16.7%	17.9%
	20-25년	빈도	0	11	8	5
		비율	.0%	45.8%	33.3%	20.8%
	25년 이상	빈도	0	12	4	6
		비율	.0%	54.5%	18.2%	27.3%
전공별 $\chi^2=20.735$ p-value= .054	역사	빈도	0	12	10	7
		비율	.0%	41.4%	34.5%	24.1%
	일반사회	빈도	1	34	14	17
		비율	1.5%	51.5%	21.2%	25.8%
	지리	빈도	0	12	4	1
		비율	.0%	70.6%	23.5%	5.9%
	윤리(도덕)	빈도	1	29	9	0
		비율	2.6%	74.4%	23.1%	.0%
	기타	빈도	1	24	8	4
		비율	2.7%	64.9%	21.6%	10.8%
교직단체가 입별 $\chi^2=12.767$ p-value= .173	교총	빈도	1	33	10	12
		비율	1.8%	58.9%	17.9%	21.4%
	전교조	빈도	0	34	22	13
		비율	.0%	49.3%	31.9%	18.8%
	기타	빈도	1	23	6	2
		비율	3.1%	71.9%	18.8%	6.3%
	무응답	빈도	1	21	7	2
		비율	3.2%	67.7%	22.6%	6.5%
전체		빈도	3	111	45	29
		비율	1.6%	59.0%	23.9%	15.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별다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1-5개”라는 응답이 각각 53.1%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도내 제주4·3 관련 유물이나 유적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실시 인지도

“선생님께서서는 제주도교육청의 협조로 유족회를 통해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 [그림 4]에서와 같이 “조금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은 22.3%, “잘 모른다” 17.6%, “전혀 알지 못한다”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실시 인지도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8>와 같다.

<표 8>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실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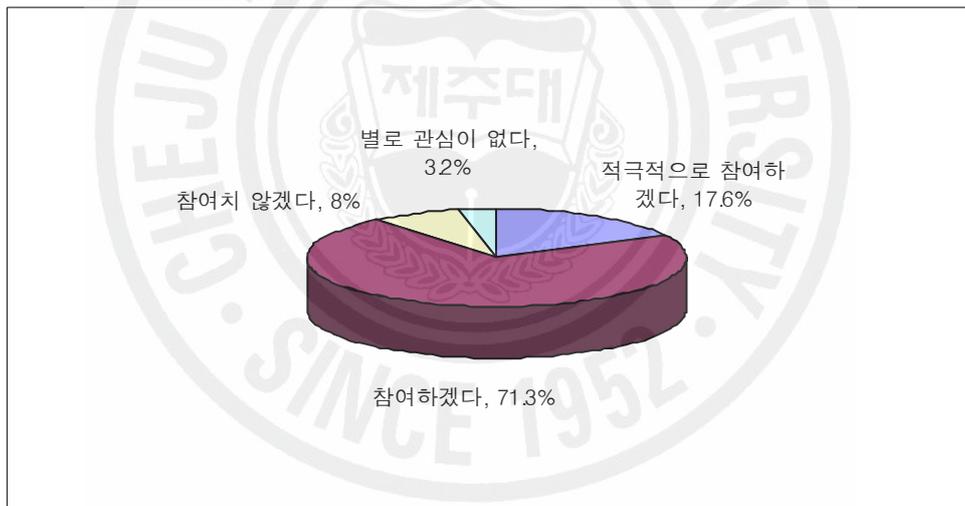
구분		제주4·3 유적지 역사 순례 기행 실시 인지 여부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	
성별 $\chi^2=1.151$ p-value=.765	남자	빈도	24	52	17	3
		비율	25.0%	54.2%	17.7%	3.1%
	여자	빈도	18	56	16	2
		비율	19.6%	60.9%	17.4%	2.2%
연령별 $\chi^2=8.916$ p-value=.710	30세이하	빈도	0	5	1	1
		비율	.0%	71.4%	14.3%	14.3%
	31-40	빈도	8	24	8	1
		비율	19.5%	58.5%	19.5%	2.4%
	41-50	빈도	27	64	22	3
		비율	23.3%	55.2%	19.0%	2.6%
	51-60	빈도	6	14	2	0
		비율	27.3%	63.6%	9.1%	.0%
	60세이상	빈도	1	1	0	0
		비율	50.0%	50.0%	.0%	.0%
경력별 $\chi^2=8.621$ p-value=.735	10년 이하	빈도	5	15	8	2
		비율	16.7%	50.0%	26.7%	6.7%
	11-15년	빈도	7	21	5	1
		비율	20.6%	61.8%	14.7%	2.9%
	16-20년	빈도	17	46	13	2
		비율	21.8%	59.0%	16.7%	2.6%
	20-25년	빈도	5	14	5	0
		비율	20.8%	58.3%	20.8%	.0%
	25년 이상	빈도	8	12	2	0
		비율	36.4%	54.5%	9.1%	.0%
전공별 $\chi^2=14.237$ p-value=.286	역사	빈도	10	15	3	1
		비율	34.5%	51.7%	10.3%	3.4%
	일반사회	빈도	16	35	14	1
		비율	24.2%	53.0%	21.2%	1.5%
	지리	빈도	2	13	2	0
		비율	11.8%	76.5%	11.8%	.0%
	윤리(도덕)	빈도	3	27	8	1
		비율	7.7%	69.2%	20.5%	2.6%
	기타	빈도	11	18	6	2
		비율	29.7%	48.6%	16.2%	5.4%
교직단체가입별 $\chi^2=9.797$ p-value=.367	교총	빈도	19	27	8	2
		비율	33.9%	48.2%	14.3%	3.6%
	전교조	빈도	11	44	12	2
		비율	15.9%	63.8%	17.4%	2.9%
	기타	빈도	5	21	5	1
		비율	15.6%	65.6%	15.6%	3.1%
	무응답	빈도	7	16	8	0
		비율	22.6%	51.6%	25.8%	.0%
전체		빈도	42	108	33	5
		비율	22.3%	57.4%	17.6%	2.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별다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조금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54.2%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4·3 유적지 역사 순례 기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모든 변인별에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5)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행사 참석 여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 유적지 역사 순례 기행 행사가 있을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 그림 5) 에서와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응답은 17.6%, “참여치 않겠다” 8.0%, “별로 관심이 없다”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행사 참석 여부



제주4·3 유적지 역사 순례 기행 행사가 있을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9>과 같다.

<표 9>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행사 참석 여부

구분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행사 있을 시 의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참여하겠다	참여치 않겠다	별로 관심이 없다
성별 $\chi^2=1.212$ p-value= .750	남자	빈도	16	67	9	4
		비율	16.7%	69.8%	9.4%	4.2%
	여자	빈도	17	67	6	2
		비율	18.5%	72.8%	6.5%	2.2%
연령별 $\chi^2=28.721$ p-value= .004*	30세이하	빈도	0	7	0	0
		비율	.0%	100.0%	.0%	.0%
	31-40	빈도	10	28	1	2
		비율	24.4%	68.3%	2.4%	4.9%
	41-50	빈도	18	86	9	3
		비율	15.5%	74.1%	7.8%	2.6%
	51-60	빈도	5	12	5	0
		비율	22.7%	54.5%	22.7%	.0%
	60세이상	빈도	0	1	0	1
		비율	.0%	50.0%	.0%	50.0%
경력별 $\chi^2=19.035$ p-value= .080	10년 이하	빈도	7	22	0	1
		비율	23.3%	73.3%	.0%	3.3%
	11-15년	빈도	6	26	1	1
		비율	17.6%	76.5%	2.9%	2.9%
	16-20년	빈도	14	57	4	3
		비율	17.9%	73.1%	5.1%	3.8%
	20-25년	빈도	2	17	5	0
		비율	8.3%	70.8%	20.8%	.0%
	25년 이상	빈도	4	12	5	1
		비율	18.2%	54.5%	22.7%	4.5%
전공별 $\chi^2=8.601$ p-value= .737	역사	빈도	6	21	1	1
		비율	20.7%	72.4%	3.4%	3.4%
	일반사회	빈도	14	46	4	2
		비율	21.2%	69.7%	6.1%	3.0%
	지리	빈도	1	13	2	1
		비율	5.9%	76.5%	11.8%	5.9%
	윤리(도덕)	빈도	4	31	4	0
		비율	10.3%	79.5%	10.3%	.0%
	기타	빈도	8	23	4	2
		비율	21.6%	62.2%	10.8%	5.4%
교직단체가 입별 $\chi^2=6.691$ p-value= .669	교총	빈도	12	38	5	1
		비율	21.4%	67.9%	8.9%	1.8%
	전교조	빈도	15	48	4	2
		비율	21.7%	69.6%	5.8%	2.9%
	기타	빈도	3	25	2	2
		비율	9.4%	78.1%	6.3%	6.3%
	무응답	빈도	3	23	4	1
		비율	9.7%	74.2%	12.9%	3.2%
전체		빈도	33	134	15	6
		비율	17.6%	71.3%	8.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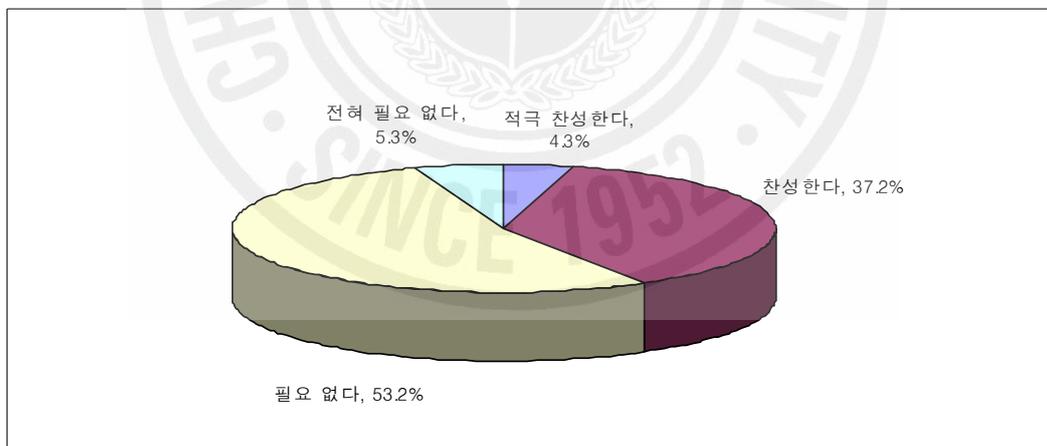
p<.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 $\chi^2=28.721$  p-value=.004\*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변인별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참여하겠다”라는 응답이 30세 이하 100.0%, 31-40세 68.3%, 41-50세 74.1%, 51-60세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1-40세와 51-60세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응답이 각각 24.4%, 2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51-60세에서는 “참여치 않겠다”는 응답이 2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6)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여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림 6]에서와 같이 “필요 없다”라는 의견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37.2%, “전혀 필요없다” 5.3%, “적극 찬성한다”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여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10>과 같다.

<표 10>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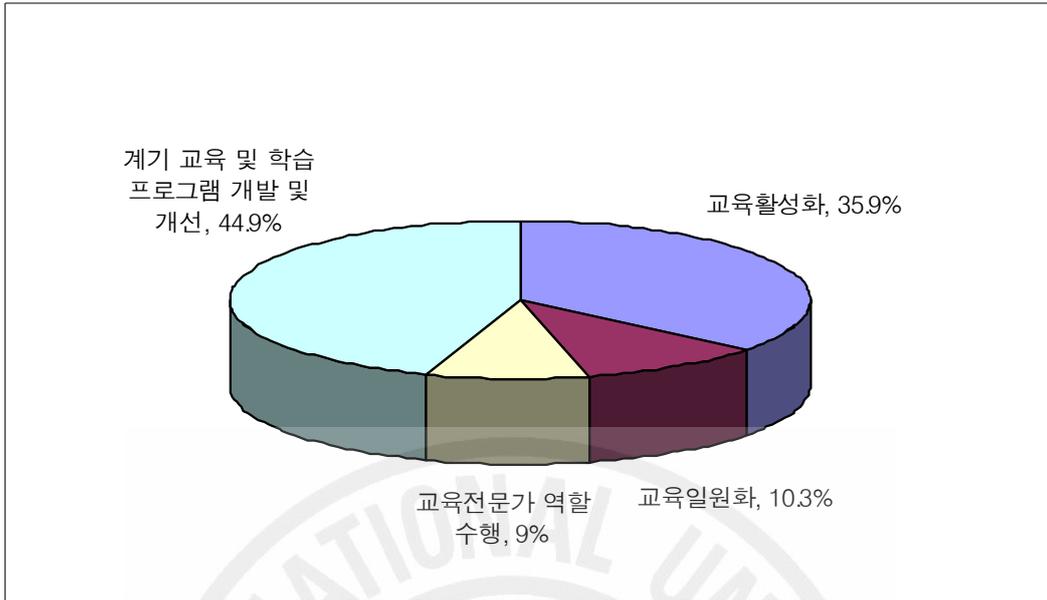
구분			제주4·3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대한 의견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성별 $\chi^2=5.374$ p-value=.146	남자	빈도	6	41	45	4
		비율	6.3%	42.7%	46.9%	4.2%
	여자	빈도	2	29	55	6
		비율	2.2%	31.5%	59.8%	6.5%
연령별 $\chi^2=10.431$ p-value=.578	30세이하	빈도	0	2	4	1
		비율	.0%	28.6%	57.1%	14.3%
	31-40	빈도	1	23	16	1
		비율	2.4%	56.1%	39.0%	2.4%
	41-50	빈도	6	38	65	7
		비율	5.2%	32.8%	56.0%	6.0%
	51-60	빈도	1	6	14	1
		비율	4.5%	27.3%	63.6%	4.5%
	60세이상	빈도	0	1	1	0
		비율	.0%	50.0%	50.0%	.0%
경력별 $\chi^2=16.151$ p-value=.184	10년 이하	빈도	1	15	12	2
		비율	3.3%	50.0%	40.0%	6.7%
	11-15년	빈도	0	19	14	1
		비율	.0%	55.9%	41.2%	2.9%
	16-20년	빈도	6	24	43	5
		비율	7.7%	30.8%	55.1%	6.4%
	20-25년	빈도	0	6	17	1
		비율	.0%	25.0%	70.8%	4.2%
	25년 이상	빈도	1	6	14	1
		비율	4.5%	27.3%	63.6%	4.5%
전공별 $\chi^2=8.684$ p-value=.730	역사	빈도	2	10	16	1
		비율	6.9%	34.5%	55.2%	3.4%
	일반사회	빈도	4	23	35	4
		비율	6.1%	34.8%	53.0%	6.1%
	지리	빈도	0	3	13	1
		비율	.0%	17.6%	76.5%	5.9%
	윤리(도덕)	빈도	1	17	18	3
		비율	2.6%	43.6%	46.2%	7.7%
	기타	빈도	1	17	18	1
		비율	2.7%	45.9%	48.6%	2.7%
교직단체가 입별 $\chi^2=15.236$ p-value=.085	교총	빈도	3	19	30	4
		비율	5.4%	33.9%	53.6%	7.1%
	전교조	빈도	2	34	30	3
		비율	2.9%	49.3%	43.5%	4.3%
	기타	빈도	0	9	23	0
		비율	.0%	28.1%	71.9%	.0%
	무응답	빈도	3	8	17	3
		비율	9.7%	25.8%	54.8%	9.7%
전체		빈도	8	70	100	10
		비율	4.3%	37.2%	53.2%	5.3%

설문자의 일반적인 특성 5가지 분야에서 각각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전공별, 교직단체별 대부분의 ‘필요없다’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연령별 31-40세 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 윤리(도덕)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직단체별에서는 교총보다도 전교조쪽에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7)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찬성 이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계기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는 응답이 35.9%,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일원화 할 수 있다.” 10.3%,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찬성 이유



제주4·3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찬성하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찬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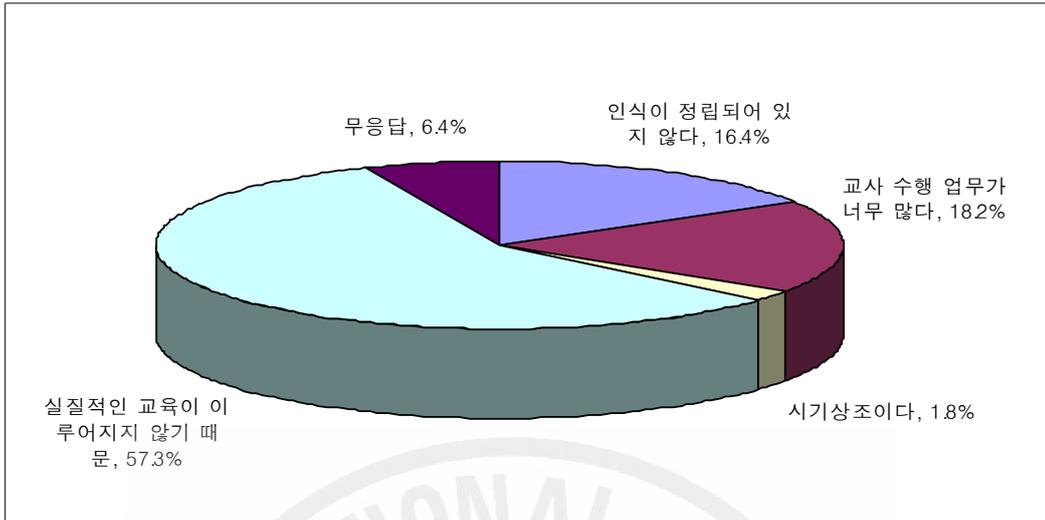
구분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찬성하시는 이유			
			교육활성화	교육일원화	교육 전문가 역할 수행	계기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성별 $\chi^2=.257$ p-value=.968	남자	빈도	16	5	4	22
		비율	34.0%	10.6%	8.5%	46.8%
	여자	빈도	12	3	3	13
		비율	38.7%	9.7%	9.7%	41.9%
연령별 $\chi^2=17.615$ p-value=.128	30세 이하	빈도	0	0	0	2
		비율	.0%	.0%	.0%	100.0%
	31-40	빈도	9	2	6	7
		비율	37.5%	8.3%	25.0%	29.2%
	41-50	빈도	17	4	1	22
		비율	38.6%	9.1%	2.3%	50.0%
	51-60	빈도	2	2	0	3
		비율	28.6%	28.6%	.0%	42.9%
	60세 이상	빈도	0	0	0	1
		비율	.0%	.0%	.0%	100.0%
경력별 $\chi^2=13.621$ p-value=.326	10년 이하	빈도	5	2	1	8
		비율	31.3%	12.5%	6.3%	50.0%
	11-15년	빈도	7	0	4	8
		비율	36.8%	.0%	21.1%	42.1%
	16-20년	빈도	13	4	2	11
		비율	43.3%	13.3%	6.7%	36.7%
	20-25년	빈도	1	0	0	5
		비율	16.7%	.0%	.0%	83.3%
	25년 이상	빈도	2	2	0	3
		비율	28.6%	28.6%	.0%	42.9%
전공별 $\chi^2=13.972$ p-value=.302	역사	빈도	6	1	2	3
		비율	50.0%	8.3%	16.7%	25.0%
	일반사회	빈도	11	2	0	14
		비율	40.7%	7.4%	.0%	51.9%
	지리	빈도	0	0	1	2
		비율	.0%	.0%	33.3%	66.7%
	윤리(도덕)	빈도	8	2	1	7
		비율	44.4%	11.1%	5.6%	38.9%
	기타	빈도	3	3	3	9
		비율	16.7%	16.7%	16.7%	50.0%
교직단체가입별 $\chi^2=5.331$ p-value=.805	교총	빈도	9	3	2	8
		비율	40.9%	13.6%	9.1%	36.4%
	전교조	빈도	12	2	5	17
		비율	33.3%	5.6%	13.9%	47.2%
	기타	빈도	3	1	0	5
		비율	33.3%	11.1%	.0%	55.6%
	무응답	빈도	4	2	0	5
		비율	36.4%	18.2%	.0%	45.5%
전체		빈도	28	8	7	35
		비율	35.9%	10.3%	9.0%	44.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별, 전공별, 경력별, 교직단체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계기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46.8%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1-50세와 51-60세에서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계기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50.0%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역사와 윤리(도덕)에서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50.0%,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8)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반대 이유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림 8]을 보면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한 담당교사만 둔다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응답은 18.2%, “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직까지 제주4·3에 관련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16.4%,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한 교육은 시기상조이다.”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반대 이유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반대하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12>과 같다.

<표 12> 제주4·3 관련 업무 전담교사 설치 반대 이유

구분			반대하는 이유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교사 수행 업무가 너무 많다	시기상조이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무응답	
성별 $\chi^2=1.705$ p-value= .790	남자	빈도	10	9	1	27	2	
		비율	20.4%	18.4%	2.0%	55.1%	4.1%	
	여자	빈도	8	11	1	36	5	
		비율	13.1%	18.0%	1.6%	59.0%	8.2%	
연령별 $\chi^2=21.922$ p-value= .146	30세이하	빈도	1	0	0	3	1	
		비율	20.0%	.0%	.0%	60.0%	20.0%	
	31-40	빈도	4	3	0	9	1	
		비율	23.5%	17.6%	.0%	52.9%	5.9%	
	41-50	빈도	6	14	1	47	4	
		비율	8.3%	19.4%	1.4%	65.3%	5.6%	
	51-60	빈도	6	3	1	4	1	
		비율	40.0%	20.0%	6.7%	26.7%	6.7%	
	60세이상	빈도	1	0	0	0	0	
		비율	100.0%	.0%	.0%	.0%	.0%	
경력별 $\chi^2=20.028$ p-value= .219	10년 이하	빈도	3	0	0	10	1	
		비율	21.4%	.0%	.0%	71.4%	7.1%	
	11-15년	빈도	2	5	0	7	1	
		비율	13.3%	33.3%	.0%	46.7%	6.7%	
	16-20년	빈도	4	10	1	31	2	
		비율	8.3%	20.8%	2.1%	64.6%	4.2%	
	20-25년	빈도	3	2	0	11	2	
		비율	16.7%	11.1%	.0%	61.1%	11.1%	
	25년 이상	빈도	6	3	1	4	1	
		비율	40.0%	20.0%	6.7%	26.7%	6.7%	
전공별 $\chi^2=21.585$ p-value= .157	역사	빈도	3	0	0	10	4	
		비율	17.6%	.0%	.0%	58.8%	23.5%	
	일반사회	빈도	5	6	2	24	2	
		비율	12.8%	15.4%	5.1%	61.5%	5.1%	
	지리	빈도	3	2	0	8	1	
		비율	21.4%	14.3%	.0%	57.1%	7.1%	
	윤리(도덕)	빈도	4	6	0	11	0	
		비율	19.0%	28.6%	.0%	52.4%	.0%	
	기타	빈도	3	6	0	10	0	
		비율	15.8%	31.6%	.0%	52.6%	.0%	
교직원 가입별 $\chi^2=16.777$ p-value= .158	교총	빈도	6	7	2	18	1	
		비율	17.6%	20.6%	5.9%	52.9%	2.9%	
	전교조	빈도	3	7	0	21	2	
		비율	9.1%	21.2%	.0%	63.6%	6.1%	
	기타	빈도	2	4	0	16	1	
		비율	8.7%	17.4%	.0%	69.6%	4.3%	
	무응답	빈도	7	2	0	8	3	
		비율	35.0%	10.0%	.0%	40.0%	15.0%	
전체			빈도	18	20	2	63	7
			비율	16.4%	18.2%	1.8%	57.3%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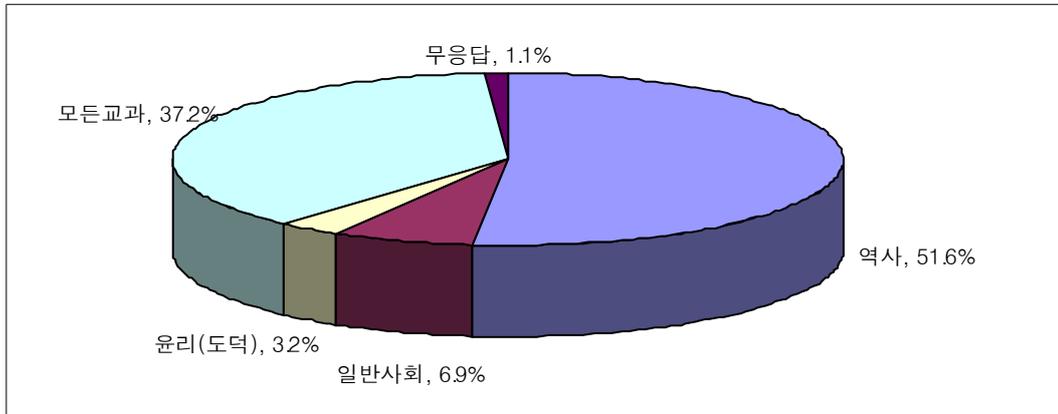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별, 전공별, 경력별, 교직단체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한 담당교사만 둔다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이라는 응답이 각각 55.1%와 5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에서는 41-50세로 65.3%, 경력 10년이하는 71.4%가 위와같은 대답을 하였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모든 전공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한 담당교사만 둔다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이라는 응답이 역사 58.8%, 일반사회 61.5%, 지리 57.1%, 윤리(도덕) 52.4%, 기타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직단체 가입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체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한 담당교사만 둔다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교총에서 52.9%, 전교조 63.6%로 나타났다.

## 2. 지역화 학습과 제주4·3 교육

### 1)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선생님께서서는 제주4·3에 대한 학습은 어느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림 9]를 보면 “역사”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든 교과”라는 응답은 37.2%, “일반사회” 6.9%, “윤리(도덕)”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선생님께서서는 제주4·3에 대한 학습은 어느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구분			어느 교과 수업					
			역사	일반사회	윤리(도덕)	모든교과	무응답	
성별 $\chi^2=4.420$ p-value=.352	남자	빈도	52	3	3	37	1	
		비율	54.2%	3.1%	3.1%	38.5%	1.0%	
	여자	빈도	45	10	3	33	1	
		비율	48.9%	10.9%	3.3%	35.9%	1.1%	
연령별 $\chi^2=26.668$ p-value=.045*	30세이하	빈도	3	0	0	4	0	
		비율	42.9%	.0%	.0%	57.1%	.0%	
	31-40	빈도	26	2	0	12	1	
		비율	63.4%	4.9%	.0%	29.3%	2.4%	
	41-50	빈도	53	11	4	47	1	
		비율	45.7%	9.5%	3.4%	40.5%	.9%	
	51-60	빈도	15	0	1	6	0	
		비율	68.2%	.0%	4.5%	27.3%	.0%	
	60세이상	빈도	0	0	1	1	0	
		비율	.0%	.0%	50.0%	50.0%	.0%	
	경력별 $\chi^2=14.664$ p-value=.549	10년 이하	빈도	14	1	0	15	0
			비율	46.7%	3.3%	.0%	50.0%	.0%
11-15년		빈도	17	3	0	14	0	
		비율	50.0%	8.8%	.0%	41.2%	.0%	
16-20년		빈도	38	7	3	29	1	
		비율	48.7%	9.0%	3.8%	37.2%	1.3%	
20-25년		빈도	14	2	2	5	1	
		비율	58.3%	8.3%	8.3%	20.8%	4.2%	
25년 이상		빈도	14	0	1	7	0	
		비율	63.6%	.0%	4.5%	31.8%	.0%	
전공별 $\chi^2=14.489$ p-value=.562	역사	빈도	13	2	0	14	0	
		비율	44.8%	6.9%	.0%	48.3%	.0%	
	일반사회	빈도	33	5	2	26	0	
		비율	50.0%	7.6%	3.0%	39.4%	.0%	
	지리	빈도	8	0	0	8	1	
		비율	47.1%	.0%	.0%	47.1%	5.9%	
	윤리(도덕)	빈도	24	3	2	9	1	
		비율	61.5%	7.7%	5.1%	23.1%	2.6%	
	기타	빈도	19	3	2	13	0	
		비율	51.4%	8.1%	5.4%	35.1%	.0%	
	교직단체 가입별 $\chi^2=11.039$ p-value=.526	교총	빈도	32	1	3	19	1
			비율	57.1%	1.8%	5.4%	33.9%	1.8%
전교조		빈도	35	8	2	24	0	
		비율	50.7%	11.6%	2.9%	34.8%	.0%	
기타		빈도	13	2	1	15	1	
		비율	40.6%	6.3%	3.1%	46.9%	3.1%	
무응답		빈도	17	2	0	12	0	
		비율	54.8%	6.5%	.0%	38.7%	.0%	
전체		빈도	97	13	6	70	2	
		비율	51.6%	6.9%	3.2%	37.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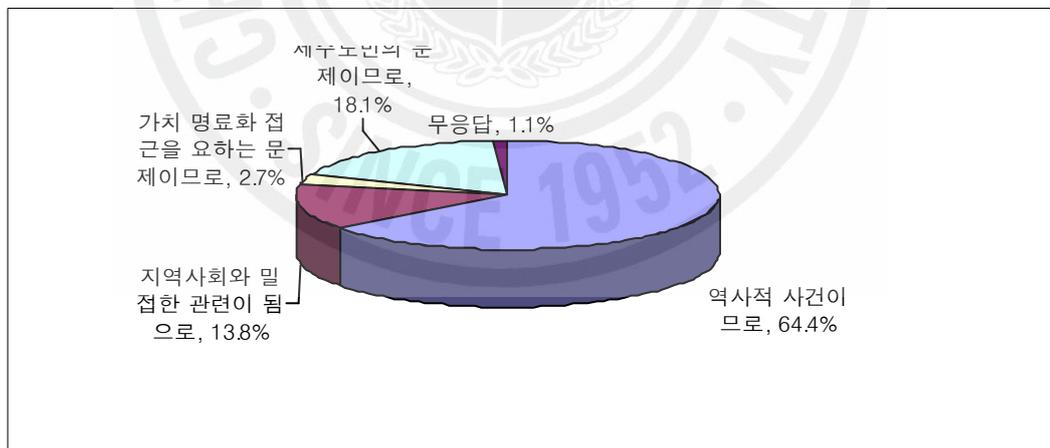
p<.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 $\chi^2=26.668$  p-value=.045\*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주4·3에 대한 학습은 역사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경력이 높을수록 역사 과목을 제주 4·3 교육의 적합한 과목으로 선택하였다.

## 2)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선택 기준

“선생님께서서는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교육 현장에서 학습하는데 적합하다고 선택하신 교과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질문에 대한 [그림 10]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4·3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므로”이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4·3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문제이므로”라는 응답은 18.1%, “제주4·3은 제주의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됨으로” 13.8%, “제주4·3은 가치 명료화 접근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선택 기준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교육 현장에서 학습하는데 적합하다고 선택한 교과목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제주4·3 교육 관련 적합한 교과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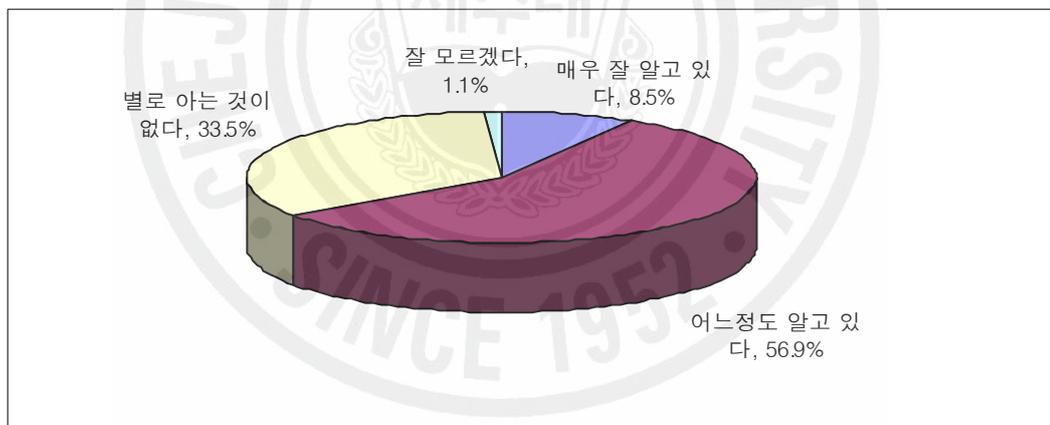
구분			교과목 선택 기준				
			역사적 사건이므로	지역사회 와 밀접한 관련이 됨으로	가치 명료화 접근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제주도민의 문제이므로	무응답
성별 $\chi^2=3.056$ p-value= .549	남자	빈도	63	11	2	18	2
		비율	65.6%	11.5%	2.1%	18.8%	2.1%
	여자	빈도	58	15	3	16	0
		비율	63.0%	16.3%	3.3%	17.4%	.0%
연령별 $\chi^2=8.831$ p-value= .920	30세이하	빈도	3	1	0	3	0
		비율	42.9%	14.3%	.0%	42.9%	.0%
	31-40	빈도	29	4	1	7	0
		비율	70.7%	9.8%	2.4%	17.1%	.0%
	41-50	빈도	73	18	3	21	1
		비율	62.9%	15.5%	2.6%	18.1%	.9%
	51-60	빈도	14	3	1	3	1
		비율	63.6%	13.6%	4.5%	13.6%	4.5%
60세이상	빈도	2	0	0	0	0	
	비율	100.0%	.0%	.0%	.0%	.0%	
경력별 $\chi^2=14.798$ p-value= .539	10년 이하	빈도	16	3	1	10	0
		비율	53.3%	10.0%	3.3%	33.3%	.0%
	11-15년	빈도	23	6	1	4	0
		비율	67.6%	17.6%	2.9%	11.8%	.0%
	16-20년	빈도	51	11	2	14	0
		비율	65.4%	14.1%	2.6%	17.9%	.0%
	20-25년	빈도	16	4	1	2	1
		비율	66.7%	16.7%	4.2%	8.3%	4.2%
25년 이상	빈도	15	2	0	4	1	
	비율	68.2%	9.1%	.0%	18.2%	4.5%	
전공별 $\chi^2=18.365$ p-value= .303	역사	빈도	16	3	1	9	0
		비율	55.2%	10.3%	3.4%	31.0%	.0%
	일반사회	빈도	46	7	2	10	1
		비율	69.7%	10.6%	3.0%	15.2%	1.5%
	지리	빈도	9	3	0	4	1
		비율	52.9%	17.6%	.0%	23.5%	5.9%
	윤리(도덕)	빈도	30	4	0	5	0
		비율	76.9%	10.3%	.0%	12.8%	.0%
기타	빈도	20	9	2	6	0	
	비율	54.1%	24.3%	5.4%	16.2%	.0%	
교직단체 가입별 $\chi^2=13.017$ p-value= .368	교총	빈도	38	3	1	13	1
		비율	67.9%	5.4%	1.8%	23.2%	1.8%
	전교조	빈도	47	12	2	8	0
		비율	68.1%	17.4%	2.9%	11.6%	.0%
	기타	빈도	18	6	0	7	1
		비율	56.3%	18.8%	.0%	21.9%	3.1%
	무응답	빈도	18	5	2	6	0
		비율	58.1%	16.1%	6.5%	19.4%	.0%
전체		빈도	121	26	5	34	2
		비율	64.4%	13.8%	2.7%	18.1%	1.1%

위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제주4·3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므로”라는 응답이 각각 65.6%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경력별, 전공별, 교직단체별에서도 “제주4·3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지역화 학습 개념 인식도

“선생님께서서는 지역화 학습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림 11]을 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로 아는 것이 없다”라는 응답이 33.5%, “매우 잘 알고 있다” 8.5%, “잘 모르겠다”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지역화 학습 개념 인식도



지역화 학습에 대해 개념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지역화 학습 개념 인식도

구분		지역화 학습에 대한 개념 인식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잘 모르겠다	
성별 $\chi^2=6.399$ p-value=.094	남자	빈도	12	55	29	0
		비율	12.5%	57.3%	30.2%	.0%
	여자	빈도	4	52	34	2
		비율	4.3%	56.5%	37.0%	2.2%
연령별 $\chi^2=3.478$ p-value=.991	30세이하	빈도	0	4	3	0
		비율	.0%	57.1%	42.9%	.0%
	31-40	빈도	4	25	12	0
		비율	9.8%	61.0%	29.3%	.0%
	41-50	빈도	10	63	41	2
		비율	8.6%	54.3%	35.3%	1.7%
	51-60	빈도	2	14	6	0
		비율	9.1%	63.6%	27.3%	.0%
	60세이상	빈도	0	1	1	0
		비율	.0%	50.0%	50.0%	.0%
경력별 $\chi^2=13.644$ p-value=.324	10년 이하	빈도	2	19	9	0
		비율	6.7%	63.3%	30.0%	.0%
	11-15년	빈도	1	24	9	0
		비율	2.9%	70.6%	26.5%	.0%
	16-20년	빈도	8	34	34	2
		비율	10.3%	43.6%	43.6%	2.6%
	20-25년	빈도	3	16	5	0
		비율	12.5%	66.7%	20.8%	.0%
	25년 이상	빈도	2	14	6	0
		비율	9.1%	63.6%	27.3%	.0%
전공별 $\chi^2=39.332$ p-value=.000*	역사	빈도	6	18	5	0
		비율	20.7%	62.1%	17.2%	.0%
	일반사회	빈도	9	42	15	0
		비율	13.6%	63.6%	22.7%	.0%
	지리	빈도	1	13	3	0
		비율	5.9%	76.5%	17.6%	.0%
	윤리(도덕)	빈도	0	17	20	2
		비율	.0%	43.6%	51.3%	5.1%
	기타	빈도	0	17	20	0
		비율	.0%	45.9%	54.1%	.0%
교직단체가입별 $\chi^2=16.592$ p-value=.055	교총	빈도	7	33	16	0
		비율	12.5%	58.9%	28.6%	.0%
	전교조	빈도	4	38	27	0
		비율	5.8%	55.1%	39.1%	.0%
	기타	빈도	2	16	14	0
		비율	6.3%	50.0%	43.8%	.0%
	무응답	빈도	3	20	6	2
		비율	9.7%	64.5%	19.4%	6.5%
전체		빈도	16	107	63	2
		비율	8.5%	56.9%	33.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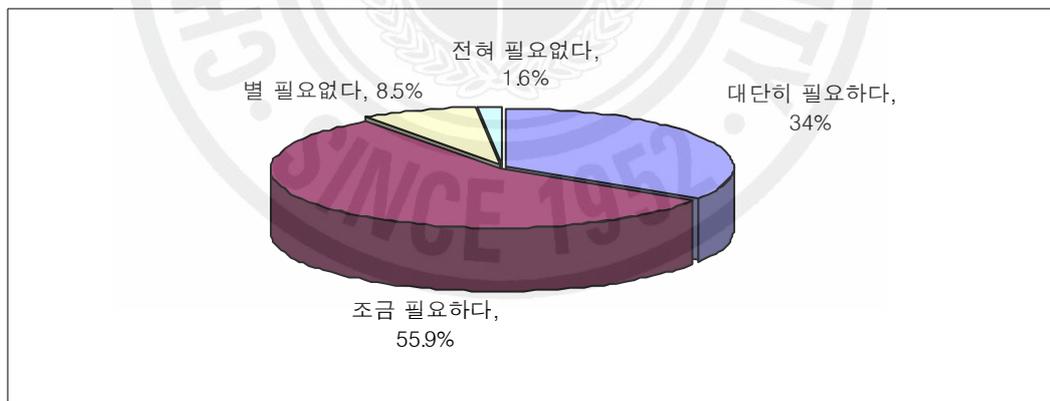
p<.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별( $\chi^2=39.332$  p-value=.000\*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성별, 연령별, 경력별, 교직단체별에서는 각각의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57.3%와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 경력별에서는 연령과 경력이 많을수록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많은 반면, 연령과 경력이 적을수록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지역화 단원 제주4·3 학습지도 견해

“선생님께서 지역화 단원의 학습 지도에 있어서 제주4·3에 관한 향토사 자료 활용과 지역화 학습 지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의 결과 분석을 보면 [그림 12]에서 “조금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단히 필요하다” 34.0%, “별 필요없다” 8.5%, “전혀 필요없다”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지역화 단원 제주4·3 학습지도 견해



지역화 단원의 학습 지도에 있어서 제주4·3에 관한 향토사 자료 활용과 지역화 학습 지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지역화 단위 제주4·3 학습지도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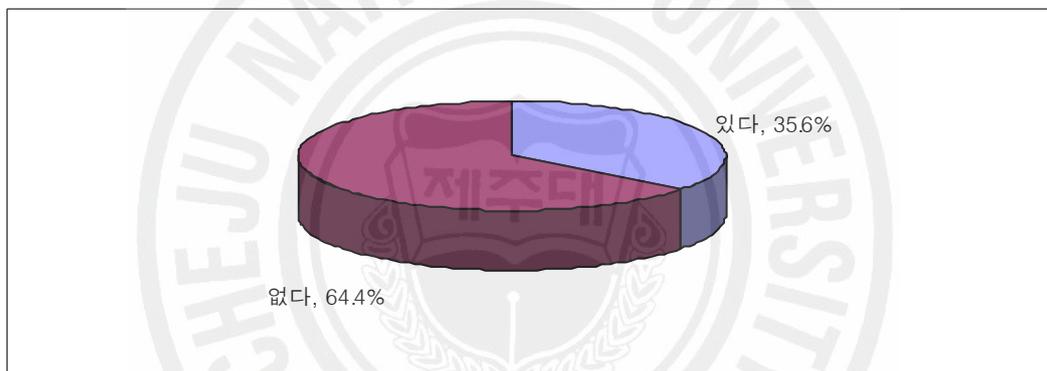
구분			향토사 자료 활용과 지역화 학습지도			
			대단히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별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성별 $\chi^2=1.737$ p-value=.629	남자	빈도	30	55	10	1
		비율	31.3%	57.3%	10.4%	1.0%
	여자	빈도	34	50	6	2
		비율	37.0%	54.3%	6.5%	2.2%
연령별 $\chi^2=20.610$ p-value=.056	30세이하	빈도	1	6	0	0
		비율	14.3%	85.7%	.0%	.0%
	31-40	빈도	18	22	1	0
		비율	43.9%	53.7%	2.4%	.0%
	41-50	빈도	42	62	9	3
		비율	36.2%	53.4%	7.8%	2.6%
	51-60	빈도	3	14	5	0
		비율	13.6%	63.6%	22.7%	.0%
	60세이상	빈도	0	1	1	0
		비율	.0%	50.0%	50.0%	.0%
경력별 $\chi^2=18.904$ p-value=.091	10년 이하	빈도	15	15	0	0
		비율	50.0%	50.0%	.0%	.0%
	11-15년	빈도	9	22	3	0
		비율	26.5%	64.7%	8.8%	.0%
	16-20년	빈도	28	42	5	3
		비율	35.9%	53.8%	6.4%	3.8%
	20-25년	빈도	9	11	4	0
		비율	37.5%	45.8%	16.7%	.0%
	25년 이상	빈도	3	15	4	0
		비율	13.6%	68.2%	18.2%	.0%
전공별 $\chi^2=18.172$ p-value=.111	역사	빈도	14	14	1	0
		비율	48.3%	48.3%	3.4%	.0%
	일반사회	빈도	23	36	7	0
		비율	34.8%	54.5%	10.6%	.0%
	지리	빈도	3	12	2	0
		비율	17.6%	70.6%	11.8%	.0%
	윤리(도덕)	빈도	17	16	4	2
		비율	43.6%	41.0%	10.3%	5.1%
	기타	빈도	7	27	2	1
		비율	18.9%	73.0%	5.4%	2.7%
교직단체가입별 $\chi^2=15.671$ p-value=.074	교총	빈도	15	33	7	1
		비율	26.8%	58.9%	12.5%	1.8%
	전교조	빈도	28	38	3	0
		비율	40.6%	55.1%	4.3%	.0%
	기타	빈도	7	22	3	0
		비율	21.9%	68.8%	9.4%	.0%
	무응답	빈도	14	12	3	2
		비율	45.2%	38.7%	9.7%	6.5%
전체		빈도	64	105	16	3
		비율	34.0%	55.9%	8.5%	1.6%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전공별, 교직단체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지역화 단원의 학습 지도에 있어서 제주 4·3에 관한 향토사 자료 활용과 지역화 학습 지도에 대해 거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였다.

#### 5) 지역화 단원 제주4·3 교육 실시 여부

“선생님께서도 교과 학습 시 지역화 단원과 관련하여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 [그림 13]을 보면 “없다”라는 응답이 64.4%로 나타났고, “있다”라는 응답은 35.6%로 나타났다.

[그림 13] 지역화 단원 제주4·3 교육 실시 여부



교과 학습 시 지역화 단원과 관련하여 제주4·3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지역화 단위 제주4·3 교육 실시 여부

구분			관련 교육 실시 여부	
			있다	없다
성별 $\chi^2=.058$ p-value= .810	남자	빈도	35	61
		비율	36.5%	63.5%
	여자	빈도	32	60
		비율	34.8%	65.2%
연령별 $\chi^2=16.318$ p-value= .003*	30세이하	빈도	1	6
		비율	14.3%	85.7%
	31-40	빈도	13	28
		비율	31.7%	68.3%
	41-50	빈도	52	64
		비율	44.8%	55.2%
	51-60	빈도	1	21
		비율	4.5%	95.5%
	60세이상	빈도	0	2
		비율	.0%	100.0%
경력별 $\chi^2=5.766$ p-value= .217	10년 이하	빈도	10	20
		비율	33.3%	66.7%
	11-15년	빈도	13	21
		비율	38.2%	61.8%
	16-20년	빈도	31	47
		비율	39.7%	60.3%
	20-25년	빈도	10	14
		비율	41.7%	58.3%
	25년 이상	빈도	3	19
		비율	13.6%	86.4%
전공별 $\chi^2=30.088$ p-value= .000*	역사	빈도	19	10
		비율	65.5%	34.5%
	일반사회	빈도	31	35
		비율	47.0%	53.0%
	지리	빈도	2	15
		비율	11.8%	88.2%
	윤리(도덕)	빈도	11	28
		비율	28.2%	71.8%
	기타	빈도	4	33
		비율	10.8%	89.2%
교직단체 가입별 $\chi^2=.441$ p-value= .932	교총	빈도	19	37
		비율	33.9%	66.1%
	전교조	빈도	24	45
		비율	34.8%	65.2%
	기타	빈도	13	19
		비율	40.6%	59.4%
	무응답	빈도	11	20
		비율	35.5%	64.5%
전체		빈도	67	121
		비율	35.6	64.4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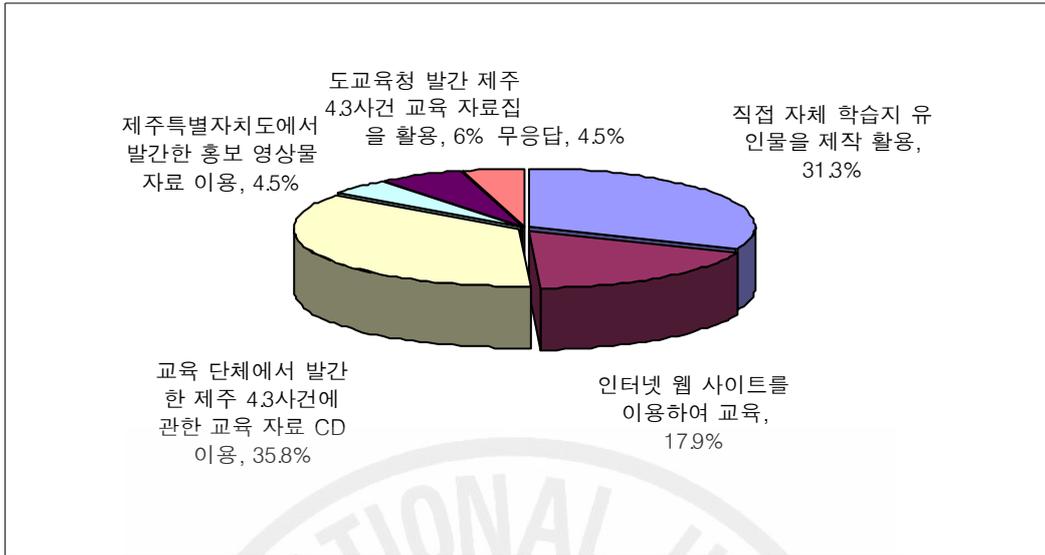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 $\chi^2=16.318$  p-value=.003\*p<.05), 전공별( $\chi^2$  30.088p-value=.000\*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성별, 경력별, 교직단체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에서 “없다”라는 응답이 각각 63.5%와 65.2%로 나타났고, 교직단체 가입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체에서 “없다”라는 응답이 교총 66.1%, 전교조 65.2%로 나타났다. 교과 학습 시 지역화 단원과 관련하여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대부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 3. 제주4·3 교육과 학습자료 이용

#### 1) 제주4·3 교육 시 학습자료 이용 방법

앞의 10번 문항의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제주4·3 교육시 학습자료 이용방법을 분석한 [그림 14]를 보면, “교육 단체에서 발간한 제주4·3에 관한 교육 자료 CD 이용”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접 학습지 유인물을 제작 활용” 31.3%, “인터넷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 17.9%, “제주도교육청 발간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활용” 6.0%, “제주도에 서 발간한 홍보 영상물 자료 이용”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4] 제주4·3 교육 시 학습자료 이용 방법



제주4·3 관련 교육 시 자료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제주4·3 교육 시 학습자료 이용 방법

구분			제주4·3 교육 시 학습자료 이용 방법					무응답
			직접 학습지 유인물을 제작 활용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	교육 단체에서 발간한 제주4·3에 관한 교육 자료 CD 이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홍보 영상물 자료 이용	도교육청 발간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활용	
성별 $\chi^2=8.812$ p-value=.117	남자	빈도	12	8	11	0	1	3
		비율	34.3%	22.9%	31.4%	.0%	2.9%	8.6%
	여자	빈도	9	4	13	3	3	0
		비율	28.1%	12.5%	40.6%	9.4%	9.4%	.0%
연령별 $\chi^2=10.469$ p-value=.789	30세이하	빈도	1	0	0	0	0	0
		비율	100.0%	.0%	.0%	.0%	.0%	.0%
	31-40	빈도	6	1	5	0	1	0
		비율	46.2%	7.7%	38.5%	.0%	7.7%	.0%
	41-50	빈도	14	10	19	3	3	3
		비율	26.9%	19.2%	36.5%	5.8%	5.8%	5.8%
	51-60	빈도	0	1	0	0	0	0
		비율	.0%	100.0%	.0%	.0%	.0%	.0%
	60세이상	빈도	0	0	0	0	0	0
		비율	.0%	.0%	.0%	.0%	.0%	.0%
경력별 $\chi^2=23.005$ p-value=.289	10년이하	빈도	3	1	6	0	0	0
		비율	30.0%	10.0%	60.0%	.0%	.0%	.0%
	11-15년	빈도	5	4	1	0	1	2
		비율	38.5%	30.8%	7.7%	.0%	7.7%	15.4%
	16-20년	빈도	9	6	11	2	2	1
		비율	29.0%	19.4%	35.5%	6.5%	6.5%	3.2%
	20-25년	빈도	3	0	6	1	0	0
		비율	30.0%	.0%	60.0%	10.0%	.0%	.0%
	25년이상	빈도	1	1	0	0	1	0
		비율	33.3%	33.3%	.0%	.0%	33.3%	.0%
전공별 $\chi^2=32.790$ p-value=.036*	역사	빈도	6	3	7	1	1	1
		비율	31.6%	15.8%	36.8%	5.3%	5.3%	5.3%
	일반사회	빈도	8	6	14	2	1	0
		비율	25.8%	19.4%	45.2%	6.5%	3.2%	.0%
	지리	빈도	2	0	0	0	0	0
		비율	100.0%	.0%	.0%	.0%	.0%	.0%
	윤리(도덕)	빈도	4	3	2	0	2	0
		비율	36.4%	27.3%	18.2%	.0%	18.2%	.0%
	기타	빈도	1	0	1	0	0	2
		비율	25.0%	.0%	25.0%	.0%	.0%	50.0%
교직단체 가입별 $\chi^2=20.026$ p-value=.171	교총	빈도	9	1	6	1	2	0
		비율	47.4%	5.3%	31.6%	5.3%	10.5%	.0%
	전교조	빈도	5	6	10	1	0	2
		비율	20.8%	25.0%	41.7%	4.2%	.0%	8.3%
	기타	빈도	4	4	1	1	2	1
		비율	30.8%	30.8%	7.7%	7.7%	15.4%	7.7%
	무응답	빈도	3	1	7	0	0	0
		비율	27.3%	9.1%	63.6%	.0%	.0%	.0%
전체		빈도	21	12	24	3	4	3
		비율	31.3%	17.9%	35.8%	4.5%	6.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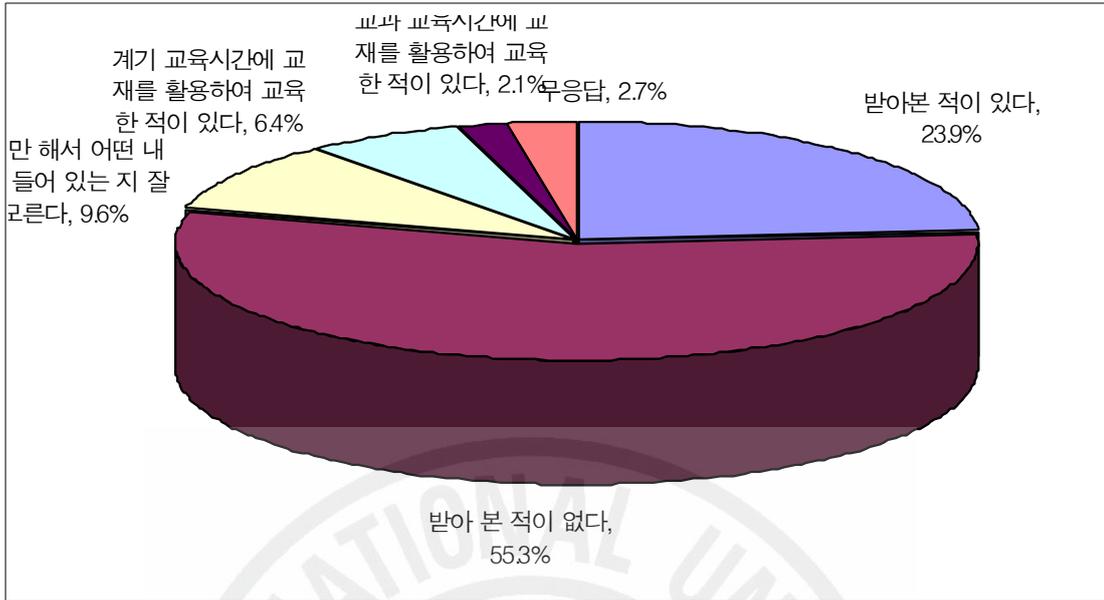
p<.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별( $\chi^2=32.790$  p-value=.036\*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연령별, 경력별, 교직단체별에서는 세부 항목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 역사와 일반사회 교사들은 “교육 단체에서 발간한 제주4·3에 관한 교육 자료 CD 이용”이라는 응답이 각각 36.8%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윤리(도덕)과목에서는 “직접 학습지 유인물을 제작 활용”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직단체 가입별로 살펴보면 교총에서는 “직접 학습지 유인물을 제작 활용”이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교조와 무응답에서는 “교육 단체에서 발간한 제주4·3에 관한 교육 자료 CD 이용”이 41.7%를 보였다.

## 2)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자료 이용 여부

“선생님께서도 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받아 보시거나 교재를 이용해 교육한 적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림 15]에서와 같이 “받아 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받아본 적이 있다” 23.9%, “받기만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잘 모른다” 9.6%, “계기 교육시간에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한 적이 있다” 6.4%, “교과 교육시간에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한 적이 있다”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여부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받아 보시거나 교재를 이용해 교육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여부

구분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4·3 교육 자료집을 받아 보시거나 교재를 이용해 교육한 경험					
			받아본 적이 있다	받아 본 적이 없다	받기만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잘 모른다	계기 교육시간에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한 적이 있다	교과 교육시간에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한 적이 있다	무응답
성별 $\chi^2=4.456$ p-value=.486	남자	빈도	25	47	11	7	2	4
		비율	26.0%	49.0%	11.5%	7.3%	2.1%	4.2%
	여자	빈도	20	57	7	5	2	1
		비율	21.7%	62.0%	7.6%	5.4%	2.2%	1.1%
연령별 $\chi^2=21.989$ p-value=.341	30세이하	빈도	0	7	0	0	0	0
		비율	.0%	100.0%	.0%	.0%	.0%	.0%
	31-40	빈도	8	22	5	1	2	3
		비율	19.5%	53.7%	12.2%	2.4%	4.9%	7.3%
	41-50	빈도	30	65	10	9	1	1
		비율	25.9%	56.0%	8.6%	7.8%	.9%	.9%
	51-60	빈도	6	10	2	2	1	1
		비율	27.3%	45.5%	9.1%	9.1%	4.5%	4.5%
	60세이상	빈도	1	0	1	0	0	0
		비율	50.0%	.0%	50.0%	.0%	.0%	.0%
경력별 $\chi^2=12.079$ p-value=.913	10년 이하	빈도	7	16	3	1	2	1
		비율	23.3%	53.3%	10.0%	3.3%	6.7%	3.3%
	11-15년	빈도	8	19	3	3	0	1
		비율	23.5%	55.9%	8.8%	8.8%	.0%	2.9%
	16-20년	빈도	19	48	6	3	1	1
		비율	24.4%	61.5%	7.7%	3.8%	1.3%	1.3%
	20-25년	빈도	5	12	3	2	1	1
		비율	20.8%	50.0%	12.5%	8.3%	4.2%	4.2%
	25년 이상	빈도	6	9	3	3	0	1
		비율	27.3%	40.9%	13.6%	13.6%	.0%	4.5%
전공별 $\chi^2=49.175$ p-value=.000*	역사	빈도	8	11	5	2	3	0
		비율	27.6%	37.9%	17.2%	6.9%	10.3%	.0%
	일반사회	빈도	26	29	4	6	0	1
		비율	39.4%	43.9%	6.1%	9.1%	.0%	1.5%
	지리	빈도	2	14	1	0	0	0
		비율	11.8%	82.4%	5.9%	.0%	.0%	.0%
	윤리(도덕)	빈도	4	26	5	3	1	0
		비율	10.3%	66.7%	12.8%	7.7%	2.6%	.0%
	기타	빈도	5	24	3	1	0	4
		비율	13.5%	64.9%	8.1%	2.7%	.0%	10.8%
교직단체 가입별 $\chi^2=15.969$ p-value=.384	교총	빈도	14	27	7	6	2	0
		비율	25.0%	48.2%	12.5%	10.7%	3.6%	.0%
	전교조	빈도	16	42	4	3	0	4
		비율	23.2%	60.9%	5.8%	4.3%	.0%	5.8%
	기타	빈도	7	19	4	1	0	1
		비율	21.9%	59.4%	12.5%	3.1%	.0%	3.1%
	무응답	빈도	8	16	3	2	2	0
		비율	25.8%	51.6%	9.7%	6.5%	6.5%	.0%
전체		빈도	45	104	18	12	4	5
		비율	23.9%	55.3%	9.6%	6.4%	2.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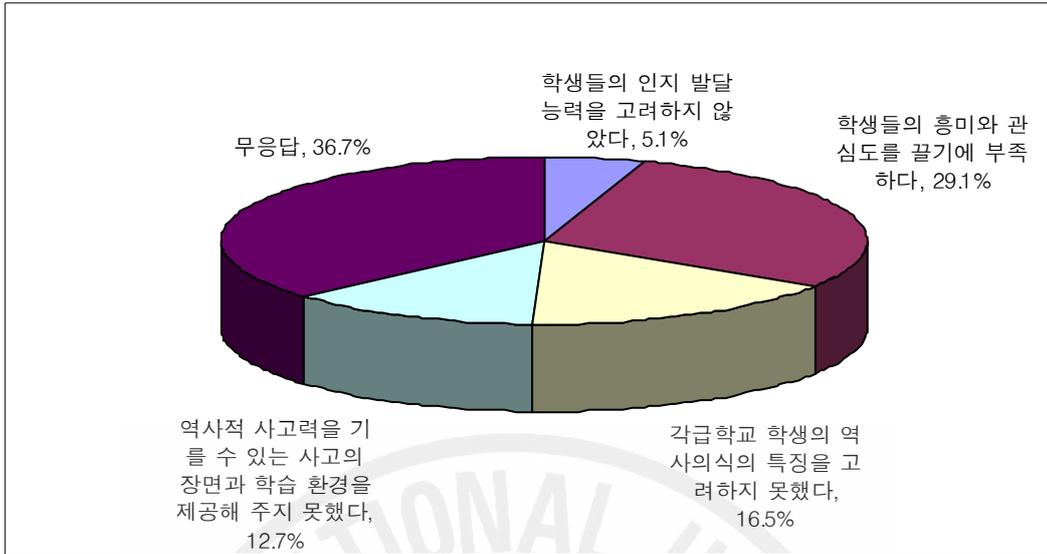
p<.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전공별( $\chi^2=49.175$  p-value=.00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연령별, 경력별, 교직단체별에서는 세부 항목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 30세 이하에서는 “받아 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100.0%를 보였다. 전공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역사 37.9%, 지리 82.4%로 차이를 보였다.

### 3)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시 문제점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적이 계시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학습자료 이용 시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이 응답은 11번 문제에서 2번 “받아 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과 무응답을 제외한 7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6]을 보면 자료 활용상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끌기에 부족하다” 29.1%로 나타났고, “각급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다” 16.5%,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사고의 장면과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12.7%, “학생들의 인지발달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시 문제점



학습자료 이용 시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 자료 이용 시 문제점

구분			학습자료 이용시 문제점				
			학생들의 인지 발달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끌기에 부족하다	각급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을 고려하지 못했다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사고의 장면과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무응답
성별 $\chi^2=.692$ p-value=.952	남자	빈도	2	12	7	6	18
		비율	4.4%	26.7%	15.6%	13.3%	40.0%
	여자	빈도	2	11	6	4	11
		비율	5.9%	32.4%	17.6%	11.8%	32.4%
연령별 $\chi^2=6.252$ p-value=.903	30세이하	빈도	0	0	0	0	0
		비율	.0%	.0%	.0%	.0%	.0%
	31-40	빈도	1	5	3	2	5
		비율	6.3%	31.3%	18.8%	12.5%	31.3%
	41-50	빈도	2	15	6	6	21
		비율	4.0%	30.0%	12.0%	12.0%	42.0%
	51-60	빈도	1	2	3	2	3
		비율	9.1%	18.2%	27.3%	18.2%	27.3%
	60세이상	빈도	0	1	1	0	0
		비율	.0%	50.0%	50.0%	.0%	.0%
경력별 $\chi^2=13.272$ p-value=.653	10년 이하	빈도	0	5	2	1	5
		비율	.0%	38.5%	15.4%	7.7%	38.5%
	11-15년	빈도	0	5	3	2	4
		비율	.0%	35.7%	21.4%	14.3%	28.6%
	16-20년	빈도	3	7	4	4	11
		비율	10.3%	24.1%	13.8%	13.8%	37.9%
	20-25년	빈도	0	3	0	1	7
		비율	.0%	27.3%	.0%	9.1%	63.6%
	25년 이상	빈도	1	3	4	2	2
		비율	8.3%	25.0%	33.3%	16.7%	16.7%
전공별 $\chi^2=15.991$ p-value=.454	역사	빈도	1	5	1	4	7
		비율	5.6%	27.8%	5.6%	22.2%	38.9%
	일반사회	빈도	3	12	8	4	9
		비율	8.3%	33.3%	22.2%	11.1%	25.0%
	지리	빈도	0	0	2	0	1
		비율	.0%	.0%	66.7%	.0%	33.3%
	윤리(도덕)	빈도	0	4	1	1	7
		비율	.0%	30.8%	7.7%	7.7%	53.8%
	기타	빈도	0	2	1	1	5
		비율	.0%	22.2%	11.1%	11.1%	55.6%
교직단체 가입별 $\chi^2=13.165$ p-value=.357	교총	빈도	2	10	3	5	9
		비율	6.9%	34.5%	10.3%	17.2%	31.0%
	전교조	빈도	1	5	8	2	7
		비율	4.3%	21.7%	34.8%	8.7%	30.4%
	기타	빈도	1	4	1	0	6
		비율	8.3%	33.3%	8.3%	.0%	50.0%
	무응답	빈도	0	4	1	3	7
		비율	.0%	26.7%	6.7%	20.0%	46.7%
전체		빈도	4	23	13	10	29
		비율	5.1%	29.1%	16.5%	12.7%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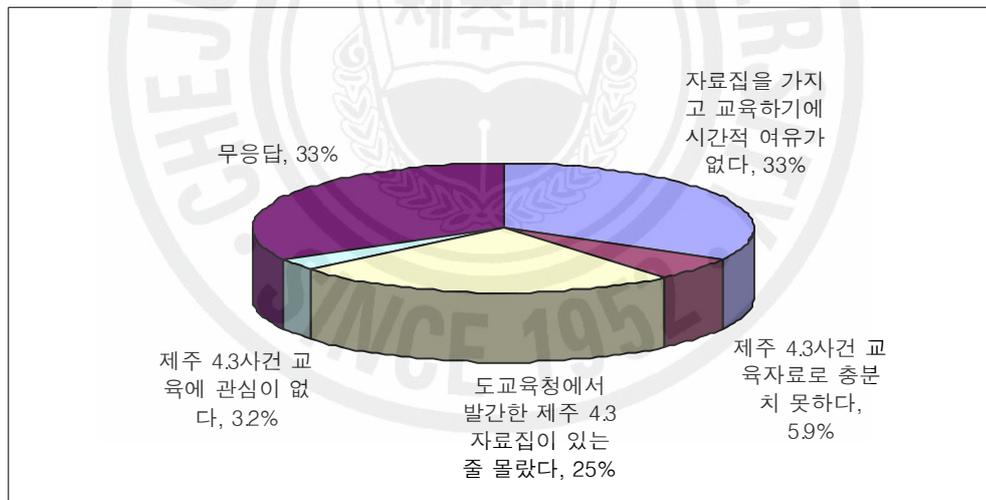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서 여자의 경우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끌기에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32.4%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 지리에서는 “각급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66.7%로 높게 나타났다. 교직원단체 가입별 전교조에서는 “각급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응답이 34.8%로 높게 나타났다.

#### 4)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자료 이용 못한 이유

“아직까지 선생님께서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학습자료로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가지고 교육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응답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4·3 자료집이 있는 줄 몰랐다” 25.0%, “제주4·3 교육자료로 충분치 못하다” 5.9%, “제주4·3 교육에 관심이 없다”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자료 이용 못한 이유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학습 자료로 이용 못한 이유에 대한 주요 변인별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자료 이용 못한 이유

구분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학습자료 이용하지 못한 이유				
			자료집을 가지고 교육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제주4·3 교육자료로 충분치 못하다	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제주 4·3자료집이 있는 줄 몰랐다	제주4·3 교육에 관심이 없다	무응답
성별 $\chi^2=5.706$ p-value=.222	남자	빈도	34	7	19	5	31
		비율	35.4%	7.3%	19.8%	5.2%	32.3%
	여자	빈도	28	4	28	1	31
		비율	30.4%	4.3%	30.4%	1.1%	33.7%
연령별 $\chi^2=34.562$ p-value=.005*	30세 이하	빈도	0	0	3	0	4
		비율	.0%	.0%	42.9%	.0%	57.1%
	31-40	빈도	14	1	10	2	14
		비율	34.1%	2.4%	24.4%	4.9%	34.1%
	41-50	빈도	39	8	30	0	39
		비율	33.6%	6.9%	25.9%	.0%	33.6%
	51-60	빈도	8	2	4	3	5
		비율	36.4%	9.1%	18.2%	13.6%	22.7%
	60세 이상	빈도	1	0	0	1	0
		비율	50.0%	.0%	.0%	50.0%	.0%
경력별 $\chi^2=19.745$ p-value=.232	10년 이하	빈도	9	1	6	0	14
		비율	30.0%	3.3%	20.0%	.0%	46.7%
	11-15년	빈도	15	1	10	1	7
		비율	44.1%	2.9%	29.4%	2.9%	20.6%
	16-20년	빈도	21	6	23	1	27
		비율	26.9%	7.7%	29.5%	1.3%	34.6%
	20-25년	빈도	8	2	5	1	8
		비율	33.3%	8.3%	20.8%	4.2%	33.3%
	25년 이상	빈도	9	1	3	3	6
		비율	40.9%	4.5%	13.6%	13.6%	27.3%
전공별 $\chi^2=19.902$ p-value=.225	역사	빈도	9	1	7	0	12
		비율	31.0%	3.4%	24.1%	.0%	41.4%
	일반사회	빈도	26	4	11	1	24
		비율	39.4%	6.1%	16.7%	1.5%	36.4%
	지리	빈도	3	2	7	2	3
		비율	17.6%	11.8%	41.2%	11.8%	17.6%
	윤리(도덕)	빈도	12	2	13	0	12
		비율	30.8%	5.1%	33.3%	.0%	30.8%
	기타	빈도	12	2	9	3	11
		비율	32.4%	5.4%	24.3%	8.1%	29.7%
교직단체 가입별 $\chi^2=13.378$ p-value=.342	교총	빈도	16	5	13	2	20
		비율	28.6%	8.9%	23.2%	3.6%	35.7%
	전교조	빈도	23	2	24	0	20
		비율	33.3%	2.9%	34.8%	.0%	29.0%
	기타	빈도	12	3	5	2	10
		비율	37.5%	9.4%	15.6%	6.3%	31.3%
	무응답	빈도	11	1	5	2	12
		비율	35.5%	3.2%	16.1%	6.5%	38.7%
전체		빈도	62	11	47	6	62
		비율	33.0%	5.9%	25.0%	3.2%	33.0%

p<.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 $\chi^2=34.562$  p-value=.005\* p<.05)에서 통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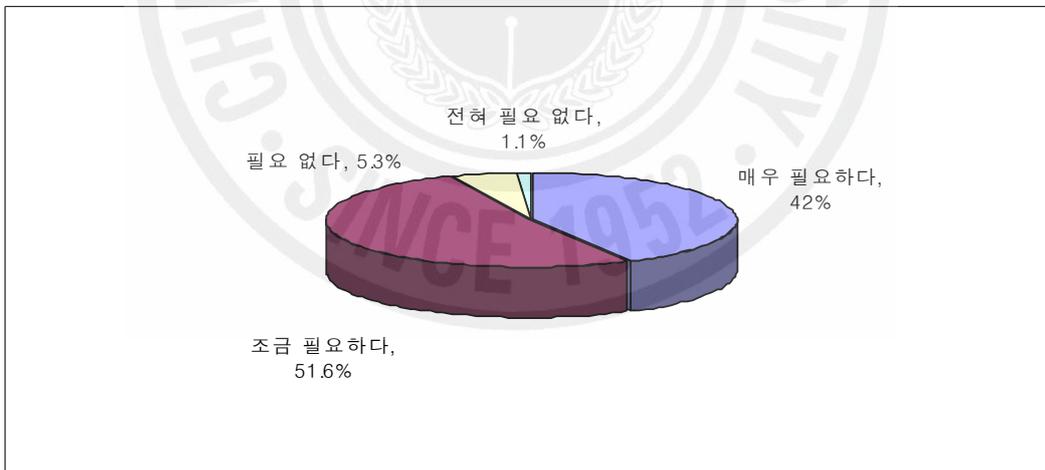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나머지 성별, 경력별, 전공별, 교직단체 가입별에서는 세부 항목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제주 4·3자료집이 있는 줄 몰랐다”라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났고, 31-40세와 41-50세, 51-60세에서는 “자료집을 가지고 교육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응답이 각각 34.1%, 33.6%, 36.4%로 높게 나타났다.

#### 4.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 1)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제주4·3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필요하다” 42.0%, “필요 없다” 5.3%, “전혀 필요 없다” 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제주4·3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구분			제주4·3 교육 필요성에 대한 생각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성별 $\chi^2=5.844$ p-value=.119	남자	빈도	37	49	8	2
		비율	38.5%	51.0%	8.3%	2.1%
	여자	빈도	42	48	2	0
		비율	45.7%	52.2%	2.2%	.0%
연령별 $\chi^2=32.858$ p-value=.001*	30세이하	빈도	2	5	0	0
		비율	28.6%	71.4%	.0%	.0%
	31-40	빈도	21	19	1	0
		비율	51.2%	46.3%	2.4%	.0%
	41-50	빈도	52	59	5	0
		비율	44.8%	50.9%	4.3%	.0%
	51-60	빈도	4	13	3	2
		비율	18.2%	59.1%	13.6%	9.1%
	60세이상	빈도	0	1	1	0
		비율	.0%	50.0%	50.0%	.0%
경력별 $\chi^2=30.921$ p-value=.002*	10년 이하	빈도	14	16	0	0
		비율	46.7%	53.3%	.0%	.0%
	11-15년	빈도	17	16	1	0
		비율	50.0%	47.1%	2.9%	.0%
	16-20년	빈도	35	40	3	0
		비율	44.9%	51.3%	3.8%	.0%
	20-25년	빈도	11	10	3	0
		비율	45.8%	41.7%	12.5%	.0%
	25년 이상	빈도	2	15	3	2
		비율	9.1%	68.2%	13.6%	9.1%
전공별 $\chi^2=23.139$ p-value=.027*	역사	빈도	20	9	0	0
		비율	69.0%	31.0%	.0%	.0%
	일반사회	빈도	28	34	2	2
		비율	42.4%	51.5%	3.0%	3.0%
	지리	빈도	3	11	3	0
		비율	17.6%	64.7%	17.6%	.0%
	윤리(도덕)	빈도	16	20	3	0
		비율	41.0%	51.3%	7.7%	.0%
	기타	빈도	12	23	2	0
		비율	32.4%	62.2%	5.4%	.0%
교직단체가입별 $\chi^2=17.387$ p-value=.043*	교총	빈도	19	32	4	1
		비율	33.9%	57.1%	7.1%	1.8%
	전교조	빈도	38	30	1	0
		비율	55.1%	43.5%	1.4%	.0%
	기타	빈도	9	22	1	0
		비율	28.1%	68.8%	3.1%	.0%
	무응답	빈도	13	13	4	1
		비율	41.9%	41.9%	12.9%	3.2%
전체		빈도	79	97	10	2
		비율	42.0%	51.6%	5.3%	1.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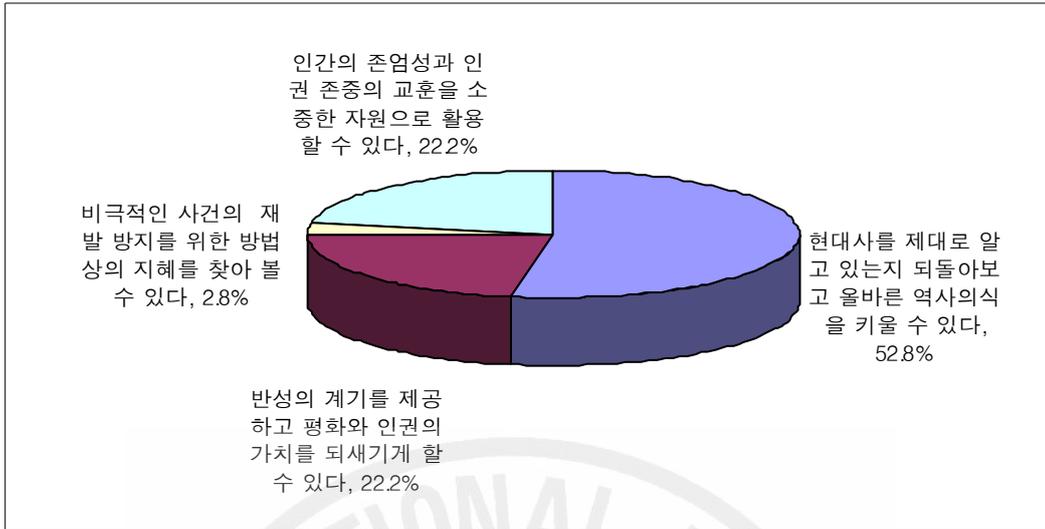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 $\chi^2=32.858$  p-value=.001\* p<.05), 경력별( $\chi^2=30.921$ p-value=.002\* p<.05), 전공별( $\chi^2=23.139$  p-value=.027\* p<.05), 교직단체별( $\chi^2=17.387$ p-value=.04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조금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51.0%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1-40세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세 이하, 41-50세, 51-60세에서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각각 71.4%, 50.9%,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이하, 16-20년, 25년 이상에서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53.3%, 51.3%,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1-15년와 20-25년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50.5%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역사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사회와 지리, 윤리(도덕), 기타에서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각각 51.5%와 64.7%, 51.3%,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직단체 가입별로 교총과 기타에서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57.1%와 6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교조에서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제주4·3 교육 필요한 이유

“선생님께서서는 제주4·3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할 수 있다”라는 응답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교훈을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22.2%, “비극적인 사건의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상의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다”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제주4·3 교육 필요한 이유



제주4·3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의견을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제주4·3 교육 필요한 이유

구분			제주4·3 교육이 필요한 이유			
			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지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다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할 수 있다	비극적인 사건의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상의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관 인권 존중의 교훈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다
성별 $\chi^2=.787$ p-value=.853	남자	빈도	46	17	3	20
		비율	53.5%	19.8%	3.5%	23.3%
	여자	빈도	47	22	2	19
		비율	52.2%	24.4%	2.2%	21.1%
연령별 $\chi^2=14.760$ p-value=.255	30세이하	빈도	3	0	0	4
		비율	42.9%	.0%	.0%	57.1%
	31-40	빈도	23	10	2	5
		비율	57.5%	25.0%	5.0%	12.5%
	41-50	빈도	56	27	2	26
		비율	50.5%	24.3%	1.8%	23.4%
	51-60	빈도	11	2	1	3
		비율	64.7%	11.8%	5.9%	17.6%
	60세이상	빈도	0	0	0	1
		비율	.0%	.0%	.0%	100.0%
경력별 $\chi^2=13.888$ p-value=.308	10년 이하	빈도	17	5	1	7
		비율	56.7%	16.7%	3.3%	23.3%
	11-15년	빈도	14	7	2	10
		비율	42.4%	21.2%	6.1%	30.3%
	16-20년	빈도	35	23	1	16
		비율	46.7%	30.7%	1.3%	21.3%
	20-25년	빈도	16	2	0	3
		비율	76.2%	9.5%	.0%	14.3%
	25년 이상	빈도	11	2	1	3
		비율	64.7%	11.8%	5.9%	17.6%
전공별 $\chi^2=6.120$ p-value=.910	역사	빈도	18	5	1	5
		비율	62.1%	17.2%	3.4%	17.2%
	일반사회	빈도	31	12	2	17
		비율	50.0%	19.4%	3.2%	27.4%
	지리	빈도	8	3	1	2
		비율	57.1%	21.4%	7.1%	14.3%
	윤리(도덕)	빈도	17	11	1	7
		비율	47.2%	30.6%	2.8%	19.4%
	기타	빈도	19	8	0	8
		비율	54.3%	22.9%	.0%	22.9%
교직단체가입별 $\chi^2=4.985$ p-value=.836	교총	빈도	30	8	2	11
		비율	58.8%	15.7%	3.9%	21.6%
	전교조	빈도	34	17	1	16
		비율	50.0%	25.0%	1.5%	23.5%
	기타	빈도	16	7	2	6
		비율	51.6%	22.6%	6.5%	19.4%
	무응답	빈도	13	7	0	6
		비율	50.0%	26.9%	.0%	23.1%
전체		빈도	93	39	5	39
		비율	52.8%	22.2%	2.8%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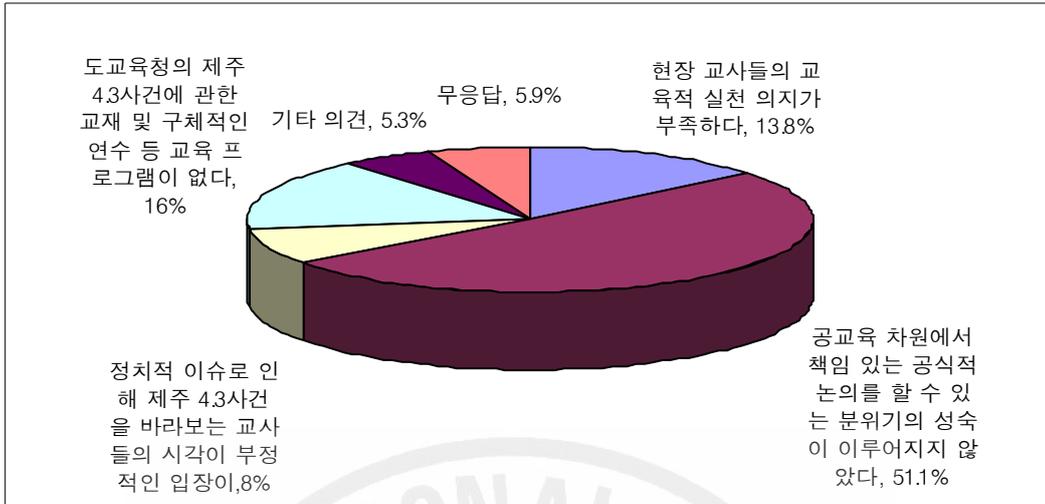
위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응답이 각각 53.5%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하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교훈을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로 살펴보면 20-25년의 76.2%가 “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다”고 응답했다.

윤리(도덕)에서는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30.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직원 가입별로는 “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응답이 교총 58.8%, 전교조 50.0%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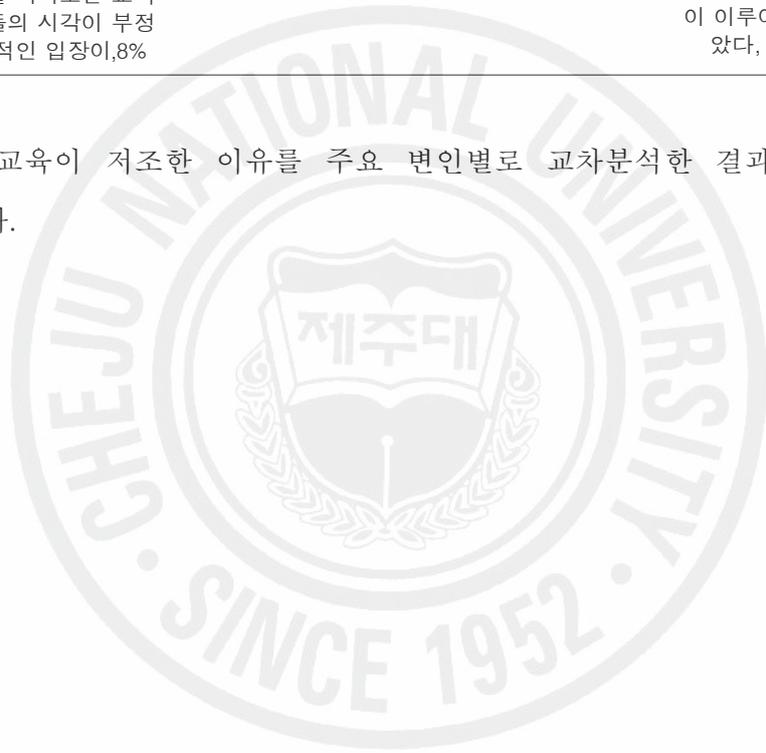
### 3) 제주4·3 교육이 저조한 이유

“제주4·3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제주4·3에 관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은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에 대해서는 “공교육 차원에서 책임 있는 공식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도교육청의 제주4·3에 관한 교재 및 구체적인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16.0%,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 13.8%, “정치적 이슈로 인해 제주4·3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8.0%, “기타 의견” 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제주4·3 교육이 저조한 이유



제주4·3 교육이 저조한 이유를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제주4·3 교육이 저조한 이유

구분			제주4·3 교육이 저조한 이유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	공교육 차원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이슈로 제주4·3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교육청의 제주 4·3에 관한 교재 및 구체적인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기타 의견	무응답	
성별 $\chi^2=21.824$ p-value=.001*	남자	빈도	16	49	14	8	6	3	
		비율	16.7%	51.0%	14.6%	8.3%	6.3%	3.1%	
	여자	빈도	10	47	1	22	4	8	
		비율	10.9%	51.1%	1.1%	23.9%	4.3%	8.7%	
연령별 $\chi^2=19.517$ p-value=.488	30세이하	빈도	0	4	0	1	1	1	
		비율	.0%	57.1%	.0%	14.3%	14.3%	14.3%	
	31-40	빈도	2	22	5	8	3	1	
		비율	4.9%	53.7%	12.2%	19.5%	7.3%	2.4%	
	41-50	빈도	19	58	6	19	6	8	
		비율	16.4%	50.0%	5.2%	16.4%	5.2%	6.9%	
	51-60	빈도	5	11	3	2	0	1	
		비율	22.7%	50.0%	13.6%	9.1%	.0%	4.5%	
	60세이상	빈도	0	1	1	0	0	0	
		비율	.0%	50.0%	50.0%	.0%	.0%	.0%	
경력별 $\chi^2=18.867$ p-value=.530	10년이하	빈도	3	16	3	4	3	1	
		비율	10.0%	53.3%	10.0%	13.3%	10.0%	3.3%	
	11-15년	빈도	5	14	2	7	4	2	
		비율	14.7%	41.2%	5.9%	20.6%	11.8%	5.9%	
	16-20년	빈도	9	43	4	14	1	7	
		비율	11.5%	55.1%	5.1%	17.9%	1.3%	9.0%	
	20-25년	빈도	3	14	3	3	1	0	
		비율	12.5%	58.3%	12.5%	12.5%	4.2%	.0%	
	25년이상	빈도	6	9	3	2	1	1	
		비율	27.3%	40.9%	13.6%	9.1%	4.5%	4.5%	
전공별 $\chi^2=37.821$ p-value=.009*	역사	빈도	5	11	3	2	6	2	
		비율	17.2%	37.9%	10.3%	6.9%	20.7%	6.9%	
	일반사회	빈도	13	37	6	6	1	3	
		비율	19.7%	56.1%	9.1%	9.1%	1.5%	4.5%	
	지리	빈도	2	6	3	3	1	2	
		비율	11.8%	35.3%	17.6%	17.6%	5.9%	11.8%	
	윤리(도덕)	빈도	1	22	1	11	2	2	
		비율	2.6%	56.4%	2.6%	28.2%	5.1%	5.1%	
	기타	빈도	5	20	2	8	0	2	
		비율	13.5%	54.1%	5.4%	21.6%	.0%	5.4%	
교직단체 가입별 $\chi^2=26.516$ p-value=.033*	교총	빈도	10	28	9	4	1	4	
		비율	17.9%	50.0%	16.1%	7.1%	1.8%	7.1%	
	전교조	빈도	10	37	2	15	3	2	
		비율	14.5%	53.6%	2.9%	21.7%	4.3%	2.9%	
	기타	빈도	2	21	1	4	3	1	
		비율	6.3%	65.6%	3.1%	12.5%	9.4%	3.1%	
	무응답	빈도	4	10	3	7	3	4	
		비율	12.9%	32.3%	9.7%	22.6%	9.7%	12.9%	
	전체		빈도	26	96	15	30	10	11
			비율	13.8%	51.1%	8.0%	16.0%	5.3%	5.9%

p<.0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 $\chi^2=21.824$  p-value=.001\* p<.05), 전공별( $\chi^2=37.821$  p-value=.009\* p<.05), 교직단체별( $\chi^2=26.516$  p-value=.03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외 연령별, 경력별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교육 차원에서 책임 있는 공식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각각 51.0%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제주4·3에 관한 교재 및 구체적인 연수 등 제주도교육청의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응답이 2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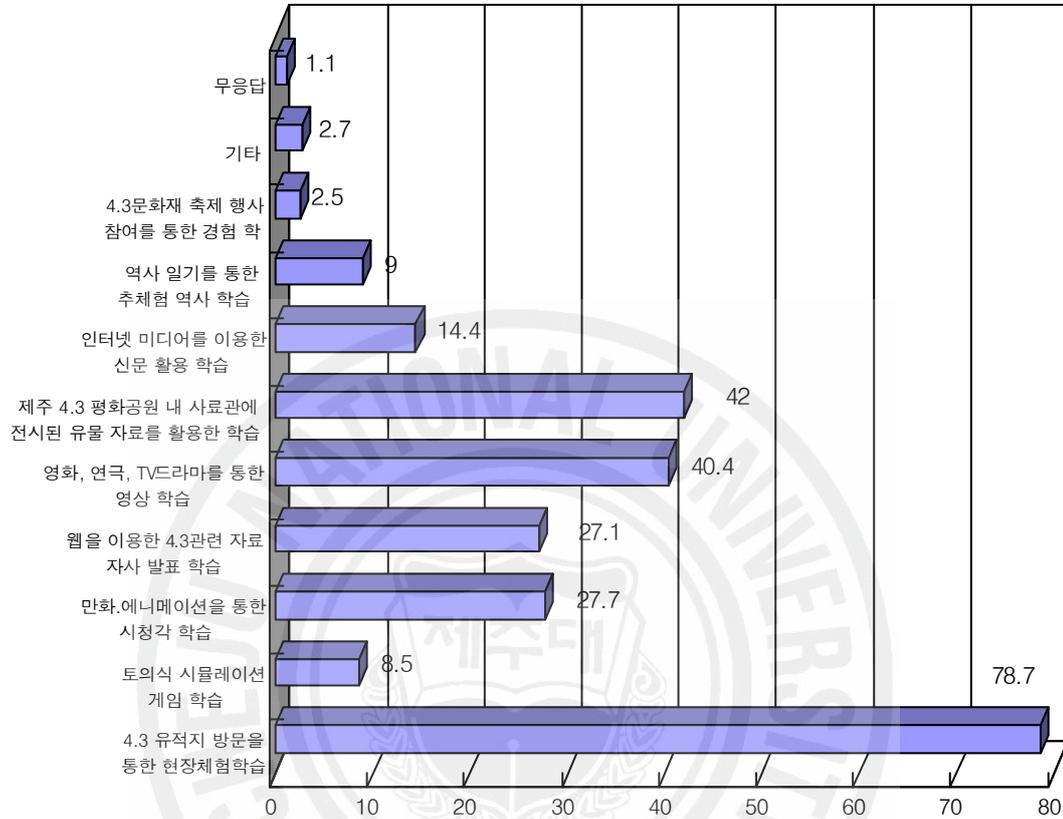
전공별로 살펴보면 모든 전공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책임 있는 공식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역사 37.9%, 일반사회 56.1%, 지리 35.3%, 윤리(도덕) 56.4%, 기타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리, 윤리(도덕), 기타에서는 “제주4·3에 관한 교재 및 구체적인 연수 등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응답이 각각 17.6%와 28.2%, 21.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직단체 가입별로 살펴보면 모든 단체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책임 있는 공식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교총 50.0%, 전교조 53.6%, 기타 65.6%, 무응답 32.3%로 높게 나타났다. 전교조, 기타에서는 “제주4·3에 관한 교재 및 구체적인 연수 등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응답이 각각 21.7%와 2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5. 제주4·3의 교육적 접근 방법론

### 1)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론

“다음에 열거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들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학습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다중응답 가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론



<표 25>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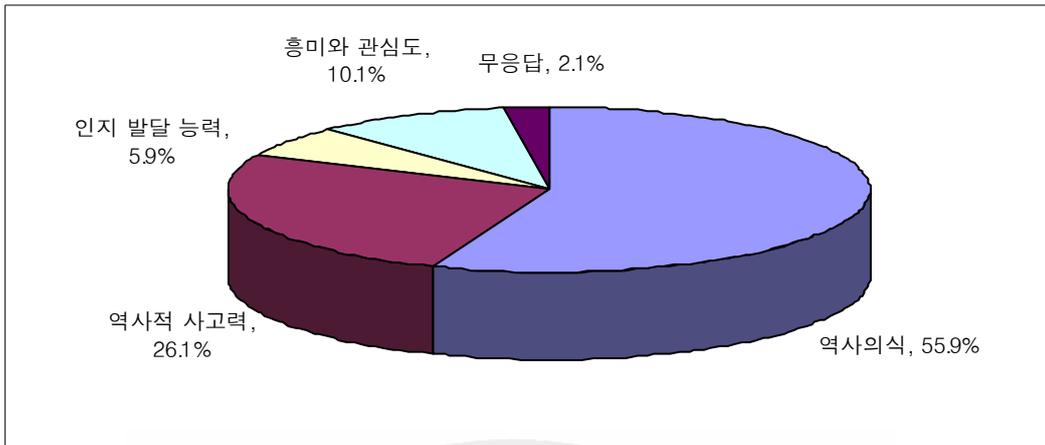
구분	빈도 (다중응답)	비율	
		다중응답전체 (519)	전체 (188)
제주4·3 유적지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148	28.5%	78.7%
토의식 시뮬레이션 게임 학습	16	3.1%	8.5%
만화.에니메이션을 통한 시청각 학습	52	10.0%	27.7%
웹을 이용한 제주4·3 관련 자료 조사 발표 학습	51	9.8%	27.1%
영화, 연극, TV드라마를 통한 영상 학습	76	14.6%	40.4%
제주 4·3 평화공원 내 사료관에 전시된 유물 자료를 활용한 학습	79	15.2%	42.0%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한 신문 활용 학습	27	5.2%	14.4%
역사 일기를 통한 추체험 역사 학습	17	3.3%	9.0%
제주4·3 문화 축제 행사 참여를 통한 경험 학습	46	8.9%	2.5%
기타	5	1.0%	2.7%
무응답	2	.4%	1.1%
합계	519	100%	276.1%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들에 대해 다중응답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4·3 유적지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 학습”이라는 응답이 7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4·3 평화공원 내 사료관에 전시된 유물 자료를 활용한 학습” 42.0%, “영화, 연극, TV드라마를 통한 영상 학습 ” 40.4%, “만화, 에니메이션을 통한 시청각 학습” 27.7%, “웹을 이용한 4.3 관련 자료 조사 발표 학습 ” 27.1%,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한 신문 활용 학습 ”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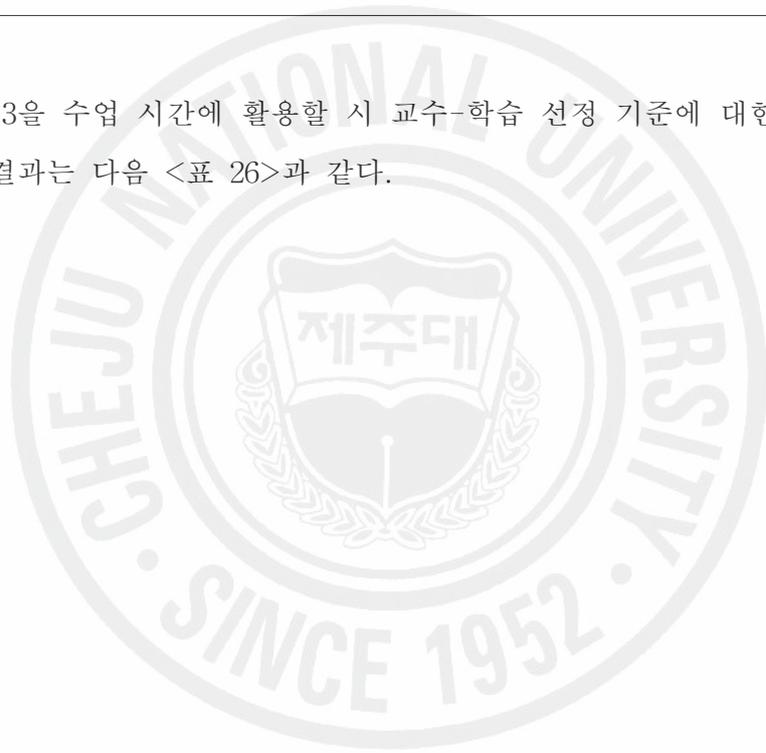
## 2)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기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시 교수-학습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역사의식”이라는 응답이 5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역사적 사고력” 26.1%, “흥미와 관심도” 10.1%, “인지 발달 능력”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기준



제주4·3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시 교수-학습 선정 기준에 대한 주요 변인별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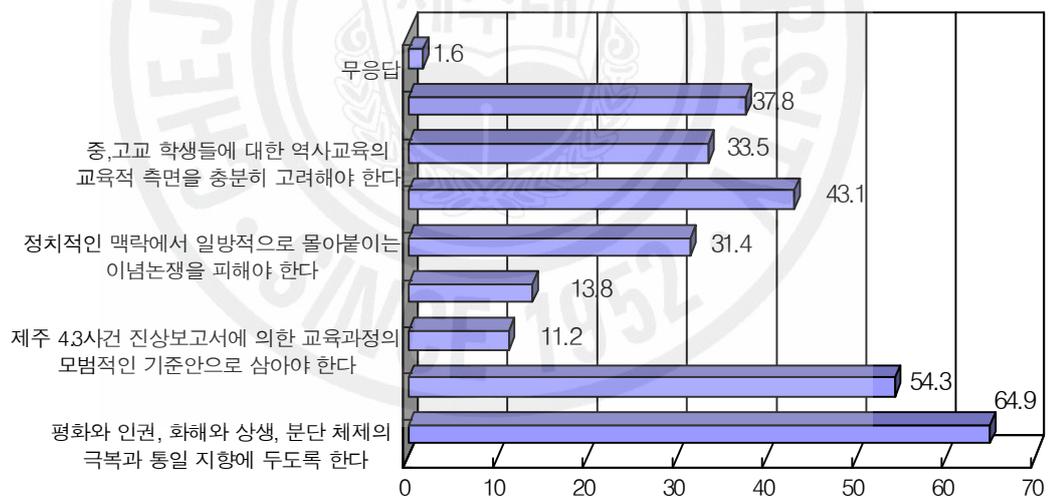
구분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의 선정 기준				
			역사의식	역사적 사교력	인지 발달 능력	흥미와 관심도	무응답
성별 $\chi^2=6.181$ p-value=.186	남자	빈도	59	22	6	9	0
		비율	61.5%	22.9%	6.3%	9.4%	.0%
	여자	빈도	46	27	5	10	4
		비율	50.0%	29.3%	5.4%	10.9%	4.3%
연령별 $\chi^2=17.552$ p-value=.351	30세이하	빈도	4	3	0	0	0
		비율	57.1%	42.9%	.0%	.0%	.0%
	31-40	빈도	20	15	3	3	0
		비율	48.8%	36.6%	7.3%	7.3%	.0%
	41-50	빈도	64	28	6	14	4
		비율	55.2%	24.1%	5.2%	12.1%	3.4%
	51-60	빈도	16	3	1	2	0
		비율	72.7%	13.6%	4.5%	9.1%	.0%
	60세이상	빈도	1	0	1	0	0
		비율	50.0%	.0%	50.0%	.0%	.0%
경력별 $\chi^2=23.525$ p-value=.100	10년 이하	빈도	15	10	1	3	1
		비율	50.0%	33.3%	3.3%	10.0%	3.3%
	11-15년	빈도	18	10	5	1	0
		비율	52.9%	29.4%	14.7%	2.9%	.0%
	16-20년	빈도	44	20	0	11	3
		비율	56.4%	25.6%	.0%	14.1%	3.8%
	20-25년	빈도	12	7	2	3	0
		비율	50.0%	29.2%	8.3%	12.5%	.0%
	25년 이상	빈도	16	2	3	1	0
		비율	72.7%	9.1%	13.6%	4.5%	.0%
전공별 $\chi^2=12.325$ p-value=.721	역사	빈도	11	10	3	5	0
		비율	37.9%	34.5%	10.3%	17.2%	.0%
	일반사회	빈도	37	16	3	9	1
		비율	56.1%	24.2%	4.5%	13.6%	1.5%
	지리	빈도	11	4	1	0	1
		비율	64.7%	23.5%	5.9%	.0%	5.9%
	윤리(도덕)	빈도	23	9	3	3	1
		비율	59.0%	23.1%	7.7%	7.7%	2.6%
	기타	빈도	23	10	1	2	1
		비율	62.2%	27.0%	2.7%	5.4%	2.7%
교직단체 가입별 $\chi^2=10.738$ p-value=.551	교총	빈도	31	13	4	6	2
		비율	55.4%	23.2%	7.1%	10.7%	3.6%
	전교조	빈도	40	21	2	6	0
		비율	58.0%	30.4%	2.9%	8.7%	.0%
	기타	빈도	17	7	4	4	0
		비율	53.1%	21.9%	12.5%	12.5%	.0%
	무응답	빈도	17	8	1	3	2
		비율	54.8%	25.8%	3.2%	9.7%	6.5%
전체		빈도	105	49	11	19	4
		비율	55.9%	26.1%	5.9%	10.1%	2.1%

위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역사의식”이라는 응답이 각각 61.5%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제주4·3 교육 시 필요한 지도 원칙<sup>68)</sup>

“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지도 원칙들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보십니까?”(다중응답 가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제주4·3 교육 시 필요한 지도 원칙



68) 2005년 2월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박찬식은 제주4·3 교육자료는 분명한 원칙 하에 서술 간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주 4·3 교육시 필요한 지도 원칙들은 강연안을 중심으로 설문지화하였음을 밝힌다.

박찬식(2005),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 4·3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바람직한 방향 강연자료집』, 제주4·3희생자유족회, p.10.

<표 27> 제주4·3 교육 시 필요한 지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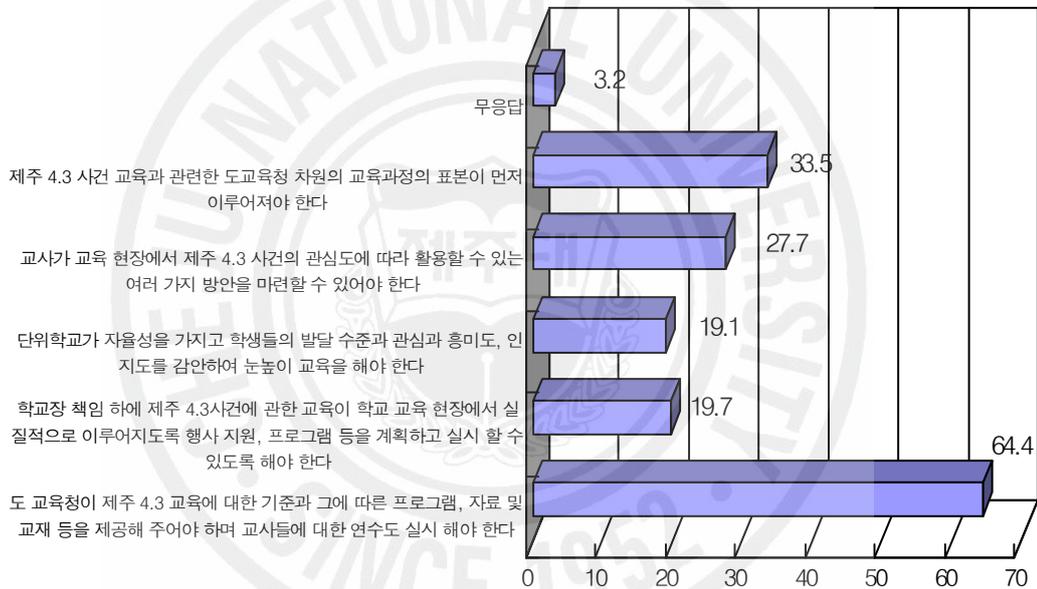
구분	빈도 (다중응답)	비율	
		다중응답전체 (519)	전체 (188)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분단 체제의 극복과 통일 지향에 두도록 한다	122	22.3%	64.9%
합리적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하는데 있다	102	18.6%	54.3%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의한 교육과정의 모범적인 기준안으로 삼아야 한다	21	3.8%	11.2%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역사적 서술에 주력하여야 한다	26	4.7%	13.8%
정치적인 맥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념논쟁을 피해야 한다	59	10.8%	31.4%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객관적이며 가치지향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81	14.8%	43.1%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교육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63	11.5%	33.5%
사실을 빠뜨려 역사인식을 오도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71	13.0%	37.8%
무응답	3	.5%	1.6%
합계	548	100.0%	291.5%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지도 원칙에 대해 다중응답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분단 체제의 극복과 통일 지향에 두도록 한다”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하는데 있다” 54.3%,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객관적이며 가치지향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43.1%, “사실을 빠뜨려 역사인식을 오도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37.8%,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교육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3.5%, “정치적인 맥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념논쟁을 피해야 한다” 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제주4·3 교육 시 최우선 실천과제

“선생님께서서는 앞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을 교육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다중응답 가능)라는 이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제주4·3 교육 시 최우선 실천과제



<표 28> 제주4·3 교육 시 최우선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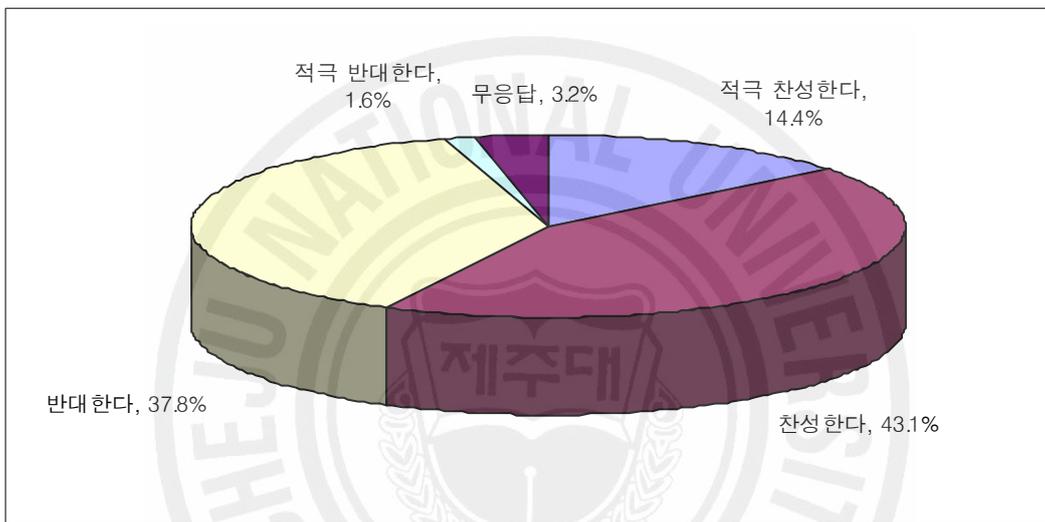
구분	빈도 (다중응답)	비율	
		다중응답전체 (519)	전체 (188)
도 교육청이 제주4·3 교육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자료 및 교재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 해야 한다	121	22.3%	64.4%
학교장 책임 하에 제주4·3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	11.7%	19.7%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관심과 흥미도, 인지도를 감안하여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한다	36	11.4%	19.1%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제주4·3의 관심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어야 한다	52	16.5%	27.7%
제주4·3 교육과 관련한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의 표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63	20.0%	33.5%
무응답	6	1.9%	3.2%
합계	315	100.0%	291.5%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중응답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4·3 교육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자료 및 교재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4·3 교육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의 표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3.5%,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제주4·3의 관심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27.7%, “학교장 책임 하에 제주4·3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7%,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관심과 흥미도, 인지도를 감안하여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한다” 1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5) 『제주문화사』 독립 교육과정 편성 견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주4·3과 같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공교육적 차원에서 『제주 문화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37.8%, “적극 찬성한다” 14.4%, “적극 반대한다” 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제주문화사』 독립 교육과정 편성 견해



『제주 문화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요 변인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제주문화사』 독립 교육과정 편성 견해

구분			『제주 문화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무응답
성별 $\chi^2=6.060$ p-value= .195	남자	빈도	19	38	33	2	4
		비율	19.8%	39.6%	34.4%	2.1%	4.2%
	여자	빈도	8	43	38	1	2
		비율	8.7%	46.7%	41.3%	1.1%	2.2%
연령별 $\chi^2=13.815$ p-value= .613	30세이하	빈도	1	1	5	0	0
		비율	14.3%	14.3%	71.4%	.0%	.0%
	31-40	빈도	3	22	14	0	2
		비율	7.3%	53.7%	34.1%	.0%	4.9%
	41-50	빈도	18	52	40	3	3
		비율	15.5%	44.8%	34.5%	2.6%	2.6%
	51-60	빈도	5	5	11	0	1
		비율	22.7%	22.7%	50.0%	.0%	4.5%
	60세이상	빈도	0	1	1	0	0
		비율	.0%	50.0%	50.0%	.0%	.0%
경력별 $\chi^2=19.401$ p-value= .248	10년 이하	빈도	5	10	14	0	1
		비율	16.7%	33.3%	46.7%	.0%	3.3%
	11-15년	빈도	5	16	10	0	3
		비율	14.7%	47.1%	29.4%	.0%	8.8%
	16-20년	빈도	10	36	30	2	0
		비율	12.8%	46.2%	38.5%	2.6%	.0%
	20-25년	빈도	2	13	6	1	2
		비율	8.3%	54.2%	25.0%	4.2%	8.3%
	25년 이상	빈도	5	6	11	0	0
		비율	22.7%	27.3%	50.0%	.0%	.0%
전공별 $\chi^2=16.260$ p-value= .435	역사	빈도	9	11	7	0	2
		비율	31.0%	37.9%	24.1%	.0%	6.9%
	일반사회	빈도	9	25	28	2	2
		비율	13.6%	37.9%	42.4%	3.0%	3.0%
	지리	빈도	2	7	7	0	1
		비율	11.8%	41.2%	41.2%	.0%	5.9%
	윤리(도덕)	빈도	4	18	16	1	0
		비율	10.3%	46.2%	41.0%	2.6%	.0%
	기타	빈도	3	20	13	0	1
		비율	8.1%	54.1%	35.1%	.0%	2.7%
교직단체 가입별 $\chi^2=14.513$ p-value= .269	교총	빈도	7	27	20	1	1
		비율	12.5%	48.2%	35.7%	1.8%	1.8%
	전교조	빈도	12	33	21	0	3
		비율	17.4%	47.8%	30.4%	.0%	4.3%
	기타	빈도	2	10	17	2	1
		비율	6.3%	31.3%	53.1%	6.3%	3.1%
	무응답	빈도	6	11	13	0	1
		비율	19.4%	35.5%	41.9%	.0%	3.2%
전체		빈도	27	81	71	3	6
		비율	14.4%	43.1%	37.8%	1.6%	3.2%

위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로 남자의 경우 찬성쪽 의견은 59.4%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는 56.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세 이하와 51-60세에서는 반대쪽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경력별로 10년 이하와 25년 이상에서는 찬성쪽 의견이 50.0%로 나타났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역사 68.9%, 일반사회 51.5%, 지리 53.0%, 윤리(도덕) 56.5%, 기타 62.2%로 찬성쪽 의견이 나타났다. 반면 일반사회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직원체 가입별로 보면 교총에서는 60.7%, 전교조는 65.2%가 찬성쪽의 의견을 보였다.



## IV. 제주4·3 교육의 방향과 과제

### 1. 제주4·3 교육의 방향

첫째, 공교육 현장에서 제주4·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교육현장에서 반공교육은 있어도 현대사 교육은 없었다. 제주4·3은 반공이데올로기통치 차원에서 통제되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조차도 민감한 사안으로 다루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제주4·3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앞장의 조사 결과, 과거의 학교 교육을 염두에 둔다면 제주 교육현장에서 제주4·3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인식도와 관심도는 놀라운 일이다. 제주4·3특별법이 공포되고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에 이르기까지 과거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 학습에서 향토사 자료 활용과 제주4·3 학습지도에 관해서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도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화 단원의 학습 지도에 있어서는 제주4·3에 관한 교육은 소극적이고 저조한 실정이다. 제주4·3을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념논쟁을 대신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점차 합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제주4·3 교육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4·3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제주4·3 교육은 왜 필요한가’, ‘제주4·3 교육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제주4·3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교육차원에서 제주4·3을 교육하는데 책임있는 교육적 논의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분위기의 성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4·3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 교육은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의 교육방향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내년이면 현대사의 비극적 역사인 제주4·3이 일어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공교육

현장에서 제주4·3 교육을 공론화를 통해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제주4·3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좋은 기회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 및 제주4·3유족회, 제주도민(학부모), 제주특별자치도,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교육을 총괄하는 제주도교육청이 주최가 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제도권의 외면 때문에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주4·3 교육이 제주4·3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계화의 기틀이 이루어져야 한다.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 양 시도 의회와 교육청, 전교조 광주와 전남 지부등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5·18교육을 위해 지난달 ‘5·18 공교육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시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전교조 등으로 이뤄진 ‘5·18청소년 교육협의회’도 출범했다. 그리고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학교 교육에서 5·18 기념 행사를 비롯한 학교급 별로 다양한 유의미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은 5·18민주화 운동 기념 학교교육 활동을 추진토록하고 학교별 자체 교육활동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장학활동을 펼치고 있다.

둘째,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 교육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유지 및 청소년·시민 사회단체를 활용하여 제주4·3을 잘 알며 관심있는 분들을 제주4·3교육위원으로 임명하여 지역사회도 제주4·3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5년부터 제주도 주최로 제주4·3교육과 연계해 초·중·고교의 현장학습 등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주4·3 유족회 주최로 제주4·3 유적지 역사 순례 기행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매우 호응도가 높아 유족회에서는 매달마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한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주4·3 이해를 위한 소책자와 기념메달,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주4·3 유적지 순례 기행 때는 제주4·3전문가를 초빙해 제주4·3 유적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해 주고 있다. 제주4·3 유적지 순례 기행을 다녀와서는 역사 기행 소감문을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들은 제주4·3에 대해 새로운 역사 인식을 발견하고 있다.<sup>69)</sup>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사들도 이런 내

용을 잘 알고 있으며 학교현장 교육으로 제주4·3 유적지 역사 순례 기행 행사가 있을 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산교육 학습을 위한 재정 및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4·3교육위원회는 제주4·3 교육 관련 학교 행사 시에 초청강연 등을 할 수도 있고 학교지 편찬 시에 마을 및 학교의 연혁 기술에 자문할 수 있다. 제주 4·3 당시 지역 및 학교의 피해 실태를 조사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 시민단체의 제주4·3교육위원들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행사 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광주에서는 ‘5·18 청소년 문화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이에 따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만나는 파트너십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주4·3 교육자료 편찬시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학생의 사고방식과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학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편제되어 있는데, 똑같은 학제단계에서 제주4·3을 언급할 수는 없다. 학생의 성장 경험과 사고능력과 어떻게 연관되었느냐가 검토되어야 한다. 상이한 단계에 상이한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학생의 사고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학습 내용과 학생(아동)들에 대한 심리발달에 관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교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sup>70)</sup>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기준에 대해 교사들은 ‘역사의식’을 중요시 하였다. 역사의식은 역사 교육을 통하여 얻어지는 역사적 이해력, 역사적 식견, 역사적 태도와 능력이며, 학습자의 지적 발달단계에 따라 형성, 성장하여 가는 가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sup>71)</sup> 역사의식은 초등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동안에 시원의식(감고)부터 성장하여 고급의식 → 변천의식 → 인과의식 → 시대의식 → 발전의식 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시원의식 단계로 고급의 구별이 불명확하며 동화와 같은

---

69) 교사와 학생들이 제주4·3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론은 제주4·3 유족회에서 발행하는 제주4·3특별법 제정 7주년 기념 『4·3 유족회지』 제 6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교사와 학생들의 제주4·3을 이해하는 시와 소감문들이 게재되어 있다. pp.220~270.

70) 이원순 외 2인(1986), 『역사교육론』, 삼영사, p.150.

71) 상계서, p.347.

이야기를 좋아하는 단계다. 그리고 고금의식 단계는 초등 3학년 단계로 고금의 차이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며, 현실과 허구의 구별이 가능한 단계다. 이 시기 학생들은 시간의식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림연표를 활용하여 어제와 오늘의 다른 모습을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로, 변천의식 단계는 초등 4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천을 느끼며 연표의 사용이 가능하고 영웅, 무용담에 흥미가 나타나는 시기로 파악하였다. 5학년은 인과의식 단계로 역사적 인과관계를 초보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며 주변의 현상에 대한 흥미가 커져간다고 보았다.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시대의식이다. 6학년에서는 인과의식이 강화되나 시대구조나 시대 관련은 미약하고 인물과 시대를 연결할 줄 안다고 하였다.

중학교 1년 단계에서는 향토사, 인물사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시대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2학년 단계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생기고 사회의식이 짝이 튼다고 보았다. 그리고 3년 단계에서는 시대 구조와 시대 관련의 파악이 가능하고 역사 이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발전의식 단계는 고등학교 단계로서 1학년에서는 세계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인간성에 관한 성찰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2-3학년에서는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며, 역사의 발전적 파악, 역사적 사건의 의의 통찰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sup>72)</sup> 이러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지적, 심리적 발달정도를 고려한 역사의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주4·3 교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도교육청이 제주4·3 교육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자료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제주4·3을 비롯한 현대사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교사의 지식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교수학습을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교사의 지식은 수업의 내용을 구성하고 전달하는 데 있

72) 송춘영(1999), 『역사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pp.137~141. 각급 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의 특징을 지표로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다.

제주지역의 사례를 통해본 역사의식 관련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강임하(1996),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은경(2003),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역사의식 연구- 국사학습에 대한 설문지 조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매해마다 계기교육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는 제주4·3 교육자료 집인 『아픔을 딛고 선 제주』 하나만으로는 교사가 실제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하기에 부족하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발간 보급한 제주4·3 교육 자료집인 『아픔을 딛고 선 제주』는 현장 체험 학습용으로 알맞은 지도서이다. 실제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주4·3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들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4·3 유물과 유적은 제주4·3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기본 학습자료라 할 수 있다. 과거 사람들이 남긴 사료를 접하고 그 의미를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직접적인 역사이해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제주4·3 교육과 관련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기본 학습자료들의 이해는 상당히 중요하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부제를 달고 ‘제주도 일본군 전쟁유적을 말한다’는 도록을 발간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각종 제주4·3 유물과 유적에 관한 해설서를 슬라이드 필름화 하는 작업과 영상화 하는 작업을 통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앞으로 제주 교육현장에서 ‘제주4·3 유적지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제주4·3평화공원 내 사료관에 전시된 유물 자료를 활용한 학습’, ‘영화, 연극, TV드라마를 통한 영상 학습’ 등 제주4·3을 교육하기에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제주4·3을 이해하고 지역 정체성을 키우는데 중요한 기반 학습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재량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주 5일제 수업과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발맞추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의 이해 및 교육을 위해 제주4·3 유적지 답사 기행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방안과 시간의 배당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 체험 학습 시 사료관을 활용한 교육은 과거 사람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학습 경험의 장을 마련해 준다. 제주시 봉개동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4·3평화공원<sup>73)</sup> 내에 사료관에 전시할 4·3 관련 사료와 전시 콘텐츠가 본격 수집되고 있

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제주4·3 관련 사료와 유물을 수집, 4·3 사료관에 전시 보존해 역사적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민관이 합동으로 4·3 관련 문서, 사진, 도서, 인쇄물, 회화, 조형물, 영상물, 음향 등 제주4·3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료와 물품을 조사, 수집 중에 있다. 제주도는 제주4·3을 체험한 생존자로부터 증언을 채록하고 유적지 발굴 사업도 진행중에 있다.<sup>74)</sup> 화북동에서 4·3유해 3구가 발굴된 이후 계속 발굴조사단이 구성되어 유해 발굴을 진행중에 있다.<sup>75)</sup> 사료관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막연히 보고 들어왔던 제주4·3에 관해서 직접 눈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연극, TV드라마를 통한 영상 학습도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중요한 제주4·3을 이해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중요시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에 대해 보다 생동감있게 보여주려

73) 4·3특별법 제8조(위령사업)에서는 ‘정부는 제주4·3사건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사업에는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4·3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기타 위령관련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4·3평화공원의 조성, 의의를 인권신장, 민주발전, 국민화합의 이념 아래 희생자의 위령과 그 유족의 위무, 역사적 교훈의 발견과 전승, 인권교육의 장으로 밝히고 있다.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2001),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p.6 재인용.

74) 제주 4·3 연구소에서 증언 자료집으로 1989년에 『이제야 말할수다』 1, 2권이 단행본을 출간되었고, 최근 3권이 출간되었다.그리고 MBC 제주 방송에서도 영상 자료로서 각 마을마다 돌며 생존해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겪은 마을의 4·3에 대해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재 살아계신 분들로 4·3의 상처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의 영상이야기를 다룬 <4·3 후유장애자 생애사 아카이브전시회>를 개최한 적도 있다. 그리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연구소는 1000인 증언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당시 제주4·3을 몸소 겪고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 그 삶 자체가 4·3이다. 이를 역사자료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 4·3을 직접 경험하신 세대들이 연로하다. 이 분들이 타계하면 그 시대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 현장 조사 작업을 통한 증언 채록 작업은 다른 어떤 작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다. 증언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4·3 유적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제주4·3연구소에서는 어떤 것이 유적이며,어떤 장소와 어떤 대상물을 유적으로 볼것이나 하는 논란이 있지만 4·3과 관계된 모든 자료와 증언을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잃어버린 마을, 성, 은신처, 희생터, 민간인 수용소(지서나 군의 유치장, 각종 창고 건물 등), 주둔지(군, 경, 서북청년회, 무장대), 희생자 집단 묘지, 비석, 역사현장, 기타(해원방사탑 등)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제주4·3과 관련된 유적을 년도별 조사해 『제주4·3 유적』 I, II을 발간했다.

김창후(2003), “제주 4·3 유적의 실태와 보존 방안”, 『제주4·3 유적』 I, 제주도, 제주4·3연구소, pp.9~13.

75) 200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국비 43억원을 투입하여 화북동 지역 5개소를 비롯 제주국제공항 부근 2개소 등 총 11개의 유해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발굴사업으로 그동안 증언 등으로만 주장돼온 집단학살의 진상은 물론 희생자의 규모 등도 일정부분 가시화 될 전망이다.

는 교사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습에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진작시키고 생동감을 줌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영상자료를 활용한 역사학습은 교실의 전통적인 의사소통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며,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역사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다.<sup>76)</sup>

여섯째, 현재 제주4·3 교육관련 현장교육 사례집이 없어, 제주4·3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주제 및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편찬한 제주4·3 교육 자료집은 『아픔을 딛고 선 제주』뿐이다. 이 지도서 하나를 가지고 교사가 학생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하도록 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 교재는 현장체험학습용으로 만들어져 실제 수업시간에 활용도가 낮다. 제주4·3 교육 관련 현장교육 운영 사례집을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주4·3 교육자료집에서는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안을 전폭 수용하고 있다. 과거 ‘공산 폭동론’으로 인식된 제주4·3의 역사 인식론을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사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역사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받아보지 못한 교사가 태반이나 되며 이 교육자료집의 발간을 모르고 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계기교육에 교육자료집을 활용한 교사도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자료집의 내용을 학교 실정 및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편집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교육청의 발간 의도에도 못미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을 실제 수업 시간 및 학교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가르쳤던 교사들의 수업 자료를 모집하고 다양한 현장교육 운영 사례집을 발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4·3 교육 이렇게 해 봅시다.’식의 현장교육집을 발간하면 교사들이 편리하게 실제로 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제주4·3에 관한 교수·학습을 할 수가 있다.

2004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발간한 『선생님이 들려주는 오월 이야기』에는 5·18 민주화운동 학교 교육 활동에 다음과 같은 행사 활동을 운영사례로 제시하

76) 김한중(2002), 전개서, p.157.

고 있다.

추모행사 : 5·18기념식, 학생 묘역 참배, 교사 묘역 참배

교육활동 : 계기교육, 학생 대상 초청강연, 교사 대상 초청강연

전시활동 : 5·18사진전, 그림 전시, 협동화 그리기

학생 참여 활동 : 글짓기, 삼행시, 릴레이 시쓰기, OX퀴즈, 퍼포먼스

외부 행사 참여 : RED FASTA, 전야제, 각종전시회

기타 : 영창 체험 등 기타 교외 체험 학습, 5·18 단체와 연계한 봉사 활동

위와 같은 내용들은 실제 광주지역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 주간에 학교에서 연간교육계획서에 반영되어 행사를 학교급별로 시행하고 있다.<sup>77)</sup>

앞으로, 제주 교육현장에서도 4·3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교과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연구를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4·3 교육 시 서로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도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제주4·3 교육 인식조사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지도 원칙들에 대해서 제주도 중등학교 교사들은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분단 체제의 극복과 통일 지향에 두도록 한다”, “합리적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하는 데 있다”,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객관적이며 가치지향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사실을 빠뜨려 역사인식을 오도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교육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념논쟁을 피해야 한다” 등의 순으로 지도원칙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지도원칙들은 도교육청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교사는 물론,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생각을 묻는 여론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간의 제주4·3 교육 갈등은 여전하다. 도교육청이 일방적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면 불란의 소지만 클 뿐이다. 서로간

77) 최승원(2007), “5·18 기념 행사를 통한 민주화운동 교육”, 『생생하고 다양한 5·18수업사례 발표 -선생님 5월에는 이렇게 공부해요!』, pp.67~68.

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도원칙이 설정되고 이에 따르는 제주4·3 교육에 관한 지침서가 나와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 학생들에게 제주4·3과 같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제주지역 문화사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을 각 지역 교육이나 학교에서 그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지역사회의 요구, 필요성, 실정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교과용 도서를 교육감이 저작권을 갖는 인정도서를 편찬하도록 하여 지역화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제주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주4·3과 같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공교육적 차원에서 제주지역 문화사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도 『제주 문화사』(가칭)를 독립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에 거의 찬성하고 있음도 위 분석사례에서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현재 지역화 학습에서 향토사 자료 활용과 제주4·3 학습 지도에 관해서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도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화 단원의 학습 지도에 있어서는 제주4·3에 관한 교육은 소극적이고 저조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고등학교의 수업에서 입시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제주 지역과 관련된 교육내용이라도 교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충실히 이해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지역화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탐구력, 의사결정력, 창조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등 고급사고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실 현장에서는 구호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제주도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잃고 있으며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박탈

하고 있다.<sup>78)</sup>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주 문화사』(가칭) 편찬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향토의 역사·자연·문화·산업·사회 등 전 분야를 망라하여 향토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분류·정리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있어야 한다. 그 지역문화 교과서를 편찬하고 지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면 긍정적인 역사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지역정체성을 함양할 수가 있을 것이다.<sup>79)</sup>

학생들이 지역화로 재구성된 자료를 가지고 학습하게 됨으로써 얻어진 경험과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각을 가지게 하여 자기 고장을 자랑하는 의식을 싹트게 할 것이고, 그것은 곧 향토발전의 가장 큰 정신적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80)</sup> 그리고 이러한 『제주 문화사』(가칭) 교과서는 학생들의 역사의식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학습자료, 학습방법 등이 심화되고 다양화된 형태로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어야 그 가치가 있다. 현장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시험과 입시와 전혀 관련 없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제공할 수 있을려면 교양 과목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지정과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독립과목으로 편성·신설될때만<sup>81)</sup>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를 위한 교육이 제대

78) 김대운(2004),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사회과의 지역화 - 제주지역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p.58~61.

“1학년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주당 2시간으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이해시키기도 힘들다며, 유인물을 병행하면서 교과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전념했다고 했다. 1학년은 제주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4·3사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지만, 제주 지역사에 대하여 수업을 할 계획을 계획은 없었다”며 제주 시내 N고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79) 지역정체성 함양과 관련하여 김동전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제주사회는 국제자유도시의 실시로 급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제주인들만이 만들어 온 제주다운 문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제주인에 대한 정체성을 찾는 가장 올바른 방향은 ‘전통문화’이며, 그 핵심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일 수 밖에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자칫 잘못하면, 몸은 제주인이지만, 머리는 서구화되어버린 장애인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드릴 때, 그 문화는 제주의 전통문화와의 만남을 통하여 제주적인 것으로 변화한다. 유·무형의 잠재적인 제주문화유산은 올바르게 찾아내고, 그 시대, 제주지역에서, 제주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독특한 문화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질 때 제주의 정체성은 확립되는 것이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김동전(2003), “제주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와 관련하여”, 『지방사와 지방문화』, 6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pp.315~346.

80) 이해준(1998),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와 자료활용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집, 역사문화학회, p.151.

로 가능해질 수 있다.

호남지방의 경우, 199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의향(義鄕)』이라는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하고 이듬해 이에 의거하여 같은 이름의 중·고등학교 학생용 독본을 간행하였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1998년 『남도문화(南道文化)』라는 교사용 지도서를 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학생용 인정도서를 편찬하여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sup>82)</sup>

## 2. 제주4·3 교육의 과제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인정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4·3을 민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청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4·3이 일어난지 55년이 되는 해에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수만의 도민들이 희생된 사건임을 인정하고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제주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까지 하였다. 정부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역사 연표위에 당당히 기록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 제Ⅱ장에서 역사교과서의 제주4·3에 관한 서술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아직까지 역사교과서 서술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된다. 제주4·3 서술에 있어 미군정과 4·3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제주4·3은 6·25전쟁의 배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육과정의 틀 속에는 교묘히 반공 이데올로기적 사고가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학교 『국사』 교과목에서는 6·25전쟁의 배경 하에 제주4·3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 공산 정권은 소련과 비밀 군사 협정을 맺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대

---

81) 교육부는 2002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각 학년에 주당 4시간의 재량활동 시간을 신설하여 지역 실정과 학교의 교육적 특성, 학생의 요구 등에 따라 창의적인 교육활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비전 2002 : 새학교문화창조』, 1998, 67쪽) 그러나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실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교과 학습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런 교육체계로서는 지역문화사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82) 고영진(2002), “역사교과서와 지방사 서술”, 『전남사학』 19호, 전남사학회. p.599.

한 민국에 대한 무력 남침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나 당시 남한은, 제주도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및 각지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파업 등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정당과 사회 단체의 난립으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실정이었다.”

제주4·3은 광복 후 통일국가 수립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살상 사건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중단원 속에 하위항목 단원의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마땅하다.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둘째,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 교육을 함에 있어 일대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sup>83)</sup> 제Ⅱ장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제주4·3 교육 실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의 제주4·3 교육 인식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도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후, 이에 따른 연수 및 학생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4·3문제는 진상과 성격 규명이 이뤄진 후에 학생지도를 위한 연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가에서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고 공인된 자료인 진상조사보고서까지 나왔다. 또한, 제주4·3특별법이 재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제주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후세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제Ⅲ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등학교 교사들의 제주4·3 인식에서 보더라도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도 제주4·3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심도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분단 체제의 극복과 통일 지향에 두도록 제주4·3 교육의 필요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제주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함에 있어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 교육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자료 및 교재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제주4·3 교육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의 표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 5·18 민주화 운

---

83) 이영권은 중·고등학교 제도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육행정에서의 일대 사고 전환, 내실 있는 4·3 교사 직무연수의 의무화, 4·3 교육 전문팀 구성 및 학습자료 개발, 교사들의 적극적, 창의적 노력, 수련시설에서 4·3교육 상설화” 를 지적하고 있다.

이영권(2007), 전계서, pp.147~155.

동기간에는 광주 교육청은 기념주년을 설정하여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광주교육청의 모델을 삼아 연간 학교교육계획서에 단위학교의 제주4·3 교육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장학지도가 요청된다.

셋째, 제주4·3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최종적으로 전개되는 곳은 단위 학교이다. 제주4·3을 지역화 학습 또는 학교 활동에서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장과 교사의 자율적인 활동이 증대되어 지역에 맞는 창의적인 교수·학습이 전개되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제주4·3 59주년을 맞아 관련 계기교육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적인 시각과 국가차원에서 제정한 ‘제주4·3특별법’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도교육청에서 발간 보급한 제주4·3 교육 장학자료집인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활용토록” 하였다. 계기교육의 방법으로는 문예활동(글짓기, 그림·만화그리기, 서예), 웅변대회 개최, 잃어버린 마을이나 4·3 평화공원 등 4·3관련 유적지 탐방 체험학습, 학교장 및 담임교사 훈화지도, 전문가 초청 강연, 역사 과목이나 도덕 등의 관련교과 지도, 향토 역사반의 특별활동, 4·3위령제 추모 현수막 게재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주4·3에 관심이 있는 학교장이나 교사가 있는 학교는 시행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는 올해도 유인물로만 대체하는 계기교육에만 그치고 넘어가는 학교도 있었을 것이다. 제주4·3을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과 교사들 스스로 제주4·3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학교교육 과정 즉, 연간교육계획서에 반영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을 바라보는 교육 인식이 어떠한지 그 관심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공교육적 차원에서 제주4·3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 방안을 위한 새로운 교육적 방안을 탐색하였다. 논의된 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어떠한 표현형식을 취하고 있는가는 학생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역사교과서 서술 시각면에서는 제주4·3에 대하여 처음으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되었다는 ‘양민 희생’ 담론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과서는 제주4·3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무장폭동론적 인식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여 기술되어지고 있다.

제주4·3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진상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주4·3 내용 서술 시각에서는 다양한 인식이나 평가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정부가 공식 인정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제주4·3을 민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보완하는 교육과정의 개선 작업이 요청된다.

둘째, 제주4·3특별법이 공포되고 국가적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대통령 공식사과에 이르기까지 과거사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이 제주 교육현장에도 반영되었다. 제주4·3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는 8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주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들이 제주4·3을 바라보는 관점은 ‘민간인 학살사건’, ‘항쟁’으로 이해되어 제주4·3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주4·3 교육에 관해서 교사들은 90%이상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분단 체제의 극복과 통일 지향에 두도록 제주4·3 교육의 필요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교육 차원에서 제주4·3을 교육하는 데 효율적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분위기의 성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제주지부 및 제주4·3유족회, 제주도민(학부모), 제주도, 4·3관련 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주4·3을 학교 교육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대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도교육청이 제주4·3 교육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자료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주4·3 교육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자료 및 교재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 제주4·3 교육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단위학교에서 자료집의 내용을 학교 실정 및 학교급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편집하여 적극 활용토록하고 있으나 제주도교육청의 발간 의도에도 못미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제주도교육청은 각종 제주4·3 유물과 유적에 관한 해설서를 슬라이드 필름화 하는 작업과 영상화 하는 작업등을 통해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학생의 사고방식과 수준을 고려해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교육청은 각 교과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과연구를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화 학습에서 향토사 자료 활용과 제주4·3 학습 지도에 관해서도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도 파악된다. 그러나 실제 지역화 단원의 학습 지도에 있어서는 제주4·3에 관한 교육은 소극적이고 저조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고등학교의 수업에서 입시시험에 대한 부담으로 제주 지역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라도 교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서를 충실히 이해시키는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지역화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탐구력, 의사결정력, 창조적 사고력, 비판적사고력, 메타인지 등 고급사고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실 현장에서는 구호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제주도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잃고 있으며 제주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주 문화사』(가칭) 편찬이 필요하다.

『제주 문화사』(가칭) 교과서는 학생들의 역사의식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학습 자료, 학습방법 등이 심화되고 다양화된 형태로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되어야 그 가치가 있다. 현장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시험과 입시와 전혀 관련 없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제공할 수 있는 교양과목으로 편성될 필요성이 있다. 제주도교육청의 지정과목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독립과목으로 편성·신설될때만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가능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기준으로 ‘역사의식’을 꼽았다, 제주 교육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제주4·3 유적지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제주4·3 평화공원 내 사료관에 전시된 유물 자료를 활용한 학습’, ‘영화, 연극, TV드라마를 통한 영상 학습’ 등을 제주4·3을 교육하기에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꼽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설문조사는 제주4·3 교육 인식에 관해 사회과 교사들만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제주도 전체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 근무하는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의 차 비교는 고찰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이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4·3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어떤 가치와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현장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 국사편찬위원회(1979),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82), 『고등학교 국사』 하, 문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90), 『고등학교 국사』 하, 문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1996), 『고등학교 국사』 하, 문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_\_\_\_\_ (2002),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_\_\_\_\_ (2006), 『중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부(1998),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7].
- 고성준 외(2004), 『동아시아와 평화의 섬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광남 외4인(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주)두산.
- 김중수 외 3인(2004),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범문사.
- 김한중 외(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_\_\_\_\_ (2005), 『역사교육 역사인식』, 책과함께.  
\_\_\_\_\_ (2005), 『한국근현대사 교육론』, 선인.  
\_\_\_\_\_ (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도서출판 선인.
- 김홍수 외 5인(2004),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주) 천재교육.
- 나간채 외(2004),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 송춘영(1999),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 역사문제연구소 외(1999),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 5·18기념재단(2007), 『생생하고 다양한 5·18 수업, 미술』  
\_\_\_\_\_, 『생생하고 다양한 5·18 수업, 도덕』  
\_\_\_\_\_, 『생생하고 다양한 5·18 수업, 클럽활동』  
\_\_\_\_\_, 『생생하고 다양한 5·18 수업 - 초등』  
\_\_\_\_\_, 『생생하고 다양한 5·18 수업 사례 발표 - 선생님 5월에는  
이렇게 공부해요』
- 윤세철교수정년기념역사학논총간행위원회(2001), 『역사교육의 방향과 국사교육』, 솔출  
판사.

이원순 외(1986), 『역사교육론』, 삼영사.

이존희 저(2001), 『역사교육, 달라져야한다』, 혜안.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 외(2003), 『한국사 교과서의 희망을 찾아서』, 역사비평사.

정선영 외(2002),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제민일보 4·3 취재반(1994), 『4·3은 말한다』, 제2편, 전예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2006), 『평화연구』 제17권 제1호, 정음인쇄사.

제주도교육사편찬위원회(1979), 『제주교육사』,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도교육청(1999), 『제주도교육사』, 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제주도교육청(2005), 제주4·3교육자료집(개정증보판)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삼화상사인쇄사.

제주4·3연구소(2002),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 역사비평사.

제주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선인.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2006), 『4·3유족회지』, 온누리.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2001), 『제주4·3 평화공원조성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주진오 외(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주)중앙교육연구소.

최완기(2003), 『역사교육과 학습내용의 선정』, 느티나무.

한철호 외 5인(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주).

### < 논문 >

강성현(2002),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순문(2002), “초등학교 역사교육에서 4·3학습 방안”,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임하(1996),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역사의식”,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고성만(2005), “제주 4·3 담론의 형성과 정치적 작용”,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고영진(2002), “역사교과서와 지방사 서술”, 『한국사·한국문화』, 전남사학 19호, 전남사학회.

김대운(2004),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사회과의 지역화- 제주지역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동전(2000), “제주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지방사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회.

- \_\_\_\_\_ (2003), “제주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 제주국제자유도시 시대와 관련하여”, 『지방사와 지방문화』 I 제6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 김영권 (2003), “향토사 학습을 통한 애향심 함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희 (2005), “제주4·3 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김종민 (1998), “제주4·3항쟁-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2, 역사비평사.
- \_\_\_\_\_ (1999), “4·3이후 50년”,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 김한중 (2001), “역사의 표현형식과 국사교과서 서술”, 『21세기 국사교육의 새로운 모색』, 국사편찬위원회.
- 김창후 (2003), “제주4·3유적의 실태와 보존방안”, 『제주4·3유적』 I - 제주시·북제주군, 제주도, 제주4·3연구소.
- 박명립 (1988),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찬식 (1999), “4·3 연구의 추이와 전망”, 『제주작가』, 제2집, 실천문학사.
- \_\_\_\_\_ (2001), “한국전쟁기 제주4·3 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수형인 명부’를 중심으로”, 『4·3과 역사』, 창간호, 제주4·3연구소.
- \_\_\_\_\_ (2003), “4·3 진실찾기 운동의 발자취”, 『4·3과 역사』, 제3호, 제주4·3연구소.
- \_\_\_\_\_ (2007), “4·3의 공적 인식과 역사교과서 서술”, 『과거사와 교육·제주4·3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4·3연구소,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 양정심 (2005), “제주4·3항쟁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양조훈 (1999), “제주4·3양민학살사건”,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역사비평사.
- 양호환 (2000), “사회변화와 역사교육의 방향”, 『역사교육논집』, 제26집, 역사교육학회.
- 유승봉 (2003), “향토사교육의 연구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향”, 『사회과 교육』, 제42권 2호, 사회과교육연구회.
- 이영권 (2007), “학교교육현장에서의 4·3교육, 그 현황과 과제 :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과거사와 교육·제주4·3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4·3 연구소, 과거사청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 이해준 (1998),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와 자료활용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I, 역사문화학회.
- 임문철 (2004),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의회보』, 제19호, 제주도의회.

- 유철인(2004), “구술된 경험읽기 - 제주4·3 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 인류학』, 제 37-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 윤석찬(2001), “4·3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현주(2006), “역사학습을 통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재개념화”,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장동표(2003), “역사교육의 지역화와 국사 교과서의 지역사 서술”, 『역사와 경계』, 제 47집, 부산경남사학회.
- 장은경(2004),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역사의식 연구-국사학습에 대한 설문지 조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윤식(2005),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장인선(2004),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편찬과정과 내용분석”,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경희(2002),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분석 - 제1차 교육과정~제6차 교육과정”,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정연호(2000),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와 지배 이데올로기 분석-고등학교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태국(2002), “제주지역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개선방안-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 < 자료집 >

- 고창훈(2003), “제주도민의 4·3 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 과정의 성과와 과제”, 『제주4·3 도민연대 창립4주년 기념 4·3도민토론회 자료집』, 제주4·3도민연대.
- 교육부(1998), 『교육비전 2002 : 새 학교 문화 창조』 자료집.
- 김삼웅(2003), “4·3진상보고서 확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제주도 4·3사건희생자유족회 연수회 자료집』,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 박찬식(2005),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 4·3을 통해 본 과거청산의 바람직한 방향”,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강연회 자료집』,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2006), 『4·3당시 목포형무소 희생의 진상』

< 기 타 >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홈페이지 [http:// www.jeu43.go.kr](http://www.jeu43.go.kr).

제주4·3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jeu43.org>. 논문자료실.

제주도의회 제145 정기회 의사일정 제6차본회의 1998.12.17. 속기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http://www.council.jeu.kr/>.

제주도의회 제15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제주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 1999. 12. 17. 속기  
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http://www.council.jeu.kr/>.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 2006. 11. 9. 속기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http://www.council.jeu.kr/>.

『한겨레 신문』 1989. 8. 15.

『제주일보』, 2001. 4. 4. 『제주일보』, 2001. 4. 5. 『제주일보』, 2004. 3. 11.

『제민일보』, 1994. 7. 5. 『제민일보』, 1994. 10. 10. 『제민일보』, 1999. 12. 18.

『제민일보』, 2000. 1. 19. 『제민일보』, 2000. 2. 12. 『제민일보』 2007. 3. 29.

『한라일보』, 1994. 4. 15. 『한라일보』, 2000. 5. 6. 『한라일보』, 2001. 3. 30.

『한라일보』, 2006. 3. 31.

인터넷 신문 미디어 제주 2005. 3. 25.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 . 2006. 12. 18. 2006. 11. 9.

<Abstract>

# Awareness of the Jeju 4·3 Incident: Jeju-do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Instructors' Educational Perceptions

Hyun, Jin-ho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Jun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how middle-school social studies teachers perceive education regarding the Jeju 4·3 incident. This research seeks to serve as the foundation for further discussion about responsible public education. In addition, various proposals are considered for creating and implementing an effective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study proceeded on two fronts-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In order to carry out research related to Jeju 4·3 incident education, first of all history textbooks had to be analyzed and reviewed to determine general perceptions of the incident.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survey data, which measured 5 factors including perception and interest, regional studies and Jeju 4·3 education, use of Jeju 4·3 educational materials, the need for Jeju 4·3 education, and didactic approaches in Jeju 4·3 educ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some textbooks included information from the "Jeju 4·3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ort", some textbooks still refer to the incident as a communist

---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uprising of "armed rebels" who were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affirmed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s reached in the "Jeju 4·3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ort", there is still a great need to correct incorrect perceptions of the Jeju 4·3 incident.

Second, social studies teachers' interest in the 4·3 incident is quite high, coming in at 85%. Also, changing perceptions of the 4·3 incident were also apparent, with many civilians tending to view it as "a massacre of civilians" or "resistance". When asked about the need for Jeju 4·3 education, over 90% of teachers said that such education was needed.

Third, the designated textbook, "Jeju Overcomes its Pain" (Apeum-eul Did-go Sun Jeju) was given a low rating by teachers using it in designated schools. This suggests that this textbook is not meeting the expectations of the Jeju Board of Education. Students need a book that will help them easily understand what occurred during the Jeju 4·3 inciden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variety of related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raise students' intellectual level.

Fourth, a majority of teachers agreed that there should be a separate curriculum for teaching Jeju's history and culture to Jeju youth in public schools. 43.1% said they agreed with this measure, while 37.8% said they were opposed. 14.4% said they were "strongly in favor" of the proposal, while 1.6% said they were "strongly opp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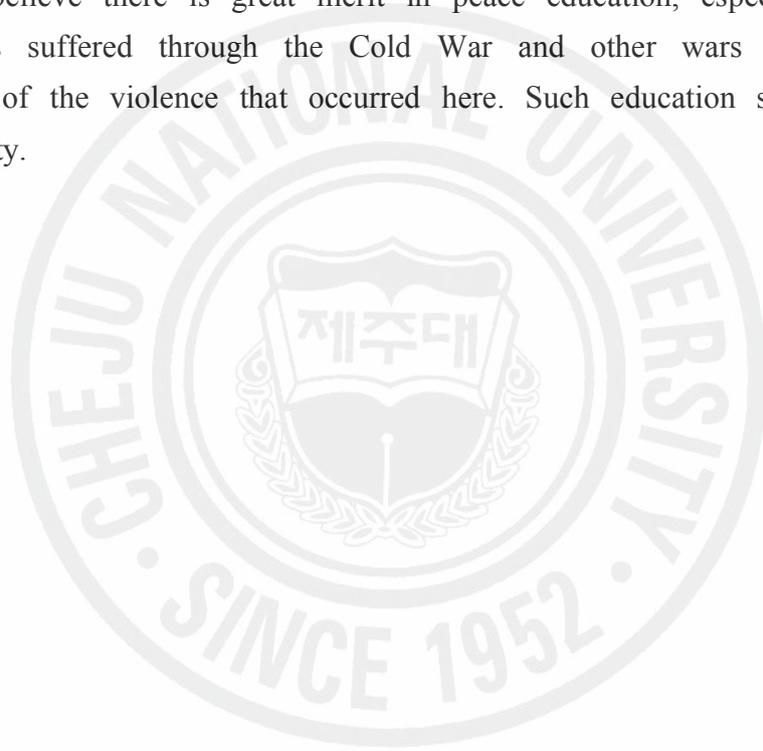
Fifth, 64.9% of teachers supported Jeju 4·3 educat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Peace, human rights, reconciliation, coexistence, and overcoming national division through unification with the North."

Sixth, 64.4% of respondents agreed about the need for Jeju Board of Education support regarding "Jeju 4·3 incident educ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and materials, and teacher training."

Finally, 78.7% of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teachers believe that "field trips to Jeju 4·3 incident-related sites" are the best method for teaching students, while 42.0% thought that taking students to the "Jeju 4·3 incident peace park to see historical artifacts" was a good idea. 40.4% of teachers thought that using Audio-visual materials or TV would be effective, while

27.1% of teachers thought that comic books or animation-related audio-visual education would be effective. Coming in lowest at 14.4% some teachers believed internet study was most effective in teaching students about the Jeju 4-3 incident.

Teaching assumes that there is mutual coopera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 We must make an effort to ensure that Jeju 4-3 incident education includes the societal values we want to teach young students. Jeju 4-3 incident education is forward-looking, has vision and direction. Through such education we can recover our human dignity, and teach students about human rights and peace. I believe there is great merit in peace education, especially in Jeju, which has suffered through the Cold War and other wars and still has memories of the violence that occurred here. Such education should be our first priority.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도내에 근무하고 계시는 중등학교 선생님들의 “제주4·3”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앞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바람직하고 가치지향적인 “제주4·3”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실천적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고 틀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평소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 내용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현진호 올림

※.각 문항의 해당하는 번호 한 곳에 0표나 V표하여 주시거나, 기타( )란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자 ( ) ② 여자 ( )
2. 연령별 : ① 30세 이하 ② 31~40 ③ 41~50  
④ 51~60 ⑤ 60세 이상
3. 경력별 : ① 10년 이하 ② 11 ~ 15년 ③ 16~20년  
④ 20~25년 ⑤ 25년 이상
4. 전공별 : ① 역사 ② 일반사회 ③ 지리  
④ 윤리(도덕) ⑤ 기타( )
5. 교직 단체 가입별 : ① 교총 ② 전교조 ③ 한교조 ④ 기타 ( )

**1. 제주4·3 교육 인식과 관심도**

1) 선생님께서는 우리 교장에서 일어났던 현대사 제주4·3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 \_\_\_\_ ①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_\_\_\_ ② 조금 많은 편이다  
\_\_\_\_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_\_\_\_ ④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다.

2) 제주 현대사 4·3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관점은 어떠하십니까?

- \_\_\_ ① 폭동
- \_\_\_ ② 항쟁
- \_\_\_ ③ 인민무장 투쟁
- \_\_\_ ④ 민간인 학살 사건

3) 선생님께서는 제주4·3의 진실성을 알려주는 4·3 관련 유물이나 유적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_\_\_ ① 전혀 모른다.
- \_\_\_ ② 1- 5개
- \_\_\_ ③ 5-10개
- \_\_\_ ④ 10개 이상

4) 선생님께서는 제주도교육청의 협조로 유족회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4·3 유적지 역사 순례 기행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계십니까?

- \_\_\_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_\_\_ ② 조금 알고 있다.
- \_\_\_ ③ 잘 모른다.
- \_\_\_ ④ 전혀 알지 못한다.

5) 제주4·3 유적지 역사 기행 행사가 있을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_\_\_ ② 참여하겠다.
- \_\_\_ ③ 참여치 않겠다.
- \_\_\_ ④ 별로 관심이 없다.

6)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_\_\_ ① 적극 찬성한다.
- \_\_\_ ② 찬성한다.
- \_\_\_ ③ 필요 없다
- \_\_\_ ④ 전혀 필요 없다

6-1)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찬성하시는 선생님만 답변해 주십시오.)

- \_\_\_ ①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 4·3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_\_\_ ② 학교 교육현장에서 제주 4·3에 관한 교육을 일원화 할 수 있다.
- \_\_\_ ③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 4·3에 관한 교육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_\_\_ ④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 4·3에 관한 계기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

6-2) 제주4·3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것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반대하시는 선생님만 답변해 주십시오.)

- \_\_\_ ① 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직까지 제주4·3과 관련한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 \_\_\_ ②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이 너무나 많다.
- \_\_\_ ③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한 교육은 시기상조이다.
- \_\_\_ ④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과 관련한 담당교사만 둔다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2. 지역화 학습과 제주4·3 교육

7) 선생님께서는 제주4·3에 대한 학습은 어느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역사
- \_\_\_ ② 일반사회
- \_\_\_ ③ 지리
- \_\_\_ ④ 윤리(도덕)
- \_\_\_ ⑤ 모든 교과

7-1) 선생님께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교육 현장에서 학습하는데 적합하다고 선택하신 교과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제주4·3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므로
- \_\_\_ ② 제주4·3은 제주의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됨으로
- \_\_\_ ③ 제주4·3은 제주도라는 지역성 측면을 강조하기에
- \_\_\_ ④ 제주4·3은 가치 명료화 접근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 \_\_\_ ⑤ 제주4·3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문제이므로

8) 선생님께서는 지역화 학습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_\_\_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_\_\_ ② 어느정도 알고 있다
- \_\_\_ ③ 별로 아는 것이 없다
- \_\_\_ ④ 잘 모르겠다

9) 선생님께서는 지역화 단원의 학습 지도에 있어서 제주4·3에 관한 향토사

자료 활용과 지역화 학습 지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대단히 필요하다
- \_\_\_ ② 조금 필요하다
- \_\_\_ ③ 별 필요없다
- \_\_\_ ④ 전혀 필요없다

10) 선생님께서는 교과 학습 시 지역화 단원과 관련하여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 \_\_\_ ① 있다
- \_\_\_ ② 없다

### 3. 제주4·3 교육과 학습자료 이용

10-1) 선생님께서 교과 학습 시간에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했을 때 자료 이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_\_\_ ① 직접 자체 학습지 유인물을 제작 활용
- \_\_\_ ② 인터넷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
- \_\_\_ ③ 교육 단체에서 발간한 제주4·3에 관한 교육 자료 CD 이용
- \_\_\_ ④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홍보 영상물 자료 이용
- \_\_\_ ⑤ 도교육청 발간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활용

11) 선생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받아 보시거나 교재를 이용해 교육한 적은 있으십니까?

- \_\_\_ ① 받아본 적이 있다
- \_\_\_ ② 받아 본 적이 없다
- \_\_\_ ③ 받기만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지 잘 모른다

- \_\_\_\_\_④ 계기 교육시간에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한 적이 있다
- \_\_\_\_\_⑤ 교과 교육시간에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한 적이 있다

12)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적이  
계신다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료 활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_\_\_\_\_① 학생들의 인지 발달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
- \_\_\_\_\_②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끌기에 부족하다
- \_\_\_\_\_③ 각급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다.
- \_\_\_\_\_④ 역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사고의 장면과 학습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13) 아직까지 선생님께서 『아픔을 딛고 선 제주』 제주4·3 교육 자료집을 교육자료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_\_\_\_\_① 자료집을 가지고 교육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 \_\_\_\_\_② 제주4·3 교육자료로 충분치 못하다
- \_\_\_\_\_③ 도교육청에서 발간한 제주4·3 자료집이 있는 줄 몰랐다
- \_\_\_\_\_④ 제주4·3 교육에 관심이 없다

#### 4. 제주4·3 교육의 필요성

14) 제주4·3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제주4·3에 관한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은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_\_\_\_\_①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
- \_\_\_\_\_② 공교육 차원에서 책임 있는 공식적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_\_\_\_\_③ 정치적 이슈로 인해 제주4·3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 \_\_\_\_\_④ 도교육청의 제주4·3에 관한 교재 및 구체적인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 \_\_\_\_\_⑤ 기타 의견 ( )

15) 제주4·3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_\_\_\_\_① 매우 필요하다.
- \_\_\_\_\_② 조금 필요하다.

- \_\_\_ ③ 필요 없다
- \_\_\_ ④ 전혀 필요 없다

15-1) 선생님께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선생님만 대답해 주십시오.)

- \_\_\_ ① 현대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다.
- \_\_\_ ②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할 수 있다.
- \_\_\_ ③ 비극적인 사건의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상의 지혜를 찾아 볼 수 있다.
- \_\_\_ ④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의 교훈을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다.

15-2)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불필요하다거나 적극 반대하시는 선생님만 대답해 주십시오.)

- \_\_\_ ①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 \_\_\_ ② 교육과정상 민간인 학살 사건의 재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_\_\_ ③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형성되지 않았다.
- \_\_\_ ④ 특정 이념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강요할 위험성이 있다.

### 5. 제주4·3의 교육적 접근 방법론

16) 다음에 열거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제주4·3을 교육하기에 알맞은 교수-학습 방법들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이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는 학습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학습하기에 쉽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방법을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 ① 4·3 유적지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 \_\_\_ ② 토의식 시뮬레이션 게임 학습
- \_\_\_ ③ 만화·에니메이션을 통한 시청각 학습
- \_\_\_ ④ 웹을 이용한 4·3관련 자료 조사 발표 학습
- \_\_\_ ⑤ 영화, 연극, TV드라마를 통한 영상 학습
- \_\_\_ ⑥ 제주4·3 평화공원 내 사료관에 전시된 유물 자료를 활용한 학습
- \_\_\_ ⑦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한 신문 활용 학습

- \_\_\_\_\_ ⑧ 역사 일기를 통한 추체험 역사 학습
- \_\_\_\_\_ ⑨ 4·3문화재 축제 행사 참여를 통한 경험 학습
- \_\_\_\_\_ ⑩ 기타 ( )

17) 선생님께서 제주4·3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업 시간에 학습할 시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

- \_\_\_\_\_ ① 역사의식
- \_\_\_\_\_ ② 역사적 사고력
- \_\_\_\_\_ ③ 인지 발달 능력
- \_\_\_\_\_ ④ 흥미와 관심도

18) 제주 교육현장에서 제주4·3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지도 원칙들입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 보십니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지도원칙을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 분단 체제의 극복과 통일 지향에 두도록 한다.
- \_\_\_\_\_ ② 합리적 판단과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하는 데 있다.
- \_\_\_\_\_ ③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에 의한 교육과정의 모범적인 기준안으로 삼아야 한다.
- \_\_\_\_\_ ④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역사적 서술에 주력하여야 한다.
- \_\_\_\_\_ 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념논쟁을 피해야 한다.
- \_\_\_\_\_ ⑥ 확실적인 교육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객관적이며 가치지향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다.
- \_\_\_\_\_ ⑦ 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교육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_\_\_\_\_ ⑧ 사실을 빠뜨려 역사인식을 오도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19)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주4·3을 교육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실천해야 할 과제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 \_\_\_\_\_ ① 도교육청이 제주 4·3교육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자료 및 교재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해야 한다.
- \_\_\_\_\_ ② 학교장 책임 하에 제주4·3에 관한 교육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사 지원,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_\_\_\_\_ ③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관심과 흥미도, 인지도를 감안하여 눈높이 교육을 해야 한다.
- \_\_\_\_\_ ④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제주4·3의 관심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어야 한다.
- \_\_\_\_\_ ⑤ 제주4·3 교육과 관련한 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의 표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0)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주4·3과 같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공교육적 차원에서 『제주 문화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_\_\_\_\_ ① 적극 찬성한다.
- \_\_\_\_\_ ② 찬성한다.
- \_\_\_\_\_ ③ 반대한다.
- \_\_\_\_\_ ④ 적극 반대한다.

※ 끝까지 설문에 응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